A STUDY ON CHINESE MISSION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RESISTANCE: FOCUSING ON NESTORIANISM,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저항의 관점에서 본 중국 선교역사연구; 경교, 천주교, 개신교를 중심으로

By

BYOUNGILKIM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Contextual Studies

May 2023

ABSTRACT

Kim, Byoungil
2023 “A Study on Chinese Mission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Resistance: Focusing on Nestorianism,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Doctor of Philosophy in Contextual Studies.

This thesis is a study on a new missionary strategy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event of resistance to the act of spreading the gospel that occurred in the history of Christian missionary work in China.

Christianity's mission to China has been handled by Nestorianism,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for more than 1,400 years, from the Chinese mission to the Tang(唐) Dynasty in 635 to the Yuan(元), Ming(明), and Qing(淸) Dynasties, Republic of China to the early 20th century and now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addition, the forms, causes, and results of various events of resistance that were encountered in the history of Christian missionary work in China were identified in a large frame. Through this study of resistance to Christian missions, I tried to present the correct direction of missions in the Chinese society, culture, and political form that Chinese Christianity and missions are currently facing.

In particular, there were many Chinese missionaries who were 'expelled' from China until the Xi Jinping government came into office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first political regime for three consecutive terms. In particular, there were many foreign missionaries who were 'expelled' from China until the Xi Jinping government came into office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first political regime for three consecutive terms. And this difficulty in Christian mission can be seen as the surface

resistance of the current Chinese government's 'Christianization policy'. I look at the deep-rooted history of Chinese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deological resistance to Western culture and religion behind these Chinese government policies is examined. And through the experience of resistance in the history of Chinese missions in the past, I would like to present the attitude of faith that Chinese Christians can effectively apply and the practical missionary strategies that Chinese churches can do.

I hope that this dissertation will be of help to the exiled missionaries who are crying and wishing for Chinese missionary work again and to the Chinese church that is still suffering.

개요 (ABSTRACT)

김병일

2023 "저항의 관점에서 본 중국 선교역사연구: 경교, 천주교, 개신교를 중심으로"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Doctor of Philosophy in Contextual Studies.

본 논문은 기독교의 중국선교역사 속에 발생하였던 복음전파 행위에 대한 저항 사건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에 근거한 새로운 선교전략을 세우기 위한 연구다.

기독교(基督敎)의 중국선교는 635년경 경교(景敎)의 당(唐)나라 선교를 시작으로 원(元), 명(明), 청(淸)나라를 거쳐 20세기 초 중화민국(中華民國)과 현재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에 이르기까지 무려 1400여 년 동안 경교(景敎)와 천주교(天主敎), 개신교(改新敎)가 각 시대별로 중국선교를 감당해 왔다. 이러한 기독교의 중국선교역사 속에서 맞이하였던 다양한 저항(핍박)사건을 형태와 원인, 그리고 결과를 도출하여 큰 틀에서 구분하고, 이러한 기독교 선교에 대한 저항의 연구를 통하여 현재 중국 기독교와 선교가 맞이하고 있는 중국사회와 문화, 정치형태 속에서 올바른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시진핑(习近平) 정부가 들어서고 중국공산당 초유의 정치적 정권 3연임에 이르기까지 중국으로부터 '비(非)자발적 철수'를 하게 되는 중국 선교사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기독교 선교의 어려움은 현재 중국정부의 '기독교의 중국화 정책'이라는 표면적인 저항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정책 이면에 있는 서방문화와 종교에 대한 중국 사회 문화와 정치의 이데올로기적 저항의 뿌리 깊은 역사가 있다. 과거 중국선교에 대한 역사적 저항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중국 성도들이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교적 신앙자세와 중국교회가 이루어 갈 수 있는 실천적인 선교전략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다시금 중국선교를 갈망하고 있는 '비(非)자발적 철수'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여전히 모진 비바람을 맞이하고 있는 중국교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주제어: 저항, 중국선교, 경교, 기독교의 중국화, 이데올로기, 가정교회

DISSERTATION APPROVAL SHEET

This dissertation, entit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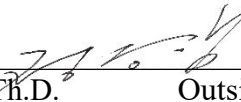
저항의 관점에서 본 중국 선교역사연구: 경교, 천주교, 개신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inese Mission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Resistance: Focusing on Nestorianism,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written by

BYOUNGIL KIM

and submitted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Contextual Studies

has been read and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s of the faculty of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Seung Oh Ahn, Ph.D. Major Advisor

Kwang Sung Kim, Ph.D. Committee Member

Jin Seok Park, Ph.D. Committee Member

Yong Am Chung, Th.D. Outside Reader

May 2023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 STUDY ON CHINESE MISSION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RESISTANCE: FOCUSING ON NESTORIANISM,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CONTEXTUAL STUDIES

BY

BYOUNGIL KIM

SANTA FE SPRINGS, CALIFORNIA

MAY 2023

목차 (TABLE OF CONTENTS)

표 목록 (LIST OF TABLES)

그림 목록 (LIST OF FIGURES)

약어 목록 (LIST OF ABBREVIATIONS)

삼자회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中國基督敎 三自愛國運動委員會
삼정	범위를 정한다. 지점을 정한다. 사람을 정한다
정협	인민정치협상회의-人民政治协商会议
CIM	China Inland Mission
CES	Chinese Evangelization Society

헌정 (DEDICATION)

이 논문을 한국과 중국의 선교적 교회에 드립니다.

감사의 말 (ACKNOWLEDGEMENTS)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받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주밀하게 지도해 주신 안승오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사위원으로 아낌 없는 권면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김광성 교수님, 박진석 교수님의 지도로 이 졸고를 마칠 수 있었음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통하여 이 연구를 마칠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제주성지교회 노경천 담임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제주대학교 도서관 팀장 김신영 사서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주장신대학교의 박사원 원팀으로 섬겨 주셨던 임윤택 교수님, 신춘식 교수님, 정용암 교수님과 주변의 모든 분들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논문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함께 공부를 하던 동기들의 따뜻한 마음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쉽지 않은 학문의 과정에서 늘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줄 뿐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아내 원현주와 아빠의 학업을 자랑스럽게 응원해주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아들 은우와 단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중국교회를 사랑하고 중국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논문을 한국과 중국의 선교적 교회와, 비(非)자발적 철수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께 바칩니다.

2023년 5월

김 병 일

제1장

서론

기독교 선교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저항 세력이 항상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인류 저항의 역사는 창세기의 에덴동산으로까지 올라간다. 노아의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 출애굽과 광야와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사건까지, 성경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저항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저항의 개념을 선교학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사람은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Anderson McGavran)이라고 할 수 있다. 도날드 맥가브란은 그의 저서 *교회성장 이해*에서 복음에 대한 인간집단의 '수용성(Receptive)'을 설명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저항성(Resistance)'[1]을 학계에 언급하였다. 그는 '저항성'이란 하나님이 연장하신 초대를 거부하는 것으로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하며, 교회성장을 막는 개념들과 나아가 선교활동에 부정적인 반응에서부터 이러한 저항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저항성은 오랜 세월 동안 선교활동의 실패의 잔재들에 근거한 나름대로의 신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2]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민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다분히 복음에 저항하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종교적인

---

[1] Donald A. McGavran, and C. Peter Wagner, *교회성장이해*, trans. 최동규 et al.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252-68. 교회성장을 막는 개념들.

[2] McGavran, and Wagner.253

이유 이외에, 그들의 민족을 사랑하거나, 민족의식이 강할수록 저항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하였다.[3]

이후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와 같은 선교학자들이 선교의 저항성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고, 찰스 밴 엥겐(Charles E. Van Engen)에 와서는 그의 저서 *개혁하는 선교신학* 에서 선교의 역사 가운데 저항세력은 항상 존재하기에, 저항세력에 대한 선교 신학적 성찰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저항적 민족의 개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4] 또한 그는 선교현장에서 선교전략을 세우는 데 특정한 문화적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음에 저항하는 집단'이, '수용적 집단'이 되기 위하여 저항세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5] 선교학에서 '저항'은 신앙의 핍박을 포함하여 복음을 저해하는 모든 사회·정치적 현상과 인간 집단의 반응을 포함하기에 '저항'은 해당민족의 세계관을 비롯하여 종교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요소들이 포함된다고 정리하였다.[6]

이 연구는 이러한 '선교에 대한 저항' 이론에 입각하여 중국의 기독교(경교, 천주교, 개신교) 선교역사에서 기독교 선교가 어떠한 저항들을 맞이하였으며, 그러한 저항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저항과 핍박 가운데 있는 중국교회 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선교역사를 '개신교'에 한정하지 않고, '그리스도교-基督教'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경교(Nestorianism)', '천주교(Roman Catholic Church)', '개신교(Protestantism)'를 모두 포함하여 연구함으로, 기존의 개신교 중국선교의 출발점으로 여기는 19세기의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7]의 선교를 기점으로 하는 선교 연구보다, 약 1200여 년을 앞서 중국 선교역사의 저항 사건을 폭넓게

---

[3] McGavran, and Wagner.325

[4] Charles Edward Van Engen, *(개혁하는) 선교신학*, trans. 임윤택 and 서경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CLC), 2021), 265.

[5] Engen, 282.

[6] Engen, 308.

[7] 중국교회사에서 처음으로 활동한 개신교 선교사(1807-1834).

연구하고, 중국의 다양한 역사 시대를 관통하는 저항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에 대한 방안 제시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배경

본 연구자는 대학졸업 후 2001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4년 7개월간 중국의 천진(天津)과 상해(上海) 지역에서 직장생활과 함께 자비량 선교사역을 하면서 중국 선교의 실제를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다.[8]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선교사역을 하고 현지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중국선교의 귀한 열매도 경험하였지만, 반대로 중국 정부에 발각되어 벌금을 추징받고 강제추방을 당하거나, 중국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여 현지인들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도 자주 목격하였다.

이를 두고 많은 중국 선교사들은 중국인들을 향하여 중국의 공산정권 속에서 그들의 유물론적 사관만을 사상교육으로 받은 이들이기에 어쩔 수 없다든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모술수(權謀術數)를 가리지 않는 민족성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이러한 중국선교의 저항의 문제를 중국정부의 반기독교적 정책 통제와 사상교육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중국문화와 서구문화의 갈등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과 분석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개혁개방 이후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땅을 밟고 있고, 중국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중국 선교에 있어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한국으로 돌아와 신학과정(M.Div)을 마친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선교의 이론적 학습을 위하여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선교대학원’ 중국선교학 석사과정(Th.M)을 이수하였고, 이를 통하여 중국 선교역사와, 중국의 고대 철학과 사상에 대한 이해의

[8] 본 연구자는 2001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중국천진-가첨식품(天津-加甜食品)과 상하이-썬스타그룹(上海日星缝纫机集团)에서 각각 근무하였다.

큰 도움을 받았다. 또한 기독교의 중국선교역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말-청초(明末-清初)시대가 아닌, 그보다 훨씬 앞선 A.D. 635년경[9] 당나라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당나라 이후 현재까지 무려 1400여 년간 기독교의 중국선교역사 속에서 특별히 기독교 선교에 대한 '저항의 사건'들과 그에 대한 교회의 대응 등을 연구하여 정리한다면, 현재 시진핑 정부의 종교사무조례 발효로 '비(非)자발적 철수'를 통하여 추방과 재배치되고 있는 중국 선교사들에게 거시적인 중국선교의 전략을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현재 중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문제제기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역사와 열정은 1992년 한중 수교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교회가 1907년 독립총회 조직을 하고,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던 상황 속에서도 1912년 9월 1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10]에서 중국 산동성(山東省) 라이양(萊陽)으로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목사를 가족과 함께 파송하면서 중국이 한국교회의 주된 선교지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뒤이어 1917년에는 방효원, 홍승환 목사와 김병규 조사가 임시 전도인으로 파송되었고, 1918년에는 박상순 목사와 한국의 첫 의료선교사 김윤식 의사, 이어서 이대영 목사(1922년 파송), 안준호 의사(1931년 파송), 김순호 선교사(1932년 파송, 한국 최초장로교 여자선교사), 방지일 목사(1937파송, 1957년까지 사역)로 이어진다.[11]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대륙선교가 지속될 수 없게 되자, 한국교회는 한국 화교와 대만, 홍콩 등지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였으며

---

[9]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教流行中國碑)에 의하면 기독교의 한 분파인 경교가 AD635년 당나라때 중국에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10]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제1회 회록" (1912).[노회를 시작할 때 제주에 선교사를 보냄으로 신령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바이온 즉 지금 총회를 시작할 때에도 외국전도를 시작하되...]

[11] 홍경환, "방지일의 선교와 사상 연구" (주안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45.

방송선교(febc)[12], 문서선교사역을 통하여 중국 선교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6년 계급투쟁을 중시한 마오쩌둥(毛澤東)의 사망과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이 개최한 삼중전회(三中全會)에서 경제발전을 강조한 덩샤오핑(鄧小平)의 등장으로 한국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개혁, 개방정책을 선포하며 서방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고 이듬해 1979년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된다. 이에 재미 한인교회와 재미교포를 중심으로 중국 대륙을 왕래하며 중국에서의 선교를 재개하였다.[13]

국내의 본격적인 대 중국선교 사역은 1988년 10월 한국인들의 중국관광금지 해제 및 1990년 북경 아시아게임의 개최로 인적 왕래가 가능해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당시 국내 선교사들의 중국 진출 속도는 1991년 7월 중국정부가 미수교 상태[14]인 한국정부에 중국선교 자제를 요청할 정도였다.[15] 이어진 1992년 한·중 수교로 국내교회의 중국선교사역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수많은 선교사가 직항로를 통하여 중국을 편하게 왕래하였고, 중국교회 및 중국인들과 다양한 접촉을 해왔다.[16]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복음에 대하여, 특별히 2017년 이후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은 더욱 강경하게 저항하며 시행되고 있고, 한국선교사들은 강력한 종교사무조례의 발효에 따라 대대적으로 '비자발적 철수'와 '재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다.[17] 본 연구는 이러한 선교 위기상황의 발생 배경을 중국선교에 대한 역사적 저항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

[12] 아세아극동방송(Far East Broadcasting Company Korea), 1954년 설립 후, 현재까지 중국본토, 북한,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순수 복음라디오 방송

[13] 우심화,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한 진단과 제언," 2012. 51

[14] 중국과 정식수교는 1992년이다.

[15] 한국경제신문, "중국정부,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자제요청," 한국경제신문, last modified August 31, 1991, accessed March 15, 2023,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1083100341.

[16] Krim, "2020 한국 선교 현황(2020년말 기준)," last modified Feburary 26, 2021, accessed March 21, 2023, https://krim.org/2020-korean-mission-statistics/?ckattempt=1.

[17] 최진호, "선교사 입국 거절 상황과 대응 :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47, no. - (2019): 80.

도날드 맥가브란(Mc Gavran, Donald A)은 '수용성과 선교의 관계'[18]를 설명하면서 '선교에 대한 저항' 문제를 언급하였고, 이후 찰스 밴 엥겐(Charles E. Van Engen)은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저서 *개혁하는 선교신학* 제10장 '저항세력에 관한 선교신학'에서 선교(복음전파)에 저항이 생기는 원인은 세계관, 정치적, 역사적 요인들 때문이라고 설명하며[19], 특별히 중국인의 복음화와 관련하여 중국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신중하고 적절한지 고찰하고, 기독교 선교의 저항세력에 대해 성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20]

이러한 선교 저항에 대한 신학적 연구를 토대로 랄프 윈터(Winter, Ralph D.)는 한발 더 나아가 그의 저서 *기독교 문명 운동사* 에서 선교 저항의 문제를 '기독교 문명운동'의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문명은 계속적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졌으며, 지금 현재 서구 중심의 기독교 문명운동에서 중국, 인도, 아프리카 문화권 등지에서 기존 서양문화와는 복음 수용자들만의 토착 기독교 문명 운동이 필요하다고까지 역설하고 있다.[21] 즉 오늘날 중국 선교는 거대한 저항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저항을 이해하고 돌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국선교역사 속에서 경교, 천주교, 개신교 등이 선교를 수행하는 동안 직면했던 다양한 저항(기독교에 대한 반대 혹은 핍박)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선교를 핍박하는 시진핑(習近平) 체제 하에서 기독교 선교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자세 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8] 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이해*, trans. 김종일 et al.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383.

[19] Engen, 308.

[20] Engen, 314.

[21] Ralph D. Winter, *(랄프 윈터의) 기독교 문명 운동사*, trans. 임윤택 (고양: 예수전도단, 2013), 143.

연구 질문

본 연구는 현재 중국 선교가 맞이하고 있는 저항의 문제를 단순히 현재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각 시기별 기독교 선교에 대한 다양한 저항에 기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별히 중국의 각 시기별 경교(景教), 천주교(天主教), 개신교(改新教) 선교에 대한 각각 다른 양상의 저항 사례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경교(景教)의 당(唐)나라와 원(元)나라 시대 선교활동이 어떠한 저항을 맞이하였고 그 저항의 원인, 결과, 특이점 등은 무엇이었는가?

2. 천주교(天主教)의 원(元)·명(明)·청(淸)나라시대 선교활동은 어떠한 저항을 맞이하였고 이 저항의 원인, 결과, 특이점 등은 무엇이었는가?

3. 청(淸)말 시대부터, 근대 중국, 1949년 중국공산화 이후 각 시대별로 개신교(改新教)가 직면한 저항의 원인, 결과, 특이점 등은 무엇이었는가?

4. 중국선교역사에 나타난 다양한 저항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저항의 원인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교 자세와 전략 등은 무엇인가?

선행연구

본 논문의 주요한 관심은 유구한 중국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선교(복음을 전하는 행위 또는 복음 자체)의 저항 분석을 통하여 저항을 최소화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기독교의 중국 선교에 대한 저항과 관련하여 현재 정리되어 있는 연구 자료와 논문들은, 대부분 서구 열강이 식민지 지배를 통하여 중국을 분할 통치하려던 시기인 청(淸)나라 말기와 5.4운동 전후, 중국공산당이 일어났던 1920년대 전후를 배경으로 중국의 반기독교운동(反基督教运动)에 관한 연구와, 1949년 중국공산화 이후 현대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에 이르는 자료가 대부분이거나, 경교의 중국선교, 가톨릭의 중국선교, 개신교의 중국선교역사 가운데 단편적인 저항사건만을 소개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전체 역사 가운데 경교, 천주교, 개신교를 모두 포괄한 중국선교에 대한 저항의 원인은 무엇이고, 형태는 어떠하며, 그 저항에서 어떻게 살아남거나, 소멸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의 중국선교역사 전체에 대한 저항의 분석과 분류를 통하여 현대 중국선교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자료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1800년대 초, 개신교 선교시기의 '반기독교운동(反基督教运动)'보다 훨씬 이전인 중국 당(唐)나라 시대 경교(景教)가 중국선교를 시작한 주후 635년경 자료부터 시작하여, 원(元)나라와 명(明)나라 청(淸)나라를 거쳐 중화민국(中華民國) 시기와 중국 공산화(中國共產化)시기까지 천주교(天主教)와 개신교(改新教)를 포함한 기독교(基督教)선교에 대한 저항의 형태와 원인을 교파별, 역사별로 다루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하였다.

첫 번째, 경교(景教)의 중국선교역사에 대한 자료는 이장식의 *아시아고대기독교사*[22], 김호동의 *동방 기독교와 동서문명*[23], 김문경의 *당대의 사회와 종교*[24], 최하영의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네스토리안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연구"[25], 우심화의 *중국교회 간사(簡史)*[26]와 정흥호의 *경교: 상황화의 성공인가 실패인가*[27], 이현모의 *경교는 실패한 선교 모델인가?*[28] 등이다. 이러한 연구논문과 서적은 경교(景教)가 최초로 중국 당(唐)나라에 들어온 배경과 당시 당나라의 정치적인 환경과 변화에 따라 각각 환영과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어떠한 중국선교의 전략을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주로 '대진경교중국유행비(大秦景教中國流行碑)'의 비문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풀어나가고 있고, 결국 경교는 기독교 복음의 독자성보다는

---

22 이장식, *아시아고대기독교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0).1-16세기

23 김호동, *동방 기독교와 동서문명* (서울: 까치, 2002).

24 김문경, *당대의 사회와 종교*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6).

25 최하영,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네스토리안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研究"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6우심화, "중국교회간사(簡史)," *ACTS 세계선교연구* 2, no. - (2012)..

27 정흥호, "경교: 상황화에 성공인가, 실패인가," *ACTS 神學과 宣教* 7 (2003).

28 이현모, "경교는 실패한 선교 모델인가?," *복음과 실천* 43 (2009).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과도한 상황화와 혼합주의로 인하여[29] 황실의 붕괴와 더불어 중국에서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자료들에는 저항에 대한 원인과, 형태,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기에 본 연구는 당시 경교가 받은 저항을 원인-형태-결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두 번째, 천주교(天主教)의 중국 선교역사에 대한 자료로는 왕치심(王治心)의 *중국종교 사상사*[30], 마태오 리치의 *중국 선교사*[31], 김명희의 *종교간 대화의 모델로서 마태오 리치의 적응주의-유 불 도의 대화*[32], 김영웅의 "마태오 리치의 보유론적 신관과 중국 기독교의 이해"[33], 董丛林의 *龙与上帝-기독교와 중국전통문화*[34], 안승오의 *세계선교역사 100장면*[35], 서양자의 *중국 천주교회사*[36] 등의 자료에는 원(元)나라부터 청(淸)나라 시대까지 천주교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 선교전략의 마찰(로마 교황청과 황제)로 중국선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는 천주교가 맞이한 정치적 저항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대적 상황을 분류하지 않고 전체 중국 천주교 역사로만 설명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원(元)나라와 청(淸)나라 천주교 선교를 각각 구분하여 연구하고, 정치적 저항의 원인이 되는 사회 문화적 갈등과 마찰을 원(元)과 명(明), 청(淸)나라 시기 천주교가 받았던 서로 다른 저항의 원인과 형태, 결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29 정흥호 266.

30 王治心, and 전명용, *중국종교사상사* (서울: 이론과 실천, 1988).

31 Matteo Ricci, 신진호, and 전미경, *마테오 리치 중국 선교사*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32 김명희, "종교간 대화의 모델로서 마태오 리치의 적응주의 -『천주실의』에 나타난 그리스도교와 유,불,도(儒佛道)의 대화," *組織神學論叢* 39, no. - (2014).

33 김영웅, "마테오 리치의 보유론적 신관과 중국 기독교 이해" (삼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34 董丛林, *龙与上帝-기독교와 중국전통문화*, trans. 우심화 (여주: 모리슨/하북사범대, 2021).

35 안승오, *세계선교 역사 100장면* (서울: 평단문화사, 2010).

36 서양자, *중국 천주교회사* (대구: 가톨릭신문사, 2001).

세 번째, 개신교(改新教) 선교에 대한 연구자료는 황윤선의 "1920년대 중국과 한국의 반기독교운동 비교연구"[37], 박승수의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내지선교와 영성에 관한연구"[38], 한동훈의 "중국 위기 상황 속에서 GMS 선교전략연구"[39], 추이전얼(Cui Zhener)의 "선교적 관점에서 본 중국 독자적 가정교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40], 진미수의 "중국교회 삼자운동 변천연구"[41], 진상선의 "글로벌시대 교회를 통한 중국 선교전략연구"[42], 신명의 "중국헌법에서의 종교와 종교정책"[43], 최진호의 *선교사 입국거절 상황과 대응*[44], 김광성의 *중국종교 정책이 한국교회의 중국 선교에 미친 영향*[45] 등이 있다. 이 자료들에는 청조 말기부터 1920년대까지의 '반기독교운동'은 기독교 선교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와 함께 중국 선교를 진행하였으며 각종 불평등 조약을 중국과 체결하여 경제적, 정치적 수탈을 한 내용들을 설명한다. 이러한 불평등 조약의 영향으로 중국에는 반기독교운동(反基督教运动)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중국인들의 사상과 정서에 기독교를 제국주의와 동일시하는 이미지가 현재 중국공산당 정권에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선교적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

37 황윤선, "1920년대 중국과 한국의 반기독교운동 비교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38 박승수,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내지선교와 '그리스도 안' 영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39 한동훈, "중국 위기 상황 속에서 예장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의 선교전략 연구"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40 Cui Zhener, "선교적 관점에서 본 중국 독자적 가정교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41 진미수, "중국교회 삼자운동 변천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42 진상선, "글로벌 시대의 교회를 통한 중국선교전략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43 신명, "中國 憲法에서의 宗教와 宗教政策"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44 최진호, "21세기 중국적 상황화 선교신학 모색" (장로회신학대학교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45 김광성, "중국의 종교정책이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 : 기독교 중국화에 대한 선교실천적 대응," *선교와 신학* 48, no. - (2019).

기존의 연구는 청나라 말기 개신교 선교, 1920년대 전후의 기독교 선교와 반기독교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의 기독교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기에, 본 연구는 청말(淸末) 개신교 선교시작부터 현대 중화인민공화국까지 전체적인 선교역사를 1949년 전후를 기준으로 반기독교운동과, 개신교 선교에 대한 저항사건을 원인과 형태와 결과로 나누어 분석하고, 당(唐)나라에서 현대 중국에 이르는 기독교의 중국선교 전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저항의 흐름을 형태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복음 행위의 저항'에서 '복음 자체의 저항'으로 변화된 현대 중국선교 현장에서 저항을 극복한 사례를 찾아 분석하고, 저항을 최소화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과 실천적인 선교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와 한계

본 연구의 연구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국 역사 속에 나타난 기독교 선교에 대한 저항 사건을 다룬 것이므로 기독교 외의 대표적인 외래 종교인 불교와 이슬람교(회교)[46]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잠시 다루겠지만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또 기독교 안에도 다양한 종파들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경교, 천주교, 개신교만 제한해서 다룰 것이다.

둘째, 연구의 대상 시기는 중국 대륙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A.D. 635년 당(唐)나라 시대부터 원(元)나라, 명(明)나라, 청(淸)나라, 중화민국(中華民國)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시기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시기가 다소 광범위한 면이 있지만 각 시대별로 다양한 저항에만 집중하여 다룰 것이다.

셋째, 저항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겠지만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던 저항은 다루지 않고, 주로 저항의 당사자들에게서 나타난

---

[46] 3장에서 중국 이슬람교의 회족(回族)화 정착전략에 관하여 기독교 선교와 잠시 비교하였다.

행동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므로 토착종교, 일반 군중들, 정치지도자 등의 대별하여 저들에게서 나타나는 저항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용어의 정의

저항(Resistance)

일반적으로 '저항'이라 함은 대부분 약자가 강자에게 반응하는 형태를 이야기는 사회학적 용어다.[47] 이러한 '저항'을 사회학과 선교전략으로 이해하고 인간집단 내에서 수행하는 선교 활동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는 '저항성'이다.[48] 즉 '저항성'이라 함은 선교학에서 복음에 '저항의 정도'를 수치화하여 그래프 등으로 분석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저항'이란 약자들이 표출하는 일반적 의미의 저항과 함께 강자들이 나타내는 핍박 등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경교(景敎)

'빛의 종교'라는 의미를 가진 '네스토리우스교(Nestorianism)'의 중국식 표현이며, 당시 페르시아에 거점을 두고 있던 네스토리안들이 동방으로 선교를 하여 아라본(阿羅本, Alopen)이 이끄는 선교단이 A.D. 635년 중국 당나라에 공식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예리커원(也里可溫: 야리온교)

중국 대륙을 점령한 몽골제국인 원나라에서 활동하던 경교와, 천주교를 가리켜 몽골식 발음으로 '예리커원(也里可溫)'라고 한다. 뜻은 '복음을 신봉하는 자, 복 있는 자'이며, 당나라 멸망과 함께 사라진 중국의 경교가 외부 유목민으로

---

47 朴明珍, "즐거움(Pleasure), 저항, 이데올로기," *社會科學과政策硏究* 13, no. 2 (1991): 77.
48 McGavran, and Wagner, 336.

피신하여, 몽골족, 거란족, 위구르족 등에 전해지고, 특별히 몽골족과 함께 중원에 다시 들어온 경교(景敎)다.

마태오 리치(Matteo Ricci)의 선교 전략이론

1) 합유론(合儒論): 마태오 리치의 초기선교 방법으로 선교의 복음이 중국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하는 이론이다. 대체적으로 유가(乳痂)를 중국의 고유문화와 철학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전략.

2) 보유론(補儒論): 합유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복음이 유가(乳痂)를 보완하는 전략.

3) 초유론 (超儒論): 선교의 복음이 유가(乳痂)를 초월하는 선교전략.

4) 대유론(代儒論): 선교의 복음이 유가(乳痂)를 대신하는 천주교의 최종 전략.

본색화(本色化) 운동

중국의 본색화 운동은 중국교회 토착화 과정의 일환으로 19세기 말기에 시작되었다. 본색화는 자립(自立), 자양(紫陽), 자전(自傳)의 삼자원칙과 민족주의가 강조되었다. 이 운동은 서방 제국주의들이 중국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한 이후 중국 기독교인들의 제국주의적 외국 선교기구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49] 중국의 본색화 신학은 1920년대 이후 중국교회의 중국화의 시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중국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발전시키며, 선교현장에서 분열보다는 연합을 도모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색채를 도입한다는 운동이다.[50]

---

[49] 곽정복, “각 시대 별 중국 종교정책이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에 따른 선교 출구 전략 연구 : 시진핑 시대 이후 Gms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16.

[50] 김병태, "한중(韓中) 토착화신학 비교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29, no. - (2008): 132.

기독교의 중국화

'기독교의 중국화'란 2012년 3월 북경대학교 종교문화 연구원과 중국 사회과학원 기독교 연구중심이 공동으로 제기한 연구학술 학문으로 선교신학에서 흔히 말하는 '본색화', 혹은 '상황화' 등의 개념과는 달리 중국 특색의 기독교를 지향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중국 문화'를 담아내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으로 다분히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기독교의 중국화'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첫째 중국 기독교는 중국 사회주의 국가 정치체제와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사상을 옹호해야 하며, 둘째 중국교회가 사회의 하부구조라는 개념 아래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사회체제, 법치관리, 조직의 형식 등에 적응해야 하며, 중국 사회가 기독교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중국 사회에 동화되어야 한다. 셋째 기독교 안에 중국 전통과 문화와 색깔을 더 분명히 표현하고 중국 사상과 문호를 통해 중국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51]

백색순교

피를 흘리는 '적색순교'가 아닌,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적인 삶으로서의 청빈, 순종, 정절 등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위, 또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과 투쟁하여 승리하는 삶 모두를 순교로 간주하는 영적 개념이다.[52]

콘비벤츠

'콘비벤츠'는 '함께 사는 삶'이라는 의미의 스페인어로서, 독일의 선교신학자 준더 마이어(Theo, Sundermeier) 교수의 선교신학의 기본 구조이며

---

51 최진호, "선교사 입국 거절 상황과 대응 :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85.

52 조정희, "중국가정교회지도자의 순교적리더십 연구" (주안대학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48-49.

중심개념이다. ‘콘비벤츠’는 ‘서로 돕고, 서로 배우며, 함께 축하’하는 공동체적 삶의 형태를 가진다.[53]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프랑스 철학자 드 트라시(Destutt de Tracy)가 *이데올로기 개론*에서 제출한 개념이다. 이데올로기는 체제의 골격이고 국가 이념, 통치철학으로 사회실천에 구조, 응집력 등을 부여해 주고, 핵심 계층과 대중들에게 정당성을 증명한다.[54]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는 통치 정당의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지도자나 통치 정당에게 유리한 사회질서를 창출하며 대중들로 하여금 사회질서를 자연스럽게 수용케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55]

---

53 한국일, "테오 준더마이어(Th. Sundermeier)의 선교신학," *장신논단* 38, no. - (2010): 410.

54 Terry Eagleton, and 여홍상, *이데올로기 개론* (서울: 翰信文化社, 1994), 162.

55 이동규,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본 시진핑 사상," *중국지역연구* 6, no. 1 (2019): 4.

제2장

당(唐)나라시대 경교(景敎)선교에 대한 저항

본장에서는 중국대륙에 기독교 선교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경교(景敎)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당나라 시대 약 200년간 경교는 어떤 형태로 중국에 정착하고, 발전하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당나라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 토착종교와의 관계 등의 분석을 통하여 경교 선교가 맞이한 저항의 형태와 결과를 연구하고 이러한 저항을 맞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경교선교의 시작과 발전

A.D. 431년 이단논쟁으로 추방된 네스토리우스(Nestorius)의 추종자들은 시리아를 거쳐 페르시아에 정착하여 교세를 확장시켜 나갔다.[56] 7세기경 네스토리안들은 아라비아 북부, 인도, 몽골, 중국 등지에 선교를 하였으며 당시 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선교부도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안정된 후원을 받고 있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생애를 헌신함으로써 선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하는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57]

특별히 네스토리우스교가 활발한 동방선교를 추진하게 한 요인을 살펴보면, 자신들에 대한 보편교회(로마 가톨릭)의 이단 단죄와, 사산왕조 이후 페르시아의 이슬람 세력의 위협으로 인하여 더욱 아시아 쪽과 가까운 동쪽과 북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네스토리우스교의 선교의 원동력은 당시 수도원을 중심으로 하는 네스토리우스교만이 지닌 교육 제도에 있었다. 네스토리우스교는

---

[56] 이장식, 139.
[57] 정흥호 254.

신자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자각하고 수도원과 신학교를 결합시킨 독특한 교육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사는 신자들에 대한 교육과 선교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58]

이렇게 네스토리우스교는 로마 가톨릭의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한 선교 사명을 지니고 동방으로 뻗어 나가게 되었다. 네스토리우스교가 중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먼저 투르크족, 위그루족, 돌궐족 등 아시아 유목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네스토리우스교의 선교사들은 수도원에서 이미 철학, 역사, 천문학과 의학, 헬라어와 시리아어를 공부하여 자신들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자립선교의 임무를 수행하였다.[59]

경교의 당(唐)나라 선교 시작

네스토리안들은 페르시아에서 거점을 동쪽으로 계속 이동함과 동시에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지 약 635년이 지난 즈음 드디어 중국 당(唐)나라에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 전해졌던 경교(景敎)는 그후 약 2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자취는 완전히 사라지고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사라졌다.[60]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약 800년이 지난 후인 중국 명(明)나라 천계3년(1623년) 섬서성 서안부근에서 "대진 경교 중국 유행비"(大秦景敎中國流行碑)가 발견됨으로써 잊혀졌던 경교(景敎)의 중국선교역사가 세상에 알려 지게 되었다.[61]

---

58 황정욱, *예루살렘에서 長安까지*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5), 39.

59 노성기, "페르시아에 정착한 시리아-동방 교회의 역사(485~651)," *가톨릭 신학과 사상* -, no. 61 (2008): 137.

60 Samuel Hugh Moffett,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1*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479.

61 董丛林, 15.

“대진(大秦)”은 ‘동로마제국’을 뜻하는 중국식 표현이며, “경교(景教)”란 ‘빛의 종교’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다. 당시 이 비석에는 1780개의 한자가 새겨져 있고 비석의 아래와 양 측면에는 고대 시리아어로 된 70명의 경교 선교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비문의 내용을 보면 당 태종은 당시 경교(景教) 선교단장이었던 아라본(阿羅本-Alopen) 일행을 내빈(來賓)이라고 하면서 황제의 직속 의장대까지 성문 밖에서부터 환대하도록 명령 내린 것을 볼 수 있다[62]

이것은 이미 중국 내 경교 선교사들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이장식은 *아시아 고대기독교사1*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만일 아라본(阿羅本-Alopen) 일행이 기독교 선교사로 중국에 처음으로 당나라에 도착했다면 이토록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이며, 이미 중국 내 네스토리안 선교사들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라본(阿羅本-Alopen) 일행이 당나라에 오기 전부터 앞에서 언급한 대로 네스토리우교는 실크로드 지역에 있는 돌궐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당 고조 이연(李淵)의 모친이 돌궐 계통의 출신이고 경교도로 추정되는 역사 기록이 존재한다.[63]

그렇다면 그녀의 손자인 당 태종이 아라본 (阿羅本-Alopen) 일행을 환영한 까닭을 추측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아라본(阿羅本-Alopen) 일행이 장안으로 입성한 후 당 태종은 경교 선교사들로 하여금 그의 장서루에서 경교 경전을 번역하도록 하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리고 3년 후엔 수도 장안의 외국인 밀집지역인 의녕방(義寧方)에 선교사 21명을 머물게 허락한다. 당태종의 뒤를 이은 아들 고종(高宗)도 아버지의 경교정책을 승계하여 전국에 경교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경교의 전파를 적극적으로 도왔다[64]

62 안재은, "경교(景教)와 가톨릭이 한국 기독교 선교에 끼친 영향," *신학지남* 75, no. 4 (2008): 358.

63 이장식, 215.

64 우심화, "중국교회간사(簡史)," 261.

당나라 경교의 발전

경교 선교사들이 중국에 도착한 3년 후인 638년(정관12년)에 태종은 칙령을 내려 네스토리우스교를 인정하는 종교의 하나로 선포하였고, 장안 서북쪽에 경교 사원인 ‘파사사(波斯寺)’라는 ‘페르시아 교당’을 세웠고, 훗날 ‘대진사(大秦寺)’로 개칭되어 이곳에서 경교사제들이 사역하도록 하였다.[65] 이같은 배려와 더불어 당태종은 아라본을 수차례 궁중으로 불러들여 경교의 강론을 들었으며 그의 강론을 듣고 도리가 옳고 자신이 정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 당태종은 아라본과 경교 선교사 일행에게 경교 경전을 번역해 바치도록 명령하여 641년경을 전후로 [예수메사아경(序聽迷詩所經)], [경교일신론(景教一神論)], [일천론(一天論)]등의 경전들을 번역할 수 있었다.[66] 경교 비문에 의하면 고종에 의해 중국 내 13도 358주에 경교 교회를 하나씩 세우도록 허용하였고, 아라본(阿羅本-Alopen)에겐 ‘진국대법주(The Great patron and spiritual Lord of the Empire)’란 창호를 붙여줄 정도로 경교를 후대하였다.[67]

고종(高宗) 사후 그의 부인 측천무후(則天武后)와 예종(睿宗)의 치세 아래 경교는 일시적으로 불교와 도교의 박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종(玄宗)의 즉위로 다시금 교세를 회복하게 된다. 심지어 경교 선교사 17명이 홍경궁에서 예배를 드리며 황족과 궁인들에게 경교를 전하는 특혜가 주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당 태종에서 무종(武宗)까지 약 210년 동안 경교는 대체로 황실의 우대 속에서 경교 선교사들의 사역(경전의 번역, 로마, 페르시아의 과학과 의술) 등으로 중국에서 확장해 나갔다.[68] 714년에 이르러서는 페르시아의 네스토리우스 교회의 대주교가 당나라에 교구를 설정하고 더 많은 경교 선교사들 17인을 추가 파견하여 장안의

---

[65]안재은 358.
[66] 서윤동, “경교의 아시아 전래 연구” (호서대학교 역사신학 박사학위논문, 2017), 38.
[67]Moffett, and 김인수, 466-67.
[68] 우심화, "중국교회간사(簡史)," 262.

궁전에서 경교 예배를 행하기도 함으로[69] 경교의 당나라 선교는 날로 발전하게 된다.

755년 당의 통치체제를 흔들었던 안록산(安祿山)이 일으킨 '안사의 난(安史之亂)'[70]이 발생하여 그 반란의 진압 과정에 경교도들도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때 반란군에 의해 수도 장안이 침략당했는데, 이때 지휘장군은 '곽자의(郭子儀)'였고 '이사(伊斯, Isaac)'[71]는 그의 부관이었다. 곽자의는 부관 이사를 통하여 위구르족과 이슬람 군대의 도움을 받아 '안사의 난'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였고 이때 장안 수복을 위한 경교도들의 맹활약과 경교도들의 군사적, 외교적 도움[72]을 인정받아 숙종(肅宗756-763)은 임시 피난처였던 영무를 비롯한 다섯 군(郡)에 경교의 예배당인 '경교사(景教寺)'를 더 설립하도록 지시하는 등, 경교의 전성기를 누렸다. 이렇게 경교는 태종 때 전해진 뒤, 덕종 때까지 21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는 시간 동안 대부분의 시기에 황실의 예우를 받으며 일정한 발전이 있었다.[73]

경교의 토착화

경교는 유·불·도의 '삼교(三教)'가 활발하게 자신의 위치를 굳히려고 노력하는 시기인 당초기에 전례되었다. 특히 중국의 전통 신앙을 대표하는 도교(道教)와, 정치 이데올로기이자 사회적 관념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던 유교(儒教), 그리고 인도에서 전래되었지만 이미 중국문화 가운데 대중 종교로

69 이장식, 224.

70 안사의 난은 755년 12월부터 763년 2월에 걸쳐 당의 절도사인 안록산과 그 부하인 사사명과 그 자녀들에 의해 일어난 대규모 반란사건이다. 이 반란은 9년간 지속됐다 나무위키, "안사의 난," last modified March 1, 2023, accessed March 15, 2023, https://namu.wiki/w/%EC%95%88%EC%82%AC%EC%9D%98%20%EB%82%9C.

71 서윤동, 42. 이사(伊斯,Isaac)는 독실한 경교 신자였고, 그의 공이 대진경교비문에 기록되어 있다.

72 이장식, 227.

73 董丛林, 16-17.

조직화(組織化)한 불교(佛敎)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경교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 들어온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이슬람교 등이 치열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74]

경교(景敎)는 이렇게 유교, 불교, 도교 3家 중 어느 한 곳과 단독 비교하더라도 그 규모나 영향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경교는 무엇보다도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종교적 개념을 표방할 필요가 있었고, 빠른 시간 안에 경교를 중국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들이 택한 방법이 유·불·도교의 종교 형식과 용어 등을 빌려 쓰는[75] 토착화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유교(儒教)와 경교(景敎)

불교(佛敎)와 도교(道敎)가 중국에서 누가 교세가 크냐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사실 유교(儒敎)는 여전히 불-도교 위에 만형의 자리에 확고부동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당대 황제들은 유교를 각별히 중시하고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황제의 교화(王化)에 관해서는 유교가 주체(主體)가 되고, 불교와 도교의 내용을 일부 흡수하는 방향으로 '3家'가 합류하는 흐름이었다.[76]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신생 외래 종교인 경교(景敎)는 유교(儒敎)의 교리적 표현을 빌려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충(忠)의 도리(황제를 섬길 것)를 하나님을 섬길 것, 부모를 섬길 것과 병렬시키고 이 모두를 함께 추구하여야 하며 분리할 수 없는 삼사(三事)로 규정하였다.[77] 경교(景敎)는 이렇게 당시 중국의 문화에서 이해될 수 있는 유교(儒敎) 용어를 적극 사용하면서 중국인들을 이해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유교(儒敎)는 당시 황제의 비호를 받고 있는

---

[74] 金德均, "景敎와 韓國의 景敎傳來 小考," *首善論集* 14, no. 1 (1989): 2.
[75] 신현광, "경교의 당(唐) 전래와 토착화에 대한 고찰," *신학과 실천*, no. 77 (2021): 552.
[76] 이관숙, *중국 기독교사* (서울: 쿰란출판사, 2006), 83.
[77] 董丛林, 29.

경교(景敎)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78] 이 때의 당조는 환관들이 권세를 쥐고 있을 때 이어서 특별히 경교를 환대했던 덕종(德宗)은 유교의 지시를 받은 환관에게 살해되고, 그의 뒤를 이은 헌종(憲宗)이 불교와 도교에 열중하였을 때 유교도의 반감을 사서 독살되었다. 또한 선대의 종교 관용정책을 이은 목종(穆宗)과 경종(經宗)도 즉위 후 얼마 되지 않아 독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실은 유생들을 지극히 떠받들 수밖에 없었다.[79] 유교는 항상 앞서서 무언가를 이끌기보다는 조용히 뒤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일을 처리하는 입장이었기에[80], 경교는 유교의 눈치를 살피며 유교의 것을 차용하기에 급급하였다.

도교(道敎)와 경교(景敎)

경교(景敎)는 또한 유교(儒敎)와 더불어 중국의 전통 종교인 도교(道敎)의 종교사상을 차용하였는데 특별히 경교비에 보면 '주나라(周朝)의 덕(德)이 쇠하여 청가(淸駕)가 서쪽으로 올라갔었는데 이제 위대한 당(唐)나라의 도(道)가 빛나니 경풍(景風)이 동쪽으로 불어온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81] 이는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老子)의 이야기를 빗대서 경교(景敎)를 소개하는 표현이다.

또한 경교의 초기 아라본 경전인 '서청미시소경(序聽迷詩所)'에서는 '하나님'을 천존(天尊)이라고 표현하여 도교의 최고 신(神)인 원시천존(元始天尊)을 차용했다. 또 다른 경교의 경전 중 하나인 '선원지본경'에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의 상당수가 '도덕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기까지 했다. 이처럼 도교의 교리를 대대적으로 흡수하고 '도덕경'의 구절까지 그대로 인용한 글은 본래 네스토리우스 교회의 경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82]

---

[78] 서윤동, 43.

[79] 이장식, 229.

[80] 김호동, 138.

[81] 이현모 310. (宗周德喪 淸駕西昇 巨唐遂光 景風東扇). 풀이하면 '노자가 청우(淸牛)를 타고 함곡관을 거쳐 서쪽으로 갔고, 그 도(道)가 다시 '경풍'(경교의 메시지)로 돌아왔다'고 하면서 경교와 도교를 같은 종교로 제시하고 있다.

[82] 신현광 551.

중국의 경교가 언어와 관습이 다르고 먼 타국에서 하루 빨리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인들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종교적 개념을 표방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다른 종교의 용어를 차용하면서는 메시지의 원래의 뜻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도교(道教)는 경교(景教)가 끼어드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경교를 비방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83] 이는 845년 무종(武宗)에 의한 '회창법란(會昌法難)'때 극에 달하여 도교 신자인 무종(武宗)으로 하여금 경교를 포함한 외래 종교에 대하여 정치적 저항이 일어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불교(佛教)와 경교(景教)

불교(佛教)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인도가 발상지인 외래 종교였지만, 중국 당대(唐代)에 이르러서는 중국종교 사상 속에 융화되어 도교와 더불어 중국의 종교로 그 자리를 굳혔다.[84] 그에 반하여 경교(景教)는 유, 불, 도교처럼 방대하고 조직적인 이론적 체계가 부재하고 경교를 위한 신학교육 기관도 없었기에 토착화된 현지 종교 지도자들을 배출하지 못했다. 그러기에 경교 선교사들은 생존과 발전을 지속하고자 도교(道教)의 것뿐 아니라, 당시 사회에 보편화와 토착화에 이미 성공한 불교(佛教) 경전의 관용어와 종교적인 명성을 빌려와 현지인들에게 경교의 토착화를 시도하였다.[85]

경교가 불교의 용어를 그대로 빌렸던 예로 경교 사제를 '승(僧)', 예배당을 '사(寺)', 천사를 법왕(法王) 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를 '불(佛)'이라고 하고 죄악은 악덕(惡德)으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경교는 다량의 불교용어를 차용하였다.[86] 그리고 당시 경교 선교사들을 '경교승(景教僧)'이라 부르고, 교회

---

[83] 董丛林, 28.
[84] 王治心, and 전명용, 135.
[85] 정흥호 258.
[86] 董丛林, 28.

또한 '대진사(大秦寺)'라고 하여 불교사원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마지막 시기인 8세기경에는 하루에 일곱 번씩 예배를 드릴 때 동쪽을 향하여 목탁을 치고, 경교 사제들이 머리를 삭발을 하고 수염을 기르는 행위까지 함으로 불교의 모습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였다.[87]

이렇게 경교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경교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종교의 언어 차용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하던 단어의 개념을 그들만의 용어로 만들어야 하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경교의 저항의 형태 부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당(唐)나라 시대 경교 선교의 실패 원인

630년 아라본과 20여 명의 경교 선교사가 중국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이래 경교(景敎)라는 명칭으로 당나라 황제들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하지만 당나라의 종교정책이 845년 무종(武宗)의 외래 종교에 대한 탄압 정책으로 바뀌자, 중국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나라에 경교가 공식적으로 선교를 시작하고 당무종의 탄압이 있기까지 약 210년간 경교의 선교는 어떠하였으며, 경교의 중국선교 실패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교선교의 지나친 혼합주의

경교가 중국 당나라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유교, 도교, 불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 시기였다. 경교는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던 시리아어를 사용할 수 없었고, 중국의 문화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불교와 도교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국인들에게 경교의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했다. 물론

---

[87] 신현광 552.

이러한 방법이 당시 효율적인 선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지 모르지만, 불교나 도교와 차별성을 두고 '복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전해주어야 했는데 그 노력이 부족했다. 결국 경교는 유교, 도교, 불교와 같은 사상을 혼합하고 명목적 기독교로 상황화를 거쳐 혼합주의적인 성격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88] 김성태는 그의 책 *세계 선교 전략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선교에 있어 지나친 적응화는 결국 혼합주의 사상을 낳게 되고 성경적 교회가 아닌, 이질적 교회를 배출하므로, 그 절정의 모습이 경교의 중국 선교 전략이다. 이들은 당나라가 불교적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예배의식도 불교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배후에는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가 중국인들 가운데 선재해 계셨으며 불교와 유교 문화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현존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위험한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89]

결국 경교는 불교와 도교, 유교가 지배했던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상황화를 시도하였고, 경교의 '중국화'를 위하여 '유(乳), 불(佛), 도(道)' 즉 '삼교(三敎)'의 옷을 갈아입다 보니 그 외관만 보아서는 불교(佛敎)나 도교(道敎)의 일부 종파처럼 오인되어 버릴 정도였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약 200년이 넘게 유지되었던 경교가 중국 역사에서 아예 자취를 감춘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된 것이다.

또한 불교와 같은 완비된 조직과 시설을 세우지 못하고 중국인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육기관도 없었다.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의 종교로서 실제 경교의 포교 범위가 주로 중국에 거류하는 외국 상인, 군인(외국용병), 사신 등으로 한정되었기에 중국인(人民)들에게 중국인의 종교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90] 결국 '황소의 난 (黃巢之亂)'[91]으로 성난 민심이 당시

---

[88] 정흥호 264.

[89] 김성태, *세계 선교 전략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52.

[90] 이현모 318.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돌아가서 남방의 여러 도시가 공격을 당하고, 이때 경교 사역자가 죽임을 당하거나 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현지에 중국인 사역자가 없는 경교[92]는 당연히 쇠퇴하게 되었다.

적절한 현지화의 실패

불교(佛教)는 비록 인도에서 들어온 외래 종교였지만 대중들의 삶과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 성공하여 중국종교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아울러 중국 불교는 '현장(玄奘)'이나 '삼장(三藏)' 같은 중국 한인(漢人) 출신 고승들이 불교계를 이끌어갔다.[93] 하지만 경교는 여전히 외래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인에 대한 대중적인 선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당시 경교신자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군인(용병)이나 상인으로 활동하던 외국인이었다. '경교비'에 기록된 사역자 명단에서 전원이 시리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인 사역자가 없었고, 이는 중국인 사역자를 양성하는 현지 신학교도 없었음을 의미한다.[94]

현재 중국의 가정교회 사역자인 '왕이(王怡)' 목사는 그의 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경교 선교의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 중국 대학의 인문계열 교수가 기독교와 중국역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왜 경교가 중국에 왔는데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 그러자 아내가 '간단하지, 권세자들에게 붙어서 그렇지'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교수는 아내가 견식이 있다고 보고 다시 '그러면 원나라 때는 경교가 두 번째 중국 선교를 했는데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까?'라고 묻자

---

[91] 황소의 난은 중국 당나라 말기인 875년에서 884년 사이에 일어난 대규모 농민반란으로 당나라의 소금전매로 인하여 소금값이 30배 폭등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어 당시 외국상인들에 대한 약탈을 가져오고 당나라의 멸망을 가져왔다.나무위키, "황소의 난," last modified June 7, 2022, accessed March 13, 2023, https://namu.wiki/w/%ED%99%A9%EC%86%8C%EC%9D%98%20%EB%82%9C.

[92] 조성우, "唐代 景教 教團의 活動과 그 性格," *중국고중세사연구* 4 (1998): 207.

[93] 서윤동, 155.

[94] 이현모 320.

그의 아내가 ‘간단하지, 그들 자신이 권세자이었기 때문이지’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95]

결국 이렇게 경교는 지나친 상황화로 인하여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시스템적으로 중국 대중들에게 열려 있는 종교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교회 자립의 필수요소인 현지인 종교지도자 양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통치 정권이 바뀌고 민중의 외면을 받으면서 급격히 쇠퇴하게 된 것이다.

말씀의 부재

네스토리안 경교는 선교가 강한 기독교 종파이었으나, 말씀사역의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다. 현지인들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을 때 기독교는 뿌리내리지 못한다. 우리는 대진경교중국비가 발견된 1623년에 와서야 경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중국경교가 의식과 성만찬 등은 강하였을지 모르지만, 말씀과 부흥 부재의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다.[96]

앞서 살펴본 대로 경교는 당나라에 중국인들의 종교사상에 거부감 없이 다가서기 위하여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타종교인 불교와, 도교와, 유교의 것을 분별없이 차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나친 상황화로 인하여 일반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의 유일성을 전하는 데 무리가 있었고, 다른 종교와 구분하기 어려운 혼동을 줄 만한 요소로 작용하였다.[97] 게다가 성경을 한자로 번역하는 사역이라든지, 현지인 사역자 양성의 기록은 전무하다. 본래 경교의 창시자인 네스토리우스의 신학은 당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주장하고, 동정녀 마리아의 호칭에 반대하는 신학적 주장이 강한 종파다. 그런데 중국의 경교는

---

95 王怡, *십자가를 짊어지고*, ed. 중국 가정교회 역사(1807-2018) (경기도: 서로북스, 2022), 23.

96 전호진, "왜 아시아에서 기독교는 사라졌는가?," 코람데오닷컴, last modified July 8, 2021, accessed March 3, 2023, https://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1.

97 정흥호 260.

기독교적인 용어가 거의 없었으며, 뜻이 모호하고 불교와 유교 그리고 도교적인 색채로 가득 차 있다.[98]

결국 경교의 중국선교는 종교적 사상이나 실천적인 적용에 있어서 현지 토착종교를 수용하는 '지나친 상황화'를 통하여 기독교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었으며, 무엇보다 복음의 보전성을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메시지를 대체하거나 제거해버리면서 수용자의 문화로만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이르게 되었다.[99] 이렇게 현지인들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을 때, 기독교는 뿌리내리지 못한다. 아울러 중국 경교는 헌신적인 현지인 지도자와, 선교에 대한 저항에서 말씀으로 무장된 생존력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훈련하고 세우지 못하였다.[100]

황실의 보호에 지나친 의지

경교는 초기 당태종 때부터 황실의 보호와 후원을 받으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황실의 보호에 너무 오랫동안 의지한 선교전략으로 황실의 붕괴와 더불어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정치권력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101] 비록 경교가 당나라 황실에 의하여 선교의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황실에 지나치게 의지한 선교전략과, 기독교에 낯선 중국인들에게 중국어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유·불·도교의 언어적 표현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오히려 중국인들에게 경교가 불교의 소수 종파로 인식되는 혼란을 초래하였다.[102]

---

[98] 정흥호 265.
[99] 김문경, 224.
[100] 김호동, 154.
[101] 정흥호 266.
[102] 김호동, 153.

당나라의 황제들의 종교정책은 절대로 일관적이지 않았다. 앞에서 경교의 정치적 저항이 있었던 측천무후(則天武后)와 무종(武宗)의 시대가 그러했다.[103] 현재의 정치권력이 종교에 호의적이라고 해서 다음 권력이 반드시 호의적인 것은 아니며, 정치권력은 사회·문화의 저항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중의 사회·문화의 저항은 기존 토착종교의 저항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앞선 연구를 토대로 알 수 있다. 결국 중국 경교는 당나라에서 시리아인의 종교, 혹은 페르시아의 외국 종교로 인식되었다.

국제정세의 변화

경교가 당나라에서 쇠퇴할 수박에 없었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인도양을 통해서 중국의 해안도시로 찾아오는 상인들이 경교도에서 이슬람 교도로 바뀌게 되는 외교적 상황이다. 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과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이들은 페르시아인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경교나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신자들이었다. 그러나 '아비스 왕조'[104]가 등장하고 중동지역의 이슬람 확장으로 인하여 많은 페르시아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시작했고, 중국과의 해상무역에서 아랍인 혹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페르시아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105]

이러한 상황에서 페르시아와 또 다른 교역로인 북부 실크로드는 거란족이 강성하여 '연운십육주(燕雲十六州)'[106]를 장악함으로써 내륙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 북방으로 들어오기가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해상 및 육상무역의 국제정세의 변화와 이슬람 세력의 확장, 그리고 각종 난(亂)으로 당(唐)의 서역

---

103 김문경, 223.

104 압바스 왕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세 이슬람의 황금시대를 이어간 왕조다. 이라크 일대가 중심지고 이 시기부터 페르시아인들이 이슬람 세계의 핵심 계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후 몽골제국에 의해 멸망하였다. 나무위키, "아바스 왕조," last modified October 1, 2022, accessed October 12, 2022, https://namu.wiki/w/%EC%95%84%EB%B0%94%EC%8A%A4%20%EC%99%95%EC%A1%B0.

105 김호동, 158.

106 인터넷 위키백과. 2022. 10. 12 검색. 지금의 하북성 일대의 16주를 가리키며 이 지역은 만리장성 이남의 극도로 중요한 무역, 정치, 군사적 요충지다.

지역에서의 영향력 소멸, 티벳의 흥기와 이들에 의한 실크로드의 차단 등의 이유로 네스토리우스교 본부의 지속적인 중국선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중국 내에서 선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107]

경교선교에 대한 저항의 형태

경교의 당(唐)나라 선교에서 맞이한 저항의 형태는 '정치적 저항'과 '사회 문화적 저항'으로 나뉘어진다. '정치적 저항'은 앞서 살펴본 황제에 의한 제도적인 저항으로, 주로 정권을 장악한 황제가 기존의 종교정책과 다른 종교정책을 펼치거나, 국가의 외교정책이 바뀌면서 발생한다. 또한 '사회 문화적 저항'은 주로 민중(民衆)에 의한 저항으로 자연재해, 질병, 전쟁과 침략, 난(亂) 등으로 인하여 민족의 감정이 바뀌고, 이에 대한 항거 운동 등을 통해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당나라 시대 경교 선교에 대한 '정치적 저항'과 '사회 문화적 저항'을 아래와 같이 분석 정리하였다.

정치적 저항

경교 선교에 대한 정치적 저항은 크게 두 번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고종의 황후가 된 측천무후(則天武后)에 의한 정치적 저항이다. 그녀는 경교를 우대하던 남편 고종(高宗)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중종(中宗)을 밀어내고 690년 스스로 중국 최초의 여제(女帝)로 정권을 잡게 된다. 그리고 691년 공식적으로 불교를 국교로 선포하며, 경교를 포함한 타종교에 대한 박해를 명령한다. 이로 인하여 낙양(洛陽)에 있던 경교 교회와 수도원이 약탈을 당하게 된다.[108] 이곳에서 시작된 박해는 경교를 비롯하여 다른 종교에 큰 피해를 입히고 지방으로까지

---

107 우심화, "중국교회간사(簡史)," 262.

108 김문경, 176.

확대되었다. 측천무후(則天武后)는 선대 황제들의 개방된 종교 정책을 버리고 불교우대 정책 속에서 경교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정책을 펼쳤다.[109]

두 번째는 무종(武宗)의 '금교조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무종의 박해의 시작은 당시 경교와 같은 서역에서 들어온 종교인 '마니교'였다. 694년 당나라에 포교를 시작한 마니교는 당나라와 서역과의 활발한 외교로 처음에는 순조로운 성장을 해왔으나, 마니교 세력의 지지기반이던 위구르족이 전쟁에 패하여 당나라 조정과의 관계도 어긋나 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당조가 중국 내 위구르인에 대한 대우가 열악해진 것에 불만을 품은 마니교도들이 843년에 무종(武宗)의 처세에 반란을 일으켰다.[110] 그러자 무종은 마니교 포교를 금지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당시 무종은 도교(道敎)를 열렬히 신봉하였는데, 도교와 불교의 대립이 날로 심하였고, 불교의 경제적인 비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그가 즉위한 후 회창(會昌) 5년 845년에 대대적인 폐불(閉佛) 정책을 단행하였다.[111]

무종의 '폐불 정책'은 처음에는 불교로 시작하였지만 그것이 불교와 같은 외래 종교로 확대되면서 경교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당시 외래 종교의 대표격인 불교의 사찰과 승려의 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사회의 무거운 짐이 되어 사회 경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왕권에도 위험요소의 염려가 될 정도였다. 이에 도교와 불교의 다툼에서 당시 외국 종교의 대표로 자리잡은 불교를 '배외(拜外)' 사상으로 묶어 다룸으로 당시 외래 종교인 경교도 함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112]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무종(武宗)은 멸불(滅佛) 조유(詔諭)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당시 중국의 혼란한 시기를 틈타 다른 풍속이 전파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물드니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 다만 나라를 다스리기에

---

109 Moffett, and 김인수, 468.
110 이장식, 229.
111 김호동, 154.
112 안재은 358.

> 충분할 뿐이다. 어찌 한낱 서방종교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는가?”[113]

이외같이 경교를 포함한 외래 종교를 용인할 수 없는 다른 풍속으로 간주하고 더욱이 ‘한낱(只不过是)’이라고 표현하며 멸시하였다.[114] 그런데 이러한 무종(武宗)의 ‘멸불(滅佛)’ 정책은 단지 황제의 생각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 종교에 대한 중국 전통종교(도교)의 저항과 맞아 떨어진 결과다.[115] 결국 경교는 이 박해로 큰 타격을 입고 당 나라에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

사회·문화적 저항

당나라에서 경교는 당태종 정관 9년에 중국에 들어온 후, 14대 황제 무종(武宗)에 이르기까지 무려 214년간 중국에서 전파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경교가 당나라에 들어온 후 약 150년 후에 쓰여진 둔황 석굴[116]에서 발견된 경교 관련 문헌자료에 실린 성직자 명단에는 한족(漢族)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경교가 중국에 전파되어 경교비가 건립된 후 적어도 150년간 대체로 외국 선교단체로부터 전적인 인력과 재정을 지원받았던 교회였음을 설명하고 있다.[117] 현지화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중국인 종교 지도자가 전무하였고, 경교는 중국인들의 시선에 언제나 ‘양교(洋教)’로만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중국종교로 정착에 실패한 경교는 사회 문화적 저항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13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唐會要* (北京: 中華書局, 1955).卷四十七, 30. ‘只不过是 足以經邦 而豈可以區區西方之教’

114 董丛林, 30.

115 조성우 201.

116 중국 간쑤성 둔황에 있는 대표적인 청불동으로 1900년에 발견되었다. 이곳의 유물은 4세기에서 11세기에 걸친 고문서와, 고대악기, 고화, 고서등 7,000점에 이르는 유물이 발견되면서 유물의 도서관이라고 불린다. 제17굴에는 당나라 경교에 대한 자료가 있다.

나무위키, "막고굴," last modified October 1, 2022, accessed October 15, 2022, https://namu.wiki/w/%EB%A7%89%EA%B3%A0%EA%B5%B4.

117 량자린(梁家麟), *중국에 축복이 임하다* (서울: 그리심, 홍콩건도신학원, 2013), 17.

또한 앞서 살펴본 '정치적 저항'의 형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경교가 받았던 정치적 저항의 형태가 '사회 문화적 저항'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 무종(武宗)의 단호하고 혹독한 외래 종교에 대한 정치적 저항 정책을 펼친 데에는 도교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안록산의 난(安史之亂-755년) 이후 백성의 삶이 궁핍해진 상태에 이렀는데도 외래 종교인 불교 사원은 남북조 시대 이래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승려들은 군대와 노역에서 면제받고 무위도식 한다는 사회 문화적 저항의식이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종(武宗)은 이같은 잘못된 상황을 고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교를 비롯한 외래 종교에 대한 정치적 탄압정책을 실시하였다.[118] 아울러 경교에 대한 백성들의 사회 문화적인 저항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당시 북방 유목민 출신이었던 안록산의 난(安史之亂)으로 중국인들 사이에 점차 외래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한 외래 종교와 외래 문화에 대한 배외(拜外) 감정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119]

결국 이러한 환경 속에서 또다시 중국인들 사이에 경교를 포함한 외래 종교의 저항이 강하게 표출된 사건이 당 왕조의 말기 희종(僖宗) 5년(875년)에 발생한 '황소의 난(黃巢之亂)'이다. 당시 도시에 살면서 상업에 종사하던 페르시아계 외국인들이 축적한 부에 대한 반감을 가진 빈곤 농민들이 서역과 활발한 무역을 하고 있는 광주를 비롯한 중국 남방의 여러 도시들이 공격을 당하고 특히 많은 외국인들이 학살당하는 가운데 희생된 경교인이 무려 3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120] 이러한 정치 사회 문화적인 저항 요인을 배경으로 하여 외래 종교 배척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경교도 그 탄압 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특이한 점은 당시 불교는 타도의 주요 대상이 되어 큰 화를 당하지만, 얼마 후 다시 부흥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교 사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중국의 경교 신도들도 모두 환속(속세로 돌아감)당하거나 경교신앙을 버리고 불교나

---

118 김문경, 226.

119 이경규, "당대 경교의 성쇠에 관하여," *中國史研究* 11, no. - (2000): 75.

120 이현모 318.

도교로 개종하였으며, 외국 선교사들도 대부분 본국으로 송환되었다.[121] 이렇게 강력한 사회문화적 저항을 받음에도 이후에 다시 중국에서 복구된 불교와, 그렇지 못한 경교의 가장 큰 차이는 현지 종교지도자들을 통해서 다시 재건되었다는 점이다.

경교선교에 대한 저항의 결과

당나라의 탄압을 당한 경교 신도들은 당 중심부에서 변경으로 이동하여 여전히 경교의 잔재 세력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김호동은 845년 '회창(會昌)탄압'이 있을 즈음인 840년경, 당나라에 거주하던 위구르인들이 자신들의 거점지였던 서북부로 도주하는 가운데 당의 박해를 피해 북방으로 올라간 경교도들과 이미 위구르 지역에서 오랫동안 경교사역을 하고 있던 경교인들이 위구르 유민들을 만나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경교를 전파하고 개종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122] 결국 경교는 당나라 이후인 송(宋)왕조까지 중국 내륙으로 들오지 못하는 대신, 주로 중국 북방 지역 거란족의 요(遼)나라, 여진족의 금(金), 몽골족(蒙古族) 등 신흥 북방민족에게 폭넓게 수용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유목민(위구르족)으로 이동한 경교

경교가 당나라 시대 들어올 무렵 경교 선교사들은 이미 북아시아에도 진출하고 있었다. 당나라 시대에 중국 북방에는 투르크계의 유목민인 위구르족이 몽골 고원에서 돌궐을 계승한 유목제국을 세웠는데, 경교는 당시 마니교와 함께 위구르 족에게 폭넓게 선교활동을 하였다.[123] 이후 916년

---

[121] 김문경, 250.

[122]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 세상보기. "동방기독교", directed by 김호동 (서울대 동양사학과), 2000.09.22.

[123] 김호동, 179.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에 의해 건국된 거란족의 요(遼)왕조는 몽골과 만주, 중국 북부 일부를 정복한 유목왕조로서 고유의 신앙은 샤머니즘이었지만, 무종의 박해 때 거란의 영역으로 쫓겨온 경교 선교사들이 열심히 활동하였고, 그 결과 요(遼)왕조의 전성기를 이룩한 성종(成宗983-1031) 때는 교세가 상당하였다고[124]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당시 유목민 세계에서 거란지역에 선교사를 파견했다는 시리아 문헌이 존재하고 있고, 이 문헌 기록 속에 거란 유력자들 이름 중에 '이사야', '여호수아', '도마', '누가' 등의 세례명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중국 최북단 하얼빈 부근인 조남의 옛 거란 고성(古城)에서 요(遼)왕조 때의 금속제 십자가가 출토되었다.[125] 위구르 지역의 요(遼)왕조 이후, 세워진 금(金)나라 시대에도 경교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데, 금나라 말기 원호문(元好問)이 남긴 '원유산집'에는 '경교 신자가 금나라 병사에게 포로로 잡혀 갔는데, 금의 태종(太宗 1123-1135)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상을 바치고 석방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당시 만주와 내몽골 등 중국의 북부 변방지대에서는 여전히 경교가 유목민들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126]

몽골족과 경교

앞서 언급한 대로 경교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선교를 하였으나 무종의 '금교령'과 '황소의 난'을 거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아시아 북부지역의 몽골초원으로 피신하여 현지에 살던 경교 선교사들이 유목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선교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족 단위로 거주하던 나아만(乃蠻), 옹구트(汪古), 케레이트(克烈) 부족 등의 몽골족에게도 경교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그리고

124주성일, "위구르 무슬림의 수난 이해와 복음에 의한 회복 방안 연구" (주안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53.

125 김영진, *동아시아의 순교 이야기* (서울: 기쁜소식, 2014), 43.

126 황정욱, 60.

이들 가운데 케레이트(克烈)족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의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당시 교회 서신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127]

이외에도, 내몽골 옹구트 부족의 영역이었던 올론 숨(Olon Sum)에서는 십자가와 시리아 문자가 새겨진 비석이 1932년 미국인 오웬 라티모어(1900-1989)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비석에는 기와르기스, 엘리시빌라, 피티온, 줄리타와 같은 이름과 무덤의 주인들이 쓰여 있는데 대부분 경교의 세례명인 이름들이다. 또한 13세기 중국을 방문한 몬테코르비노와 마르코 폴로는 이 옹구트족의 수령 '조르지'를 '요한의 후손'이라 칭했으며, 1280년에는 경교의 주 교구가 내몽골 지방에 설치되었는데, 그 지역이 옹구트족의 거주 지역이었다.[128] 이처럼 13세기 초 몽골 제국이 등장하기 전, 몽골 초원에 살던 많은 유목민들 사이에 이미 경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 몽골 제국의 성립과 함께 제국의 지도자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몽골제국의 영역 속에서 확산되어 나갔다.[129]

몽골제국 선교의 쇠퇴와 경교

11세기부터 13세기 초에 걸쳐서 앞서 언급한 외(外)몽골지역의 오르곤의 튤라강 유역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가운데 케레이트(克烈) 족의 지배층은 대부분이 경교를 신봉하고 있었다. 그래서 칭기즈칸의 족보 중 상당수가 경교인(景敎人)이었고, 그의 자부 2명도 경건한 경교인(景敎人)이고, 그의 아들 셋도 모두 경교인(景敎人)이었다. 칭기즈칸은 일부다처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경교신자가 되지 않았지만, 항상 자신을 종교의 보호자로 자칭하며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

[127] 우심화, *기독교와 중국전통문화* (경기도: 도서출판 모리슨, 2021), 36.

[128] 김호동, 83-84.

[129] Delgerekh Altansukh, "12-13세기; 몽골 제국과 동방기독교" (안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31.

또한 칭기즈칸이 중국대륙 이전에 먼저 몽골지역을 통일시키기 위한 작업에 옹구트족(汪古)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칭기즈칸을 도운 옹구트족의 대부분은 경교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에 몽골제국에서 경교가 인정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130] 1206년 몽골제국을 통일하고 칭기즈칸으로 즉위한 테무친은 종교 관용 정책을 펼쳤다. 그는 관리를 등용할 때, 모든 종교인들을 두루 등용하였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경교신자들이 많았다. 특별히 이 시기에 기독교를 믿는 자를 통칭하여 '예리커원(也里可溫)'이라 불렀다. 몽골어로는 '복 있는 자, 인연이 있는 자'라는 뜻이다.[131]

이렇게 경교(景教)는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몽골족의 원(元)나라 성립과 함께 중국에 다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아울러 원(元)나라에 두 갈래의 기독교가 전해지었는데, 하나는 당대에 이미 전해졌던 경교(景教)이고, 하나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지중해 각국과 외교적 상업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원에 들어온 천주교(天主教)였다. 이렇게 몽골 제국의 건국자인 칭기즈칸부터 원(元)제국에 이르는 시기에 몽골은 제국의 영내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특정 종교와 그 외의 다른 종교들 간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극심한 종교 간의 갈등이 야기되었다.[132]

이 시기 몽골제국의 경교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자가 있었는데, 바로 마르코 폴로였다. 그의 책 '동방견문록'에 의하면, 원의 세조(世祖) 쿠빌라이의 어머니와 황후 등이 경교 신자였다고 한다. 그리고 세조의 지원으로 경교는 북방의 대도(大都) 감주(甘洲) 영하(寧夏) 천덕(天德) 서안(西安)에 주교구를 세웠으며, 많은 몽골귀족과 관리가 경교신자가 되어 병역과 조세 혜택의 특권을 누리며

130 최하영, 111.
131 우심화, *기독교와 중국전통문화*, 33.
132 김호동, 209.

1330년에는 신자수가 3만이 넘었다고 한다.[133] 또한 1281년 2월 25일에는 네스토리우스교의 총주교로 옹구트족[134] 출신의 주교인 '마르코스'[135]가 추대되어 40년간 네스토리우스교의 총주교 자리에 있기도 하였다.[136]

하지만, 1291년 이후 페르시아와 주변국에 이슬람이 급격히 확산되고, 네스토리안 교인들을 이슬람의로 개종하는 강력한 정책을 펴게 되자 페르시아의 네스토리우스교의 교세는 급격하게 쇠퇴하게 된다. 이후 14세기 말까지 네스토리우스 교단의 역사는 끝없이 추락하고, 몽골의 칸 아부사이드도 국제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경교를 외면하기에 이른다. 결정적으로 14세기 말 티무르 제국의 서아시아 침공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주민 학살과 이 지역의 흑사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동서교역이 중단되게 되고, 그동안 동서 교통과 교역을 통하여 종교적 경제적 활력을 기반으로 삼아왔던 경교도들은 존립의 기반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137]

요약

제2장에서는 중국 최초로 기독교 선교를 시작한 경교(景教)의 선교의 역사와 이에 대한 당나라의 토착종교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저항을 다루고 이러한 저항의 결과와 실패 원인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경교선교(景教宣教)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역사상 최초로 중국에 전해진 것에는 의미가 있고, 중국 사회 문화에 복음의 접촉점을 찾으려는 시도와 종교·문화적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하지만 당나라 말기 경교 선교의 저항의 형태를 분류하고 저항의 결과와 원인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도 발견된다.

---

133 王治心, *中国基督教史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43.

134 옹구트족은 몽골족과 같은 투르크 계통이며 같은 투르크 어를 사용한다.

135 시리아 이름 : 야빌라하 3세

136 김호동, 243.

137 Altansukh, 99.

당(唐)나라와 중국 북방 유목민 제국에서 경교(景敎) 선교과정에서 발생한 저항의 원인과 형태, 그리고 결과를 살펴보면서 당나라 경교(景敎)에 대한 저항은 중국의 토착종교의 저항, 사회 문화적 저항, 정치적 저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세 가지 부류의 저항은 각각의 형태로만 작용하지 않고 토착종교의 저항이 정치적 저항에 영향을 주어[138] 경교에 직접적인 핍박을 가져왔고, 사회문화적 저항이 정치적 저항에 영향을 주어 핍박을 불러오는 등 경교 선교에 대한 저항의 형태가 상호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경교(景敎)는 당시 중국의 토착 종교인 유교(儒敎), 도교(道敎), 불교(佛敎)의 종교적 양식과 언어만을 차용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토착종교들의 저항을 받게 되었고, 중국 한족(漢族) 종교 지도자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였으며, 그렇다고 기독교 복음의 독자성을 오롯이 드러내지도 못한 가운데, 오로지 지나치게 황실에 의존하면서 무려 214년이라는 기회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토착 기독교'로 정착하는 데 실패하였다. 결국 무종(武宗)의 '회창법란(會昌法難)'의 정치적 저항과, '황소의 난(黃巢之亂)'이라는 사회·문화적 저항에 의해 중국 사회에서 힘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138 불교(佛敎)의 저항이 원인이었던 측천무후(則天武后)의 경교 핍박, 도교(道敎)가 저항의 원인이었던 무종(武宗)의 경교 핍박.

제3장

원(元)·명(明)·청(淸)시대의 천주교(天主教) 선교와 저항

제3장에서는 중국 역사 가운데 원(元), 명(明), 청(淸)나라에서 진행된 천주교 선교사역의 특징과, 선교사역에 대한 저항의 원인과, 형태, 결과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천주교의 중국 선교정책은 이전 당(唐), 원(元)나라 경교(景教)의 선교활동에 비하여 훨씬 조직적이고, 창의적인 면이 있었다. 본장에서는 천주교의 중국 선교를 원나라와 명·청시대를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는 천주교가 중국대륙에 처음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던 원(元)나라의 천주교 선교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저항의 형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저항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명(明), 청(淸)시대에 다시 시작된 천주교 선교사역의 선교전략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저항의 형태와 원인,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천주교(天主教)의 중국선교 시작과 진행

몽골 지도자 쿠빌라이 칸의 선교 요청

로마 가톨릭의 몽골에 대한 첫 번째 접촉은 몽골의 유럽 정복에 두려움을 느낀 상황에서 외교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신부나 사제를 특사로 보냄으로써 이뤄진다. 먼저 교황 인노센트 4세는 1245년 4월 16일 보헤미아 출신 탁발 수도사인 플라노 카르피니(Carpini)와 동행자 베네딕트(Benedict)에게 교황의 친서를 가지고 몽골제국의 수고인 카라코롬에 보내게 된다. 친서의 주요 내용은 몽골인들의 개종을 권유하고, 앞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공격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어 1253년에 프랑스왕 루이 9세가 역시 몽골과 군사동맹을 통하여 이슬람 세력을

견제하고자 프란치스코회 수사인 루브룩의 윌리암(Willem de Rubrck)을 외교 친서와 함께 몽골에 보낸다.[139]

카르피니와 윌리암은 각각 4개월과 6개월 동안 몽골에 머물다가 돌아온 후 그들이 보았던 견문을 "몽골인의 역사"라는 책으로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이것은 유럽인의 눈으로 몽골의 경교와 불교 등의 종교 상황을 최초로 기록한 책이 되었다.[140] 카르피니와 윌리암 이후 원(元)나라에서 몽골지도자를 만난 천주교 인물은 모험가이자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Marco polo)다. 마르코 폴로는 삼촌 마페오 폴로와 함께 교황 그레고리우스 10세의 친서를 가지고 1271년 대도(大都: 현재의 북경) 북부인 상도(上都)에서 칭기즈칸의 손자이자 원(元)왕조를 세운 세조(世祖) 쿠빌라이 칸을 처음 만났다. 마르코 폴로는 황제의 우대 아래 17년간 중국에 머무르면서 아시아, 중국, 몽골의 문화와 종교, 풍속 등을 자세히 기록한 '동방견문록(東方見聞錄)'을 쓰기도 했다.[141]

이 기간 동안 대칸 쿠빌라이는 마르코 폴로로부터 서방국가의 상황에 대해 흥미를 가지며 특히 교황의 기거와 업무 상황, 교회의 사역, 예배 및 기독교 교의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폴로 형제를 특사로 임명하여 교황에게 신학에 정통하면서도 7예(수사학, 논리학, 산수, 천문학, 음악, 지리)에 능하고, 특별히 기독교라는 종교가 불교나 샤머니즘보다 더 낫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줄 아는 기독교 현자 100명의 선교사들을 원나라로 보내어 기독교의 신앙과 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보다 진실한 것이 증명되면 쿠빌라이 칸 본인과 몽골의 모든 유력자들이 교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부탁을 하고 1260년 4월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된다.[142]

---

139 서양자, 72. 카르피니는 이탈리아 출생으로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에 능했고, 몽골에 가기전에 폴란드, 헝가리, 보헤미아 지역에서 선교를 경험한 바 있다.

140 Altansukh, 69.

141 서양자, 80-81.

142 Marco Polo,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trans. 김호동 (서울: 사계절출판사, 2000), 81.

하지만 칸의 이런 파격적인 요청에 교황의 반응은 예상 밖으로 차가웠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0세는 100명의 선교사가 아니라, 마르코 폴로 집안의 두 형제와 마르코 폴로, 그리고 거기에 겨우 두 명의 도미니칸(Dominican) 선교사들만 중국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 두 선교사들마저도 중앙아시아에서 발발한 전쟁에 낙담하여 여행 도중에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마르코 폴로 집안 3명만이 1275년 중국에 도착하여 절호의 선교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14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코 폴로 일행은 1275년 상도(上都)에 다시 도착하여 황제에게 지나온 과정을 상세히 보고하고, 교황의 서신과 예물을 바쳤다. 쿠빌라이는 크게 감동하고 폴로일행에게 후한 대접으로 환대하여 이로써 원(元)왕조와 로마 교황청사이에 공식적인 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되었다.[144]

원(元)나라의 종교정책

경교와 천주교가 원(元)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원(中原)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몽골인의 기독교 전통[145]과 통치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관용적 태도 때문이었다. 그러나 몽골인의 종교 정책은 기독교만을 존중한 것이 아니며, 당시 이슬람교도 같은 대우를 받았다. 왜냐하면 몽골인들은 이전부터 다원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146] 이에 대하여 영국 신학자 도슨(C. Dawso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몽골의 지도자 대칸들은 비록 문화수준이 낮았지만 종교의 중요성을 충분히 깨닫고, 두루 관용하는 관대한 정책을 폈다. 칭기즈칸은 모든 종교는 다 존중되어야 하며, 특정 종교를 편애하여서는 안 되고, 여러

143 안승오, 116.

144 서양자, 87.

145 당나라 황소의 난 이후 북방 유목민족으로 이동한 경교는 위구르족과 함께 몽골족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원나라의 몽골족은 이미 유목민족시절부터 경교를 통하여 기독교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146 우심화, *기독교와 중국전통문화*, 45.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중히 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법령의 일부분이 되게 하였다.[147]

원(元)의 통치자들은 중원을 차지한 후에도 그들이 유목민족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중국 내의 토착종교와 무속신앙들이 더해져 종교는 전에 없이 복잡하고 다양해졌지만 원(元)왕조의 황제들은 모두를 용납하였다. 이 때에는 종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포함한 여러 분야까지 모든 것이 개방된 사회였다.[148]

원(元)나라에서의 천주교 선교

천주교의 원(元)나라 선교의 좋은 기회를 놓친 지 얼마 후, 원나라에서 성공적인 선교사역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몬테코르비노(Montecorvino)'였다. 그는 이탈리아인으로 프란체스코 수도회 소속으로 먼저 1292년 인도에서 1년 만에 1백 명을 개종시켰고, 인도에서 바다를 건너 1294년 북경에 입성하였다.[149] 그는 1328년 죽기까지 중국에 다년간 있으면서 교회 사역에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먼저 원(元)황제의 동의를 얻어 북경에 중국의 첫 천주교 예배당을 세우고, 7년 후 두 번째, 원 인종(仁宗) 5년인 1318년에는 세 번째 예배당까지 세우게 된다.[150] 뿐만 아니라 150여 명의 남동(南童)을 선발하여 성직자반을 세우고 여기서 라틴어와 헬라어를 가르치고, 신약성경을 몽골어와 위구르어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천주교가 중국에 세운 첫 번째 기독교 전문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가 온 지 11년이 되던 해에는 수도인 북경에서 6천 명에게 영세를 주었다.[151]

로마 교황청도 몬테코르비노의 중국 선교사역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여 1307년에는 그를 북경의 총주교로 임명하고 그가 임직하고 있는 동안 로마에서 두 팀의 선교사들을 파견하였다. 1328년 그가 중국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는

---

147 Christopher Dawson, *The Mongol Mission* (New York: AMS Press, 1980), 267.
148 Dawson, 268.
149 안승오, 116.
150 우심화, "중국교회간사(簡史)," 265.
151 서양자, 84.

천주교 신도수가 3만 명에 이르렀다.[152] 1336년 원(元) 조정은 로마 교황청에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안드레아 주교를 포함한 원의 관리 16명은 당시 교황 베네딕토 12세를 알현하였다. 로마 교황청은 답방차원에서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여 1342년 북경에 도착하여 순제(順帝)를 알현하였고, 3년 반가량 머무르면서 원나라와 로마 교황청의 외교적 관계가 시작되었다.[153]

원(元)나라 시대 천주교 선교에 대한 저항과 쇠퇴

천주교(天主敎)는 원(元)나라에서 당의 측천무후(則天武后)나 무제(武帝)와 같은 정치적인 저항을 가하는 황제가 없었고, 일반적으로 천주교(天主敎)에 관용적이었고 그들을 줄곧 우대하였다.[154] 이러한 환경에 있던 천주교(天主敎)가 중국(元)에서 왜 저항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주교와 경교의 갈등에 기인한 저항

천주교(天主敎)에 대한 원(元)나라의 직접적인 종교 박해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같은 예리커원(也里可溫)[155]에 속해 있는 경교(景敎)와의 갈등과 배척도 중국선교를 감당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미 경교(景敎)와 천주교(天主敎) 두 교파는 동로마에서부터 오랫동안 반목하고 원한도 깊었지만 그래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구성원들이었기에 선교지인 원(元)나라에서는 이들을 모두 '예리커원(也里可溫: 복된 자, 복음을 신봉하는 자)'으로 함께 불렀다. 경교와 천주교의 선교활동이 원(元)나라에서 폭넓고 다양해지자 원조정에서는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승복사(僧福寺)'라는 전문 관리기관까지 두었고, 이제는 '불교'와 '도교', '예리커원'을 같은 위치에서 동일하게 병기할 만큼 원나라에서

152 서양자, 88.
153 서양자, 92.
154 이장식, 326.
155 몽골제국의 중국 지배를 통해 원나라 때 전해진 경교와 천주교를 통칭한 표현.

성장하였다.[156] 당(唐)나라에서 경교가 불교와 도교의 눈치를 보고, 토착종교의 저항을 맞이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이었다.

원(元)나라 당시 선교의 역사적인 순서나 교계의 세력으로 볼 때, 중국에서의 경교는 천주교보다 기반이 강했고, 그 세력도 상당히 번성하였다. 심지어 경교 예배당을 짓기 위해 진강(鎭江) 지역에서는 경교도의 지방 관리의 힘을 빌려 불교의 금산사(金山寺)를 강제로 빼앗기도 하였다. 몬테코르비노가 원나라에서 사역할 당시 북경과 인접한 산서성(山西省)에는 경교 신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몬테코르비노를 향한 그들의 태도는 매우 배타적이고 저항적이었다.[157] 실제 몬테코르비노가 쓴 일기에 보면, 만약에 중국에서 경교신자들의 반대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6천 명이 아닌 3만 명의 신자가 입교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다.[158] 반대로 천주교는 네스토리우스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했고, 천주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기에 선교지인 중국에서 둘 사이에 늘 상당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159]

결국 원(元)나라에서 경교와 천주교는 서로를 극도로 경계하고 배척함으로 중국 선교에서 협력의 모습을 통한 선교의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도리어 원(元)나라에서 선교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대립은 교황청이 1307년 몬테코르비노를 대(大)주교로 승격시키고 일곱 명의 주교를 북경에 보내었는데, 천주교와 경교의 교회 조직이 겹치자 이 두 교파는 공개적으로 비방하며 경쟁관계에 들어갔다. 당시 페르시아 대주교 '코라의 요한 (John of Cora)'의 보고서에서도 몬테코르비노는 경교도들을 철저히 이단으로 취급했으며, 루브룩의 윌리엄 역시 가톨릭 교도가 아니면 모두 이단으로 간주하여 경멸하였다는 기록이

---

[156] 董丛林, 40.

[157] 최하영, 144. 네스토리안은 천주교 선교사들의 중국 선교를 가장 불만스러워하였고 경쟁자로, 분리주의자로 취급하였다. 네스토리안인들은 처음 5년간 몬테코르비노에게 심한 부담과 지독한 위협을 가하고 모함하여 재판을 받게 하기도 했다.

[158] 서양자, 84.

[159] 김영진, 57.

당시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160] 이러한 모습을 본 중국인들에게는 기독교도들 간의 내분으로 오해될 수 있었다. 이렇듯 선교사역에 있어서 같은 기독교 진영에서의 내부적 갈등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지도자의 종교정책 변화에 기인한 저항

1295년 몽골 제국의 5대 칸인 쿠빌라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는 불교를 선택했다. 그도 처음에는 독실한 경교도 신자인 어머니 '소르칵 타니'의 영향으로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5대 칸을 두고 동생 '아락부흐'와 정권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동방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아닌 '아락부흐'를 지지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심지어 동생 '아락부흐'는 '쿠빌라이'와 싸울 때 자신의 군기에 십자가를 표시하고 싸우기까지 했다고 한다. 특히 쿠빌라이가 원(元)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통치하면서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또 중국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중국의 불교를 공식적으로 우대하고 특혜를 주었다.[161] 또한 몽골제국 시대 말기에 몽골의 칸들은 정복한 땅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사용했다. 지금의 러시아 지역의 '킵착 칸국'이 무슬림을 받아들이자 이를 용인하고 중국 내 이슬람 또한 적극 수용하였다. 이것은 광활한 제국을 효과적을 통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능한 모든 종교들로부터,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162]

결국 이러한 원(元)나라의 관용적인 종교정책은 다양한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교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중국의 신자들은 불교와, 유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기독교인들조차 종교혼합주의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

160 Christoph Baumer, *실크로드 기독교*, trans. 안경덕 (서울: 일조각, 2016), 366-67.
161 Altansukh, 94.
162 Moffett, and 김인수, 472.

이러한 예는 당시 독실한 경교 가문이면서 몽골제국에서 고위관리로 등용되었던 옹구트 족의 '마씨(馬氏) 일가'를 통해 알 수 있다. 과거 유목 민족이었던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력한 경교 가문이던 이들이 중국에 정착하여 중국의 문물과 학문을 접하면서 유교와 도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당시 황제의 정책 또한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마씨(馬氏) 일가들은 대대로 신봉해 오던 경교 신앙을 버리거나 혼합주의적이 되었다.[163]

몽골제국의 기독교 신앙활동의 범위는 거의 왕실 중심이었다. 그리고 순례와 예전 중심이었다. 정치적인 종교로서 칸들과 제국의 번영을 기원하는 형식적인 행사가 대부분이었다.[164] 이렇게 세속화된 기독교는 민중들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형식화된 신앙은 새로운 상황 앞에서 쉽게 무너지거나 변질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몽골 민족에 의해 보호받던 외국인들은 원나라가 망하고, 한족이 세운 명(明)나라가 시작될 때, 명나라에서는 경교 신자이든, 천주교 신자이든 모두 침략자의 종교로 취급되어 함께 죽임을 당하고 교회는 파괴되었다.

이슬람교의 중국정착과 확산

이슬람의 중국선교는 경교와 마찬가지로 당대(唐代)에 전파되었다. 역사 문헌에 의하면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전해졌는데, 첫 번째는 당 고종(高宗)이 '안록산의 난(安史之亂)'을 평정할 때, 아라비아 등으로부터 병마 20여만을 빌렸는데, 그 중 많은 사람이 중국에 남아서 후대에 번성하여 청진사(淸眞寺)[165]를 세웠다. 또 한 번은 원대(元代) 칭기즈칸이 원정 후 돌아올 때, 중앙아시아의 많은 무슬림들이 중국에 함께 들어와서 주로 중국 서북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166]

문제는 13-14세기 원(元)나라 시기에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도 관용 정책을 취하여 아라비아인, 페르시아인, 터키인 등이 병사나 직공, 상인으로

---

163 Altansukh, 95.
164 서양자, 94-95.
165 중국에서는 청진사(淸 眞寺)를 이슬람사원으로 통칭함.
166 董丛林, 49.

원나라로 대거 이주하였고, 이들은 '색목인(色目人)'으로 원(元)조정을 위해 일한 관리들이 많았다. 이시기 문화 방면으로 이슬람의 천문학, 역학, 과학기술이 원(元)에 전해지고, 이슬람은 원(元)에 제법 널리 보급되어 이슬람교는 중국 전역에서 비교적 빠르게 발전하였다.[167]

특이한 것은 당(唐) 무종(武宗) 때 이슬람교는 경교처럼 소멸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오히려 이슬람교는 원대(元代)까지 내려왔고, 원대에 더욱 번창하였다. 그리고 원(元)왕조가 멸망 후, 송(宋)·명(明)·청(淸)시대에도 이슬람교 는 기독교처럼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교세를 유지하였다. 나아가 이슬람교를 근간으로 중국지역에서 점차 회족(回族)을 형성하여 중국 내 다민족(多民族)의 일원이 되어갔다.[168]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외래의 이슬람 신자들은 모여 살고, 자신들의 생활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면서도 해당 지역주민들과 통혼(通婚)을 하며 가족 구성원이 점차 늘어갔다는 점이다. 이렇게 인구가 끊임없이 늘어감에 따라, '교민으로서 우거'에서 '토착 무슬림'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마침내 혈연적으로 중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169]

두 번째, 일반적으로 이슬람교는 외부인들에게 종교를 전하지 않았고, 내부의 종교의식과 활동도 비교적 간략하게 하면서 유가사상 및 다른 종교와의 대립각을 최소화하고 정면충돌을 피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이슬람의 중국화는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어 중국문화 속에 흡수되어 갔다. 이렇게 중국의 이슬람은 표면적으로 유사한 요소는 과감히 중국화하고, 내면적으로 이질적인 요소의 차별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고도의 적응 전략'을 구사하였던 것이다.[170]

게다가 1294년 원(元)나라에서 기독교의 방패가 되었던 쿠빌라이가 죽고, 페르시아에서는 '일칸 카잔'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몽골제국의

167주성일, 31.

168 주성일, "중국 이슬람의 확산과 이슬람의 중국화," *아랍과 이슬람 세계* 8 (2021): 122.

169 이희진, *중화사상과 동아시아* (서울: 책세상, 2007), 37.

170 주성일, "중국 이슬람의 확산과 이슬람의 중국화," 125.

페르시아 점령지는 점차 이슬람화의 길을 걷게 되고, 이슬람 세력은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에서 만리장성 서쪽 끝으로부터 유프라테스 유역에 이르는 지역까지 확장되었다.[171] 아울러 이 시기 유럽에는 흑사병이 유행하여 프란체스코회 회원의 2/3가 사망하였고, 프란체스코회는 더 이상 중국에 선교사를 파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중앙아시아와 동유럽마저 이슬람국가가 되어감에 따라, 동서교통의 단절과 질병 그리고 원나라의 멸망과 함께 중국의 천주교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172]

명말(明末)·청(淸)나라 시대 천주교 선교와 그에 대한 저항

원대(元代)의 예리커원(也里可溫)이 자취를 감춘 지 약 200년이 지난 명(明)나라 말기에 '예수회' 선교사를 중심으로 천주교의 중국선교가 다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프란시스 사비에르와(Francis Xavier)'와 '마태오 리치(Matteo Ricci)'를 들 수 있다. 그들의 초기 선교전략은 '문화적응주의'와 '서양과학문물의 소개'로 중국에 접근하는 것이었다.[173] 특히 '마태오 리치'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서구문화가 좋으니 무조건 바꾸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먼저 사서오경(四書五經)을 탐독했으며 학덕을 겸비하여 중국 사대부들과 친분을 쌓았다. 그는 점차 중국 고유의 문화와 풍속을 존중하며 '합유론: 유가와 합하고→보유론: 유가를 보완하며→초유론: 유가를 뛰어넘어→대유론: 유가를 대신한다'의 형태로 중국에서 천주교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였다.[174]

천주교 선교에 저항

원(元)나라에 이어 세워진 명(明)나라는 한족(漢族)에 의한 혈통을 회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전 원(元)나라의 개방 정책을 져버리고 국수주의와 쇄국정책을 실시하여 외국과

---

171 량자린(梁家麟), 25.
172 곽정복, 48.
173 서양자, 113.
174 김영웅, 38.

교류가 둔화되었다. 명(明) 조정은 외국인의 중국 진출을 외교 사신 정도만 왕래할 정도로 최소화했으며, 종교적으로는 신유가(新儒家) 사상이 중국의 정통사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시기였다.[175]

명(明)나를 세운 '주원장(朱元璋)'은 몽골족(蒙古族)을 중원에서 내쫓고 한족(漢族)왕조를 세우면서 한족 문화를 복원하고, 기존의 몽골족의 관습과 문화는 강력하게 퇴출시켰다. 몽골족이 통치하던 원나라에서 천주교 교인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 한족을 통치하던 '몽골인'과 '색목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한족(漢族)이 세운 명(明)나라에서는 천주교(天主教)를 자신들이 지배한 통치계급(몽골족)의 신앙으로 간주하고 배척하였다.[176]

하지만 이때 서구에서는 포르투갈, 스페인 제국에 의해 해외진출과 함께 천주교의 해외 선교가 다시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회는 이러한 선교운동에 가장 앞선 단체였다. 예수회 선교사 사비에르(Xavier)는 일본에서 선교를 하던 중, 일본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선교가 선행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깨닫고 1552년 8월 해적의 위협을 무릅쓰고 광동(廣東) 연해의 '상천도(上天島)'에 상륙하였다. 상천도는 우리나라 영등포구의 3분의 1 규모의 작은 섬으로 귤나무가 울창하고 어족자원이 풍부하지만 주민은 얼마되지 않았다. 사비에르 신부는 상천도에서 매일 미사를 드리면서 본토 상륙을 시도하였으나, 중국 명나라 말기 '폐관수자'의 정책으로 외국인은 중국 본토에 절대로 입국시키지 않았기에 모두 실패로 끝나고, 그해 연말에 세상을 떠났다.[177]

하지만 사비에르의 중국 선교에 대한 열망은 후진들에게 열정과 용기를 불어 넣어, 이후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이들도 여전히 상천도나 마카오에 머무를 뿐, 중국 내륙으로 진출은 허가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회 선교사들은 중국 내륙 선교에 계속 문을

---

[175] 고혜전, "중국 천주교 전래과정과 천주교 애국회 형성 배경에 관한 考察" (가톨릭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5.

[176] 량자린(梁家麟), 23.

[177] 서양자, 111.

두드렸고, 그러던 중 예수회 동방감독인 뤼기에르(Ruggier)는 뛰어난 중국어 구사능력과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관리들의 신뢰를 얻어, 드디어 1582년 광동성 조경(肇庆)에 선교 거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178]

천주교의 명말(明末)·청(淸)나라 선교

지금까지 살펴본 원(元)나라와 명말(明末)에 전해진 천주교 선교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선 원(元)나라 시기에는 주로 교역 확대와 새 왕조의 설립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선교가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하여 명말(明末) 이후 천주교 선교는 포교를 1차 목적으로 한 기독교가 전래되었다는 점이다.[179] 또한 그동안의 선교사들과는 달리 당시 중국에 파송된 예수회 선교사들은 고도의 선교 훈련과 교육을 받고 지성과 학식을 겸비한 엘리트들이었고 특히 현지언어인 중국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기에 당시 높은 지식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명(明)사대부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180]

한편 뤼기에르가 교황청과 중국 황제의 교섭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돌아가고 마태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가 광둥성 조경에 남아 중국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고 중국어와 오경자사(五京子史)를 탐구하며 중국 사대부들과 교분을 쌓았다. 처음에는 삭발을 하고 승복을 입고 스스로를 '서승(西僧)'이라고 칭하던 마태오 리치는 그의 절친한 친구가 된 중국인 사대부 구태소(九太素)로부터 당시 승려의 지위가 유생보다 낮음을 알게 되자, 윤복(儒服)으로 갈아입고 승명을 폐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먹는 것, 일상생활, 의식과 예절 등에서도 완전히 중국화되었다.[181]

---

178 우심화, "중국교회간사(簡史)," 267.

179 김혜경, "16~17세기 동아시아 예수회의 선교 정책: 적응주의의 배경을 중심으로," *신학과 철학*, no. 17 (2010): 37.

180 서양자, 259.

181 王治心, 111.

당시 르네상스의 발상지인 로마에서 온 마태오 리치(Matteo Ricci)는 뛰어난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천문학, 지리학, 수학, 음악이론 등 서양 근대 과학 지식을 골고루 갖추었고, 중국에 온 후에는 중국어에 매진하고 유가 학설에 대해서 연구를 거듭하여 '중·서(中西)철학'을 관통하는 학자가 되었다. 또한 성품적으로도 겸손하고 예절이 바르며 의젓하고 말재주가 좋아 주변사람들을 감동시켰다.[182] 이를 토대로 그는 활동 지역과 교제 범위를 부단히 확대하여 중국에 온지 십여 년이 지나는 동안 소주(蘇州), 남경(南京), 남창(南昌) 등 여러 지역으로 선교활동을 넓혀갔다. 1597년에 이르러서는 그가 사귄 친구들이 명(明)왕조 15개 성(省) 중 10개 성(省)에 퍼졌고, 이들 다수가 관신(館身)들과 각계 각층의 명류(名流)들이 되었다.[183]

당시 수도 북경은 당연히 외국인 출입금지 지역이었다. 그러나 마태오 리치(Matteo Ricci)는 수도 북경의 입성을 여러 번 시도하였다. 왜냐하면 왕조의 심장부에서 활동은 그 어떤 것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의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들을 왕에게 진상하고 난 후, 마태오 리치는 황제의 관심을 받아 북경(北京)에 머물게 되었다. 처음에는 황제를 직접 알현하지 못하고 내시를 통하여 황제의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만국여지도'와 '천주경', '자명종' 등 당시 중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서양문물을 황제에게 바치며 황제의 관심을 얻었고, 마침내 1600년 '황실의 태엽을 감는 지위'를 얻어 황실에 정식으로 입성하게 된다.[184]

특별히 마태오 리치는 그가 만나는 중국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천주교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천주교 교리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그는 '기독교 교리'를 중국의 '유가이론'과 비교하고 조화를 모색하여 양자는 원래 같은 조상이고 뿌리가 상통하며

---

[182] 董丛林, 55.

[183] 진상선, 26.

[184] 김혜경, "마태오 리치의 세계지도에 대한 선교신학적 고찰," *신학전망*, no. 198 (2017): 145.

천주(天主)와 중국 옛 성현들은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185] 특별히 그가 집필한 '천주실의(天主實義)'는 기독교와 중국 유가문화의 상호 수용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합유(合儒: 유가에 합한다)론'에 속하며 당대 많은 관료와 학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조선(朝鮮)과 월남(越南), 일본(日本)의 천주교 선교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186]

마태오 리치는 자연과학 분야에도 매우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서양과학 지식을 매개로 수학, 천문, 지리, 기기 제조 등의 '학술 선교'의 방법도 성실히 보여주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중국인은 리치에게 천문학 강의를 배운 뒤 자신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불교의 학설과 비교하며 일식과 월식의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과, 불교의 신화를 서로 비교하고 탄복하여 천주교에 귀의하기도 했다고 한다.[187] 이렇듯 마태오 리치(Matteo Ricci)의 선교 방법은 중국 문화를 존중하고 전통문화의 본질을 기독교 교리에 반영하며 성공적인 상황화 전략을 취하였다. 그는 공자를 '존숭(尊崇)'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중국의 극히 중요한 전통 예의이기에 허용하면서 사실상 '용(龍: 중국의 전통문화를 상징)'과 '상제(上帝: 기독교를 상징)'의 관계를 상당히 지혜롭게 풀어나갔다.

이러한 마태오 리치의 선교방법은 명말(明末)뿐 아니라, 청초(清 初)까지 몇 백 년간 중국 선교의 기본모델이 되었다.[188] 마태오 리치가 1610년 58세로 북경에서 병들어 세상을 떠날 때 중국 천주교 신자는 이미 2,500명이 되었다. 사실 당시 중국 대륙의 수많은 인구와 비교하면 2,500명의 숫자는 미미한 수였지만 그의 사후 몇 년 사이에 중국 천주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그가 남긴 영향력이 그 원이었다. (1610년: 2,500명, 1617년: 13,000명, 1636년: 38,000명, 1650년: 15만 명, 1664년: 24만 8,180명으로 증가한다.)[189] 마태오 리치는 중국문화를 존중하고

[185] Ricci, 신진호, and 전미경, 755.
[186] 김명희 151.
[187] 진상선, 26.
[188] 董丛林, 125.
[189] 王治心, 112.

가급적 중국 문화 안에서 중국인의 개념으로 복음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던 선교사이기에 그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주요 지식층들인 고관 요인들과 사회의 지도자들이 적지 않았고[190]. 중국 천주교의 3대 기둥으로 불리는 서광계(徐光啟), 이지조(李之藻), 양정균(楊廷筠) 등도 대표적인 인물들로 거기에 포함된다.[191]

특별히 서광계(徐光啟)는 청말(清末) 가장 저명한 학자 중 한 사람이고, 이후 서광계의 딸들은 이후에 중국 근대역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손문(孫文)과 장개석(蔣介石)의 부인들이 된다.[192] 그러나 예수회의 이런 긍정적인 여러 역할에도 불구하고 예수회가 중국 사회 안에 전반적으로 복음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견해도 있다. 왜냐하면 당시 천주교에 귀의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마을이나 수도원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 교회, 학교, 병원 등을 세우고 신부의 지속적인 사목 아래 그 마을을 관리하는 데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게토화' 때문에[193] 천주교는 중국사회 안에서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청(淸)나라 시대 천주교 선교에 대한 저항의 원인과 형태

외국 문물에 대하여 철저한 쇄국정책을 실시하던 명(明)나라가 망하고 다시 만주족에 의하여 청(淸)나라가 건립되었다. 하지만 이전의 기독교와는 다르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명말(明末) 천주교(天主教)는 그동안에 기울인 예수회의 노력을 청(淸)나라에서도 인정받아[194] 계속해서 선교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

[190] 김혜경, "16~17세기 동아시아 예수회의 선교 정책: 적응주의의 배경을 중심으로," 66.

[191] 서광계(徐光啓), 이지조(李之藻) 양정균(楊廷筠) 중국 가톨릭의 개교 삼대석주(開教三大石柱)로 불리며, 천주교가 중국에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톨릭사전, "서광계," last modified March 1, 2023, accessed March 15, 2023,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537&keyword=&gubun=01.

[192] 안승오, 159.

[193] 황종렬, "마테오 리치의 적응주의 선교의 신학적 의의와 한계," *교회사연구* 20 (2003): 208.

[194] 량자린(梁家麟), 28.

하지만 이 시기 천주교는 정치적 저항(교안)과 천주교 자체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 천주교가 맞이한 저항과 갈등의 형태와 원인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명말(明末)·청초(淸初) 천주교에 대한 정치적 저항

마태오 리치 생전에도 사대부와 백성들로부터 적지 않은 저항을 받았다. 특별히 그가 두 번째 북경을 방문하였을 때는 예부의 관리가 트집을 잡아 한때 구금을 당하고, 심문을 받기도 했다. 마태오 리치가 죽은 지 6년 후인 만력(萬曆) 44년인 1616년에 남경에서 '남경교안(南京交案)'이라는 첫 번째 정치적 저항이 발생하였다. 교안의 주요내용은 '먼 오랑캐가 도성에 난입하여 암암리에 왕화(王化)를 해치며, 선교사들이 겉으로는 유가를 존중하며 천주의 가르침이 공자의 가르침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고 유가를 억눌러 나라의 전통을 어지럽히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다.[195]

이러한 '남경교안'을 앞장서서 일으킨 사람은 예부상서의 재상 심최(沈崔)라는 인물로 그는 3개의 상소문을 황제에게 올려 천주교 선교사를 '먼 오랑캐'로 정의하고, 황제의 명이 내리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20여 명의 외국 선교사와 중국인 천주교 신도들을 체포하기에 이른다. 심최의 '남경교안'을 북경과 남경의 여러 관원들이 호응하자, 결국 그동안 천주교 선교사들을 예우하던 만력(萬曆) 황제도 천주교에 대해 '금교령(禁敎令)'을 내리고 만다.[196] 물론 당시 선교사를 변호하기 위해 서광계(徐光啟)가 적극적으로 반대 주장을 하였으나 중국 조정의 대세를 바꿀 수 없었다. 조정의 이러한 조치는 결국 선교사를 몰아내고 예배당을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명(明)나라는 조세제도의 실패, 군대의 반란과 환관의 지배 하에 놓인 황실의 부패로 인하여 계속 허물어져 갔다. 더욱이 북동쪽으로부터 만주족들이 400년 전 몽골인들처럼 만리장성을 뚫고 침입해왔다.

---

[195] 진상선, 28.

[196] 우심화, *기독교와 중국전통문화*, 66.

당시 서광계는 이러한 만주족의 위협에 대항하여 조선(朝鮮)에 특사를 보내 동맹을 맺을 것을 제안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97]

두 번째 정치적 저항은 청초(淸初)에 일어난 '양광선(楊光先)의 교안'이다. 마태오 리치(Matteo Ricci)의 후계자인 '아담 샬'(Adam Schall)[198]은 청나라 황제 순치와 2년간(1655-1656)교류하였고, 순치황제는 '아담 샬'을 귀히 여기고 그의 종교인 천주교에 대해서도 예우하였다. 이러한 배경이 되는 사건은 만주족이 중국을 침략하던 당시 흠첨감 관원으로 있던 아담 샬이 1644년 9월 1일에 일식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다. 당시 북경을 점령한 만주족들은 자신들의 침략을 하늘의 뜻으로 정당화하고자 '일식 현상'을 정치적 이유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199]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토대로 다음 황제인 강희(康熙) 3년(1644년)까지 예수회는 중국의 각 성(省)에 선교사들의 처소 42곳, 예배당 159개소, 교인 24만 명 이상 두게 되었고, 예수회뿐 아니라 도미니칸 수도회,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등이 중국에서 어려움 없이 활동하게 되었다.[200]

이러한 천주교의 확장을 못마땅하게 여긴 '양광선(楊光先)'[201]이 중국 황실의 흠천감으로 승진되자 평소 '아담 샬'을 시기하던 이슬람 천문학자들과 조정의 대신들을 선동하여 '아담 샬'을 고발하고 체포하여 사형판결을 받게 한 사건이 일어난다. 당시 강희 황제는 겨우 8세로 모든 대신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던 상황이었다. 대신들의 대부분을 점령한 양광선은 '아담 샬'의 심문 과정에서 특별한 죄목을 찾지 못하자, 몇 년 전 순치황제의 어린 아들 영친왕이 요절한 사건이 당시 '아담 샬'이 택한 장례 시간에 부정을 타서 죽게 된 것으로,

---

197 Samuel Hugh Moffett,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2*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08), 208.

198 앞에서 살펴본 저항의 사건에서 한 왕조에서 다른 왕조로 넘어 갈 때는 그 동안의 황제의 비호를 받았던 기독교는 그들과 함께 사라졌지만, 예수회 신부 아담 샬은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망명할 당시 북경에 계속 남아 황족 가족들 50명을 지키었다. 그리고 만주족이 수도에 진입하자 중국 옷을 입고 담대하게 계속 중국에서 사역할 것을 요청하고 허락을 받아냈다.

199 Moffett,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2*, 210.

200 김명희 167.

201 Moffett,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2*. 양광선은 중국 문명의 유일한 근본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라고 확신했다.

이것은 ‘임금을 시해한 것과 같은 죄’라는 억울한 죄목을 씌어 ‘아담 샬’에게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인 ‘지해(肢解)’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아담 샬’이 최종 판결을 받는 날부터 며칠에 걸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고, 북경 상공에 혜성이 나타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자 대신들은 모두 겁을 먹고 ‘아담 샬’과 3명의 선교사를 석방하게 된다. 결국 ‘아담 샬’은 석방되지만 고문 과정의 후유증으로 다음 해에 사망한다.[202] 이 사건으로 북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천주교 선교사들뿐 아니라 중국 전역의 선교사들이 체포당하고, 예배당이 봉쇄되고 관리 중 신자들은 관직을 박탈당하게 되며 천주교 선교와 교육이 전면 금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203]

천주교 자체의 갈등으로 야기된 사회·문화적 저항

마태오 리치는 선교의 접근방법은 현지화(Contextualization)를 많이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는 평소 유교 선생의 복장을 하고, 당시 중국의 상황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천(天) 혹은 상제(上帝)라고 중국인들의 사고를 기반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제사를 조상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마태오 리치의 선교 전략의 끝은 아니었다. 마태오 리치가 이끄는 예수회는 중국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하는 합유론(合儒論)으로 시작하여 유가를 보안하는 보유론(補儒論), 더 나아가 유가를 초월(超越)하는 초유론(超儒論)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가를 대신(代身)하는 대유론(代儒論)까지 단계적이고 치밀한 선교 전략을 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중국 선교 현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204]

하지만 이러한 점이 당시 천주교 안에서 중국 선교의 동역관계에 있던 도미니칸선교회와, 파리외방선교회, 프란체스코회의 맹비난을 받게 되고 이것을 ‘예의지쟁(禮儀之爭)’이라고 한다. 이 논쟁은 17세기 천주교 선교역사상 최대의

---

202 김영호, "기독교의 중국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선교신학* 40 (2015): 52.

203 김진보, “中國 儒家文化의 歷史的 變遷에 대한 哲學的 省察”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81.

204 우심화, "중국교회간사(簡史)," 270.

격론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도미니칸회와 프란체스코회는 예수회의 하나님의 호칭 사용 문제와 조상제사 허용 문제가 이단적인 방법이라고 하여 교황청에 수차례 고발하였고, 당시 교황 끌레르몽 11세는 예수회의 선교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두 차례나 판결하기에 이른다.

결국 이러한 교황의 공문을 받은 청(淸)황제 강희제는 강하게 반발하며 1705년 교황청의 특사인 샤를드투르몽을 구금하고 청조정의 규정에 따라 전도하겠다는 선교사들에게만 선교허가증을 주고 거부하는 선교사들은 모두 본국으로 추방하게 된다.[205] 당시 중국 황제인 강희제는 조상에 대한 제사와 공자(孔子)에 대한 존경은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기보다는 '문화'이자 '의무'였고, 천주교로 개종한 이들도 이것을 지키도록 강조했다. 하지만 로마 교황청은 강희제가 본질적인 교리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요구하며 천주교 신앙의 본질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강희제의 입장에서 보면 교황청의 요구는 당시 중국 황제의 절대 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고,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교황의 무오성과 교회의 교도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과 위협으로 이해하면서 교황과 황제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206]

결국 강희제가 죽은 이후 옹정제(雍正帝)는 1720년 교황청이 또다시 중국 선교에 대한 기존정책을 재차 강조하며 중국에 보내자 1724년 이후로는 모든 서양인이 중국에서 선교하지 못하도록 '금교령'을 내리게 된다. 이에 대응하여 교황 베네딕트 14세는 1742년 중국에 있는 모든 예수회 선교사들로 하여금 '예의(禮意)'에 대하여 금지시키고 1773년에는 '예수회'를 아예 해산해 버린다.[207] 결국 중국 곳곳에서 천주교 선교사들이 계파별, 지원국가별 경쟁[208]을 하면서 야기된 교황청과 중국황제 간의 마찰로 말미암아 중국 사회가 복음에 대한

---

[205] 이관숙, *기독교와 중국문화의 충돌* (서울: 쿰란출판사, 1997), 126.

[206]진상선, 30.

[207] 김진보, 80.

[208] 당시 예수회는 포르투칼이, 도미니칸회와 프란체스코회는 스페인이 지원을 하고 있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중국의 외교권과 무역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이 두 선교단체에도 파급되었다.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와 중국 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전체적인 박해를 일으키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역사에서 기독교 선교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 문화적 저항으로 분류된다.

명말(明末)·청(淸)나라의 저항 등에 나타난 시사점

선교의 저항은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다만 그것이 선교지의 상황과 특수성으로 인함은 이해되나, 그러한 저항과는 별개로 청나라의 선교에 있어서 로마 교황청 공동체 안의 갈등이 결국에는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 행위의 저항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마태오 리치(Matteo Ricci)의 선교전략은 타 문화에 대한 존중이었다. 가능한 상대방의 문화를 그들의 관점에 따라 이해하고, 존중해 줌으로써 서로 대립하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209] 이런 시각에서 보면 조상제사, 공자의 대한 공경, 하나님의 호칭 문제 등은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고 성인을 본받고자 하는 효(孝)와 보본(報本)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도미니칸(Dominicans)선교회나 프란치스칸(Pranciscans)선교회, 파리외방선교회와 같은 엄격하고 강경한 선교 노선을 취한 선교회들은 예수회의 '문화적응주의 선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전례논쟁'으로 발전하여, 교황청은 예수회의 활동을 모두 우상숭배로 간주하고 예수회를 해체하기까지 한다. 물론 중국인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공자를 공경하는 모습에서 기복적이고 다신교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황청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2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반성과 쇄신을 거듭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문화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 수용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변화시키기보다는 단죄의 길을 선택한 교황청의 이러한 결정은 아쉬움으로

---

[209] Moffett,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2*, 216.
[210] 김명희 162.

남는다.[211] 당시 교황청은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이 적고, 또 실제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점을 제시하기에는 여러 가지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명대(明代)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기 문화를 배격하는 어떤 종교나 단체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만큼 중국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자신들의 동양적 가치관으로 신의 존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강한 성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예의지쟁(禮儀之爭)'은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서 문화의 충돌', 더 나아가 '교황(敎皇)과 황제(皇帝)'라는 '왕권(王權)과 교권(敎權)의 충돌'은 천주교 선교역사에서 '사회, 문화적 저항'이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요약

제3장에서는 중국의 원(元), 명(明), 청(淸)나라의 기독교 선교역사를 살펴보면서 이시기 기독교 선교가 받았던 저항과 쇠퇴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토착종교의 저항으로 원(元)조정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나날이 세력이 확장되었던 경교는 원(元)나라의 토착종교라 할 수 있는 도교와 불교의 견제와 저항을 받게 되었다. 이 일을 대표적으로 주도했던 사람은 바로 불교 신도였던 조맹조(趙孟頫)였다. 당시 원 인종(仁宗)은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 조맹조의 상소를 받고 경교(景敎)의 대표적인 7개 교회 중 하나인 '십자사(十字寺)'를 불교 사찰인 '금산하원(金山下元)'으로 고쳐 불교소유지로 환원하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경교를 환대하는 것과는 다른 분위기의 원나라의 종교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원왕조의 적극적인 지원을 의지하며 성장했던 경교는 급속한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212] 여기서도 토착종교의 저항이 정치적 저항으로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11] 김영웅, 196.
[212] 王治心, and 전명용, 194-95.

두 번째는 '안으로부터' 즉 같은 기독교 선교사들 간에 불화와 갈등에서 저항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먼저는 원(元)나라에서 경교(景教)와 천주교(天主教)의 갈등과 불화다. 기독교의 두 교파는 몽골족이 세운 원(元)조정의 환영을 받고 '인간에게 빛을 준다'. 혹은 '복을 받은 사람'이란 뜻을 가진 '예리커원-也里可溫'이라는 이름을 함께 부여 받고 승복사(僧服寺)의 지원 하에 활발히 선교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천주교는 경교에 대하여 늘 이단으로 규정하고 비방하며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았다. 경교 또한 천주교보다 먼저 중국선교를 시작하였기에 천주교를 후발 주자로 경시하며 경교도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천주교 교회당을 짖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213]

이러한 기독교 계파 간의 내부적인 갈등은 청(淸)나라에서 천주교의 예수회와 프란체스코선교회와 도미니칸선교회 간의 갈등으로 반복, 심화된다. 당시 청나라에서 중국선교는 예수회가 선교지를 완전히 장악했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스페인의 지원을 받고 있던 프란체스코회와 도미니칸선교회와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고 있던 예수회의 선교방법을 두고 전례 논쟁을 벌인 것은 당시 중국의 해상 무역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포르투갈과 스페인 간의 식민지 이해관계에서 기인한다.[214] 후에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파리외방선교회마저도 이 갈등에 개입하였다. 또한 프란체스코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회보다 중국선교의 기반을 먼저 닦은 선교사는 원(元)나라 시대 프란체스코회 소속의 '몬테코르비노'였다는 사실을 보면 이들의 갈등의 근본 원인이 얼마나 정치적, 계파적 이권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알 수 있다. 결국 원(元), 청(淸) 시대 중국선교의 실패는 안으로부터, 즉 기독교 종파 간에, 같은 선교단체들 간의 갈등과 불화에서 비롯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저항의 형태와 원인은 '사회·문화적 저항'이다. 앞서 우리는 17세기 명말(明末), 청초(淸楚)시기에 마태오 리치와 예수회 선교사들은

---

213 서양자, 85.

214 Moffett,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2*, 216.

적극적으로 중국의 문화와 사회를 존중하며, 복음을 본질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적응 주의 선교의 방법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였고, 이에 대한 중국의 고위관리들을 비롯한 지식인층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중요한 선교적 성과도 이루어 냈다.[215]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마태오 리치' 사후 천주교 공동체 간의 세력다툼은 기독교(基督敎)와 유교(儒敎)의 상이한 두 종교와 문화 간의 사회·문화적 충돌로 발전하였다. 당시 예수회는 문화적응주의 선교정책을 두고, 프란체스코와 도미니칸선교회는 이러한 예수회의 '중국문화 수용 선교정책'을 나약하고 비(非)기독교적인, 이방종교와의 타협으로 규정하였다.[216]

결국 로마 교황청은 중국의 예속과 사회 특징을 무시한 채, 프란체스코와 도미니칸 선교회의 손을 들어주고 중국의 사회와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선교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천주교 선교에 대한 중국의 사회 문화적 저항은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되었고 이는 곧바로 1721년 중국황제의 '기독교 금지령'이 반포되고, 각 수도회는 모두 청나라 밖으로 추방당하게 되는 '정치적 저항'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로마 교황청은 그동안 150년에 걸쳐 어렵게 개척하여 얻은 선교 성과를 거의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217]

이 시기에 발생한 '전례 논쟁'에 관하여는 지금까지도 선교신학적으로 격렬하게 논의되고 있기에 어느 한쪽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어느 쪽이 완전히 옳다고 할 수는 없다.[218] 하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기독교 신앙이 중국의 지식인 계층과 사회 인사의 존중을 받았고, 중국인 교인이나 전도자를 사회 사각지대의 비천한 사람 정도로 여기던 당시 중국사회의 관념을 벗어 버리게 했다는 것은[219]

---

[215] 김혜경,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2), 277.

[216] Moffett,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2*, 221.

[217] 곽정복, 48.

[218] Moffett,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2*, 232. 이 논쟁은 후에 '적응화'-'본색화'-'상황화'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구의 많은 선교에 대한 글들은 예수회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우세하지만 제3세계의 교회 확장에 있어서는 적응을 반대한 교황 쪽에 가깝기도 하다. 왜냐하면 오랜 종교로부터 나온 개종자들에게 적응이라 불리는 것과 무비판적인 혼합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19] 안재은 361.

선교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중국 현지 수도사를 배양하고, 갖은 박해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기다리고, 현지 문화를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존중했던 사역은 현대 중국선교에도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제4장

청말(淸末) 및 중화인민공화국 시대 개신교(改新敎)선교와 그에 대한 저항

개신교(改新敎)가 천주교(天主敎)보다 선교역사가 짧은 이유는, 개신교 자체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발생하였고, 100년 정도 자리를 잡는 시간을 거쳐 17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개신교의 해외선교가 시작 단계로 진행된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천주교는 이미 원(元)나라에서부터 중국선교를 시작하였기에, 천주교(天主敎)와 개신교(改新敎)의 선교역사를 비교하기는 무리다.[220]

개신교(改新敎)의 중국선교의 배경을 정리하면 먼저 천주교(天主敎)의 선교가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쇠퇴기에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배경은 천주교의 해외 선교의 주요 후원 세력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제적 입지가 약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천주교 선교도 약화되었다. 반대로 종교전쟁을 거치면서 개신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신흥 신민지 세력에 가담하여 개신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221]

이 장에서는 본격적인 세계선교를 시작하는 개신교(改新敎)의 중국 선교역사를 살펴본다. 특히 청(淸)나라 말에서부터 1949년 중국공산정권의 수립 전까지 근대(近代) 개신교 선교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저항 사건인 반기독교(反基督敎)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저항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수립 이후 개신교 선교에 대한 저항을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개혁개방' 시기로

220 Moffett,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2*, 407.
221 안승오, 169-70.

나누어 개신교(改新教) 선교에 대한 저항의 원인과 형태를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말(清末)-1949년 개신교의 중국선교와 저항

개신교의 중국선교 시작 역사는 1807년 영국 런던선교회 소속 파송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이 중국으로 파송되어 온 것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특별히 1807년부터 중국이 공산화되는 시기인 1949년까지의 개신교의 중국 선교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222]

1807년-1860년: 선교 준비시기

1861년-1911년: 교회 건설시기

1912년-1948년: 교회 발전시기

선교 준비시기: 1807년-1860년

당시 청(淸)정부는 '폐관(閉關: 외국과 조약을 폐함)', '금교(禁教: 선교금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역대 한족(漢族)왕조보다 더 철저히 숭유·존공(유교를 받들고, 공자를 존경함)의 문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에 파송된 모리슨 선교사는 중국의 본토 땅을 밟을 수가 없었다. 중국에서 머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그는 먼저 아편 무역 밀매로 악명이 높은 동인도회사 직원의 신분으로(통역원: 1808년 11월-1833년 12월), 후에는 영국의 상무 감독 네피어(W. J. Nepier)의 중국어 비서 겸 통역관 신분으로 '광동십삼행'에 거주하며 선교사역을 타진하였다.[223]

222 우심화, "중국교회간사(簡史)," 271.

223 王治心, and 전명용, 217.

로버트 모리슨의 선교 (해안 선교시대)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马礼逊, 1782-1834)의 중국선교의 가장 큰 공헌은 '성경번역'과 '문서사역'이었다. 광저우(广州)에 머물게 된 그는 미국 상인의 화물 창고에서 한자를 배우고 중국 풍속과 습관을 연구하였다. 물론 그의 번역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죠수아 마쉬맨(Joshua Marshman)의 중국어 성경번역본이 있었지만, 번역의 표현이 불완전하여 그의 선교 열정을 기리며 문학적인 기념물로만 여기고, 일반적으로는 모리슨의 번역을 중국어 성경번역의 첫 작품으로 인정한다.[224]

그는 1810년에 '신약과 사도행전'을 번역하고 1813년에는 '신약전서'를 완역 발행한다. 1819년에는 밀네(Milne)[225]와 힘을 합하여 '구약성서'를 완역하기도 한다.[226] 이러한 모리슨의 '신·구약 중국어 성경'은 비록 처음으로 번역된 중국어 성경은 아니지만, 아시아 기독교에 미친 영향면에서 이전의 모든 성경번역본들을 능가하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사용하는 성경전서가 되었다.[227] 또한 그는 '신도논속구세총설진본' (神道論贖救世總說眞本), '문답천주예수구법' (問答淺注耶穌求法) 등의 기독교 교리와 관련된 서적도 펴낸다.

그러나 왕성한 문서 선교 활동과 성과에 비하여 이 때의 전도 활동은 중국인의 냉담한 반응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 오로지 그가 성경 번역과 기독교 서적을 번역 출판함으로써 이 일에 함께 동참했던 중국인들과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뿐이다. 물론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에 머문 27년간 10명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전부였지만, 그들 가운데 중국 최초의 세례교인이 된 '채고(蔡高)',[228] 그 후엔 첫 개신교 중국인 목사로 '권세양언「勸世良言」'을

---

224 안승오, 245.

225 모리슨의 동역자 요청으로 런던선교회에서 1812년 윌리엄 밀네(William Milne)를 파송했다.

226 Stephen Neill, 홍치모, and 오만규, *기독교 선교사* (서울: 성광문화사, 2006), 347.

227 Moffett,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2*, 457.

228 이병길, *로버트 모리슨*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138. '1814년 세례'

지었던 ‘양발’(梁發)[229]과 같은 개신교 중국 선교의 굵직한 인물을 배출하였다는 것을 통하여 로버트 모리슨의 문서 선교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알 수 있다.[230]

로버트 모리슨의 주된 사역은 말라카(Malacca)의 선교기지인 영화서원(英華書院)에서 중국 최초의 서양식 교육제도로 인재를 양성하고 여기서 15명이 세례를 주었으며, 영화서원 안에 인쇄소를 설립하여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10여 권의 신앙서적을 간행하는 것이었다. 모리슨은 이렇게 성경, 전도를 위한 ‘문서선교’를 통하여 기독교 진리를 중국인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상황화하는 선교 전략을 펼쳤다. 결국 모리슨 이후에 런던 선교회로부터 파송되어 온 다른 선교사들도 모리슨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이 외부에 개방될 때까지 언어 연구와 문서 보급에 주력하였다.[231]

그 밖에 해안 선교시대에 활동하던 개신교 선교사들 중 의료선교사 파커는 1834년 미국에서 중국으로 파송되어 1835년 광주에 ‘박제의원’을 세워 중국에서 첫 개신교 의료선교 사역을 전개하였다. 그 밖에 십여 명의 선교사들은 중국 내력으로 선교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홍콩, 마카오 등 국제 항구가 있는 해안지역에서 선교활동을 벌였다.[232]

같은 해 1853년 미국 북장로회의 파송을 받은 존 네비우스(John L. Nevius 倪維思, 1829-1893) 선교사는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중국 선교활동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특별히 그는 중국에서 삼자정책을 주창(主唱)하였는데, 첫째가 자립(自立, Self-Supporting)으로 중국인 신자들이 스스로 예배당을 마련하고, 외국선교사에 의존하지 않고 목회자의 사례비를 지불하도록 한다. 둘째는 자치(自治, Self-Governing)로, 중국인이 주인이 되어 현지 교회의 치리권(治理權)을 가진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전(自傳, Self-Propagating)으로 먼저 믿은 성도들이

---

229 중국인 최초의 개신교 목사

230 한동훈, 27.

231 이병길, 138.

232 우심화, "중국교회간사(簡史)," 272.

교회를 위하여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교회를 세우고 중국인 스스로 교회를 조직하고 재생산하도록 한다.[233] 네비우스(Nevius)는 중국교회를 지적(知的), 정치적(政治的), 문화적(文化的)으로 서구의 제국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다는 점에서 당시 독특한 선교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당시 이웃 조선의 장로교 선교사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234]

개신교 해안선교시대의 저항의 형태와 원인

로버트 모리슨의 해안 선교시대의 저항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모리슨이 중국 사역을 시작하기 2세기 전인 명말청초(明末清初) 시기부터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 중국 천주교(天主教)의 적대감과 방해다. 모리슨이 중국에 도착하기 전, 1805년 이후 청조는 중국에 온 천주교회의 선교활동에 대하여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신교의 모리슨보다 먼저 들어와 사역을 해온 천주교 신부들은 모리슨의 중국 입국에 대하여 극심하게 반대하였다.[235] 그들이 모리슨의 입국을 반대한 이유는 자신들이 중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선교적 위기 속에서 모리슨과 같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중국선교 확장에 대한 위기의식과 질투심으로 기인하며 이로 인하여 천주교 선교사들은 모리슨이 광주에 거주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까지 하였다.

이것은 천주교가 개신교의 중국선교를 기독교의 동역자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최대한 모리슨과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하여 저항하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기독교의 말씀에 대한 해석의 방법이 달랐다. 천주교는 주로 원칙 고수주의로 성경 자체를 하나님이 말로 보고 의혹없이 수용한 반면, 개신교는 성경 중 불합리한

---

[233] 진상선, 34.

[234] 네비우스 선교사는 1890년 선교사역 37년을 맞아 안식년에 귀국하던 중 조선의 제물포항에 도착하여 장로교 선교사들과 2주간 자신의 선교전략(Nevius Plan)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전략이 한국 장로교 선교사에 의하여 채택되어 한국에서 네비우스 선교정책이 시행되었다.

[235] Neill, 홍치모, and 오만규, 296.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상 전달 혹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아야 한다는 견해였기에 중국 현지에서도 빈번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다.[236]

두 번째 저항의 형태는 영국 동인도회사와 중국 청나라의 불평등 조약으로 인한 '사회 문화적인 저항'이다. 사역 초반 모리슨은 자신의 조국인 영국의 대(對) 중국 외교에 적극 관여했는데, 이는 정치와 외교활동이 선교사업의 확대에 유용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820년부터 1835년까지 중국의 아편 중독자는 36만 6천 명에서 204만 명으로 급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중국은 '칙령'을 통하여 남아시아로부터 오는 서양배들이 아편을 공급하는 것을 근절하려고 노력하였고, 아편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영국 동인도회사의 '자유무역 요구'가 충돌함으로써 첫 번째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영국의 승리로 인하여 영국은 홍콩을 할양받게 된다.[237]

14년 후 '태평천국의 난'이 시작된 중국 남부 내륙의 광서성(廣西省)에서 프랑스 사제가 고문을 받고 처형되자, 프랑스가 영국과 함께 연합하여 '2차 아편전쟁'이 발생한다. 그 결과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개항장 밖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항구들이 개항되었다. 이때부터 중국의 어느 곳에서든지 외국인과 중국인 모두 전도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238] 하지만 전쟁에 패한 중국인의 입장에서 개신교 선교사 모리슨은 자본주의 열강의 중국 침략을 위한 선전 인물로 평가받는 치명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다. 비록 모리슨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서 중국에 들어와 복음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주목하지만,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서양 제국주의를 위하여 일한 사람이라는 개신교(改新敎)에 대한 사회·문화적 저항 인식이 싹트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239]

---

236 王治心, and 전명용, 222.
237 Moffett,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2*, 478.
238 Moffett,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2*, 478.
239 한동훈, 19.

구체적으로 1840년 제1차 아편전쟁의 발발은 서구의 무력으로 중국을 개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842년에는 '남경조약: 南京條約'(광주, 복주, 하문, 영파, 상해를 개방)이, 1844년에는 '망하조약: 望夏條約'(개항장에 예배당과 의원을 개설할 수 있음), 1858년에는 '천진조약: 天津條約'(외국인의 여행자유와 기독교의 중국 내지에서 포교의 자유가 주어짐), 1860년에는 '북경조약: 北京條約'(선교사들이 토지를 구입하여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됨) 등과 같은 중국측에서 볼 때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 조약문에는 반드시 선교자유의 6조항을 삽입하여 이 조약을 체결한 나라의 선교사들은 여권만 소지하면 지방을 순회하면서 선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방관리들은 선교사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모리슨(Morrison)'과 '귀츨라프(Gutzlaff)' 등 당시 기독교 선교사들이 불평등 조약의 체결과정에서 통역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240]

이렇게 개신교의 중국선교에는 큰 전환기가 되었지만, 이것은 모두 서양의 함포와 강압에 의한 불평등 조약을 의지하여 선교사역이 열린 것이다. 당시 거대한 중국을 사랑으로 점령하지 못하고, 총과 함포와 아편이라는 마약을 사용하여 점령하였다.[241]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양제국주의의 중국침략자의 도움꾼이 되거나 그 뒤를 따라 들어갔기에 오늘날까지도 중국 국민들의 뇌리에 '기독교(基督教)'가 '침략전쟁', '아편 판매', '식민지 통치'라는 의미와 연계되었고 이후 중국 사회에서 반제국주의 운동과 함께 개신교 선교 행위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심각한 사회, 문화적 저항으로 이어지게 되었다.[242] 불평등 조약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240 이병길, 249.
241 한동훈, 38.
242 김광성 52.

<표 1>

중국 불평등 조약의 기독교 관련 조항

체결 나라	조약이름과 연도	개신교 선교 관련 조항
영국	남경조약(1842)	외국인으로서 선교사 개항장 입국 가능
영국	하문조약(1844)	내지활동 선교사들의 신변 보호
미국	망하조약(1844)	개항장 교회건축으로 종교활동 가능
프랑스	황포조약(1844)	교회건축, 의료, 자선선교 가능 교회학교 운영가능 선교사들의 내지활동 시 신변보호 중국인과 접촉 허락
영국 **프랑스** **러시아**	북경조약(1860)	선교사의 토지구매, 교회당 건립 인정 교회재산 증가 및 자유로운 선교활동 보장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천진조약(1858)	동방정교회 내지 선교권 인정 개신교 선교권 인정

태평천국(太平天國) 운동의 발생과 의미

1851년부터 1864년 사이에 '홍수전(洪秀全)'의 주도 하에 일어난 태평천국 운동은 오늘까지도 사학계를 시작으로 신학계까지 재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43] 당시 아편전쟁을 계기로 중국 사회의 혼란은 가속되고, 청조(淸朝)의 무능함은 전 중국인들에게 무력감과 민족적 자존심에 큰 손상을 입혔다. 여기에 당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감소와 지방정부의 부패한 관리의 횡포가 봉기의 잠재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수전은 '배상제회(拜上帝會)[244]'라는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비밀 결사를 결성하였다.

1847년 그는 두 달 동안 침례교 선교사인 로버츠 목사에게 성경과 기독교의 예절, 의식, 교회 조직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다.[245] 하지만 그가 진실한 침례를

243 김석주, "중국문화에서 맹아된 홍수전의 태평 기독교," *인문사회 21* 7, no. 1 (2016): 329.
244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임이라는 뜻.
245 진미수, 27.

받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만을 품고 그의 집을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전의 마음에 성경 구절들과 이미지들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의 회심과 소명을 그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하나님인 하늘의 아버지와 그분의 장남인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늘 태평의 아들'로 임명하여 악한 자를 없애고 의로운 사람을 보전하고, '유교의 잘못을 드러내고', '불교의 악마들을 몰아내고', '북경에 있는 황위를 강탈한 만주족 황제를 자리에서 몰아 내도록' 소명을 받았다고 설명한다.[246]

이후 사회적 불만이 많았던 가난한 객가인(客家人)[247] 등 약 3천여 명의 신도를 모아 자신을 태평천국의 천왕으로 선포하고 10계명에 의거한 10개 조항의 계명도 만들었다. 태평군의 봉기는 계림(桂林), 장사(長沙), 악주(岳州), 무창(武昌), 한구(漢口)를 점령하고 3년도 되지 않아서 남경(南京)까지 공격했으며 1만 명도 되지 않던 부대가 100만 대군이 되었다. 1853년에는 남경에서 정식 정부를 성립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태평천국의 영향을 받아 북방농민 혁명의 주력인 염군(捻军), 묘족(苗族) 봉기, 운남(云南)성의 여러 소수민족의 봉기, 회족, 신강 등 민족들의 저항 투쟁이 1876년까지 지속되었다.[248]

또한 홍수전(洪秀全)의 후계자인 '홍인간(洪仁玕)'[249] 은 당시의 기독교 선교사와의 만남, 서양 과학서적의 탐독 등을 통하여 서양의 기독교 사상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졌다. 홍수전과 홍인간은 단순히 기독교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가 아니라, 기독교의 합리적인 체계와 올바른 종교신앙의

---

246 Moffett,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2*, 481.

247 원래는 황하강 북부에 살았으나 서진 때부터 전란을 피해 지금의 광동성, 복건성, 강서서 등의 산간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동남 아시아와 세계각지로 이주하였다. 장운, "동아시아 객가인, '밑으로부터 만들어진' 공동체 이루다," 한겨레, last modified August 12, 2021, accessed March 5, 2023, https://www.seouland.com/arti/culture/culture_general/8647.html.

248 Zhener, 45.

249 홍인간(1822-1864)은 광동성 회현 출신으로 태평천국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며 홍수전의 사촌동생이다. 사촌 형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에 심취하여 배상제회를 창설한 초기 핵심적 구성원이다. 태평천국운동의 사상적 기초를 닦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현민, "청말 반란의 시대…태평천국의 난, 중국 뒤엎다," 아틀라스뉴스, last modified January 29, 2020, accessed March 12, 2023, http://www.atlasnews.co.kr/news/curationView.html?idxno=1619.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사회를 이루려고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250] 실제로 이들은 무려 10년간 중국 남부의 핵심 도시인 남경(南京)을 장악하는 저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태평천국운동'은 중국 안에서 실제 시도되고, 설립된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고 스스로 여겼지만, 예수의 신성은 부인하고 삼위 일체를 부정하는 등 기독교 교리를 훼손하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서양제국으로부터 적대적 존재가 되고 당시 관군과 함께 서양 군대의 공격에 밀려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251] 하지만 이들은 반봉건과 반자본주의 침략의 두 가지 임무를 부담하여 청나라의 통치를 흔들었으며, 중국역사 최초로 중국의 봉건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개신교(改新敎) 신앙에서 찾으려 했던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교회건설 시기: 1861년-1911년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의 기독교 선교역사는 당(唐)-원(元)-명(明)-청(淸)대를 거치면서 모두 황제(皇帝)의 윤허와 관용 하에 허용되어 왔고, 이는 지도층의 변화에 따라 성장과 쇠퇴를 거듭하였다. 18세기 '전례논쟁(礼仪之争)' 이후 청의 '금교령'에 따라 100년간 중국 선교는 공식적으로 자취를 감추었다가 아편전쟁과 서구 열강과 잇따라 맺어진 불평등 조약(条约)으로 인하여 기독교 선교는 다시 공식적인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남경조약'에서 개신교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이 삽입되고, 개신교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관점에서 불평등 '조약의 비호' 아래 중국 선교와 교회 개척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였다.[252]

당시 유럽과 미국 등지의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파송되어 중국어 습득과 성경번역 등에 기반을 닦은 선교사들은 이미 확보된 5개의 개항장(광주, 하문, 복주, 영파, 상해)을 거점으로 중국 내 여러 도시에서 교회, 학교, 병원 등을 세우며 선교

250 김의경, "洪仁간과 太平天國"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1985), 27.
251 진미수, 28.
252 박승수, 89.

활동을 전개하였다. [253] 하지만 당시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의 '중국 내지선교회(China Inland Mission)'는 해안의 5개 지역근처에서만 사역을 하였고, 멀리 떨어진 내륙지방에는 아직 단 한 명의 개신교 선교사도 들어가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내지 선교시대)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戴德生:1832-1905) 선교사는 이전 시기의 중국선교는 내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펼쳐졌을 때, 그러한 한계를 초월하여 중국 내지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으며, 탁월한 선교의 방법으로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254] 내지선교회의 전개과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856년 절강성(浙江省), 1867년 강소성(江蘇省), 1868년 섬서성(陜西省), 1869년 안휘성(安徽省), 1874년 호북성(湖北省), 1877년 산서성(山西省), 사천성(四川省), 귀주성(貴州省), 1878년 감숙성(甘肅省), 1879년 산동성(山東省), 섬서성(陜西省), 1881년 운남성(雲南省), 1884년 하남성(河南省), 1901년 호남성(湖南省), 1908년 신강성(新疆省)에 이르기까지 중국 본토의 전국적으로 선교활동이 재개 되었다. 1900년초에 이르러는 중국의 2,785명의 개신교 선교사 중 4분의 1이 넘는 선교사들이 중국 내지선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었다.[255] 이는 중국 선교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남긴 역사적인 일이다.[256]

'허드슨 테일러'는 21세의 나이로 중국 복음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1854년 상해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그는 대학졸업장도, 의사면허도 없었기에 오로지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열심히 공부하였고 배를 타고 양자강 입구를 순회하면서

---

[253] 김화평, *중국교회사* [(A)history of the Chinese church] (서울: 모리슨, 2003), 143.

[254] Ralph D. Winter et al., *퍼스펙티브스* (고양: 예수전도단, 2010), 720.1권

[255] Moffett,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2*, 718. 1913년 CIM은 1,040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였다.

[256] 전신영, "반(反) 기독교 상황 속 허드슨테일러의 중국선교전략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39.

전도의 경험을 쌓게 된다.[257] 하지만 지병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의학공부를 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중국에 돌아온 그는 중국인과 똑같이 변발을 하고, 중국식 복장을 입고 시골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당시 주변 선교사들의 비난과 영국의 후원단체에서도 원조를 단절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모든 생계는 하나님이 채워 주심을 믿고 후원자 없이 독립 선교하는 '페이스 미션(Faith mission)'의 틀을 잡는 계기가 된다.[258]

이것이 계기가 되어 '중국 내지선교회(China Inland Mission)'가 설립되었고, 1865년 '중국의 영적필요와 간구'라는 중국선교의 절박성을 조리 있게 호소한 호소문을 유럽전역과 미주지역에 보내어 1천여 명의 선교사가 배출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교회를 건축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많은 지방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후원 단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Faith Mission)을 가지고 선교에 임하였다. 그의 선교 방식은 '삼중(三重)'의 접근방법을 개발하여 진료소, 학교, 복음전도소를 세워가며 통전적인 선교전략 방식을 추구했다. 그리하여 그가 사망할 당시 중국 내지선교회는 중국 18개성에 825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였고, 300여 선교지에 500명 이상의 중국 현지인 협력자들과 더불어 12만 5천 명의 회심자를 양육하게 된다.[259]

아울러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선교적 사건인 '중국 내지선교회'는 일찍부터 선교를 위해 능력 있는 중국인 동료들과 함께 사역함으로 1880년에는 중국인 동역자의 수가 외국선교사들의 수를 약 100대 96으로 앞지르기까지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 내지선교회와 함께하는 중국인 동료들은 서양 선교사들보다 더 넓은 지역을 유능하게 관리하였고, 이후에 이들을 통하여 중국선교사역의 중심이 '서양'에서 '중국지도자'로 지도력이 전환되는 것을

---

[257] 곽정복, 58.

[258] Howard Taylor, 오진관, and Geraldine Taylor, *허드슨테일러의 생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177.

[259] 박승수, 66.

보여줌으로 [260] 향후 중국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귀한 사역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내지선교시대의 저항의 형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하던 당시 중국의 상황은 1842년 '아편전쟁'과 1850년 '태평천국의 난', 1900년 '의화단 운동'과 같은 '반(反)기독교 운동'이 시작된 시기로 반외(反外) 감정은 나날이 고조되고 외국인들에 대한 보복 행위 역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추세였다.[261] 불평등 조약 체결 이후 개신교(改新敎)는 중국과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특별히 서양 제국의 정치·경제 침략과 맞물려 아래와 같은 반(反)기독교 저항운동이 발생하였다. 이 기독교 선교사회와 민중 간에 충돌을 '교안(敎案)'이라고 부른다. 이 교안(敎案)의 대체적인 배경에는 사회·문화적 저항의 형태인 반(反)외세에 따른 반(反)기독교적 정서가 강하게 깔려 있다.[262] 대표적인 교안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주요 교안 내용

교안 이름	연도	주요 내용
천진교안(天津教案)	1870	교회의 영·유아 유괴에 대한 소문이 도화선이 되어 군중이 교회를 습격하였고, 이에 서양 7개국 함대가 출동하여 마찰을 빚게 됨.
거야교안(巨野教案)	1897	독일의 산동지역 항주에 조차를 요구하자 이에 반대하는 거야교안이 발생. 결국 신부 2명이 살해되어 독일은 산동성을 강점함.

260 Moffett,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2*, 724.

261 곽정복, 60.

262 전신영, 21.

의화단 운동 (义和团运动)	1900	청말 독일이 산동지역을 점령하자 '의화단'이라는 민간 결사 단체가 반외세, 반기독교운동을 전개함. 이 사건을 통하여 135명의 선교사와 53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살해를 당하게 됨.

이러한 교안(教案)의 결과로 기독교와 중국사회는 둘 다 피해가 심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이 시기 개신교 선교사 188명이 사망했고, 교인 사망자는 5,000여 명에 달한다. 중국사회도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함락하였고, 10여만 명의 중국인이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서구열강과 중국정부와 맺은 '신축화약(辛丑和約)'에서 중국은 4억 5천만 냥[263] 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을 열강에게 지불해만 했다. 이는 전국 국고의 5년간 수입과 맞먹는 금액이었다.[264] 이렇게 근대 중국 개신교 선교 중에 발생한 '교안(教案)'들은 이 시기 개신교(改新敎)를 대하는 민중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저항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민중의 봉기를 겪으면서 중국인들은 기독교를 서구 식민국가의 침탈 이미지와 동일시하게 되고, '반(反)외세'는 곧 '반(反)기독교'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역사는 교훈이 되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265]

내지선교시대 개신교 선교에 대한 저항의 원인

1854년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올 때, 그를 파송한 영국의 '중국복음선교회(CES)'[266]는 황당무계한 계획을 세우고 그를 파견하였다. 허드슨 테일러가 파송 될 당시 개신교 선교사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 관념을 경시하고

---

[263] 50년간 나누어 납부하되 정부의 주요 3종의 세수 중 2종인 염세와 관세가 차압당함.

[264] 량자린(梁家麟), 124.

[265] 차경애, "의화단운동과 제국주의열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127.

[266] '중국복음선교회'는 중국인 복음화 협회'라고도 표현한다. (CES: Chinese Evangelization Society)

무조건적으로 개신교를 중국인에게 심으려고 한 것이다.[267] 그들은 중국의 개인은 중요시하지만, 중국 전체사회의 구조나 잠재력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특별히 중국의 종교나 윤리, 철학, 경제, 풍속, 습성, 가족, 사회조직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거나 좋아하지 않고, 상관하지도 않았다. 결국 중국의 조상숭배와 효행을 완전히 오해하였고 공자의 유가학설을 민간 미신과 결부시키려 하였다.[268] 이러한 자세는 이미 270년 전에 선교사역을 하던 마태오 리치의 사역보다도 못한 선교 전략이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중국의 지주와 세농, 관원과 백성, 선배와 후배, 혈통·친속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자신들만의 전략을 짜서 중국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그리고 이미 파송된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들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수정된 선교전략을 꾸리지 않고 비난으로 일축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옷을 입고, 변발을 하며 현지인과 하나되는 것을 당시 상해 외국인 거주 지역에 무리 지어 살고 있던 서구 선교사들이 배척한 일이다. 그들은 테일러의 선교 방식이 외국인의 자긍심을 해치는 것이고, 선교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비난하였다. 심지어 테일러가 세운 내지선교회 내부에서 니콜 부부와 그에 동조하는 몇몇 선교사들도 반발하며 선교회에서 탈퇴했을 정도다. 결국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기독교가 서양 문화의 옷을 입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269] 이러한 풍조는 당시 기독교는 현지인에 의한 자립보다는 서양의 선교단체, 교파의 선교사에 의해 주도되어 서양 의존적이며 그 영향 아래 놓이게 함으로써, 중국교회가 토착화된 교회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현지화를 철저히 무시한 선교사의 태도와 행위는 결국 중국선교에 있어서 커다란 저항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 중에서 가장

---

267 전신영, 41.
268 박승수, 37.
269 전신영, 72.

괄목할 만한 것은 지혜로운 토착화를 고수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중국식으로 옷을 입고 머리를 변발하고, 중국 내륙의 집에서 살며, 중국 말로 복음을 전하며 일관되게 사역하였다. 이런 그에게 토착화의 원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전도의 순수한 수단이었다. 단지 선교사가 중국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지에서 사역하는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테일러의 사역에서 토착화 고수는 오로지 복음 전도의 효율성을 위한 차원이었다.[270] 결국 철저히 중국 사회를 이해하고 지혜로운 토착화를 시도하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끄는 '내지선교회'가 이후 20세기 중국에서 가장 큰 선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교회 발전 시기: 1912년-1949년

1912년 중국 대륙에서는 2천여 년간의 전제군주제가 막을 내리고 중화민국(中華民國)이 수립됨으로 기독교는 합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 기독교 신자는 서양 선교사의 비호를 받으며 '반민교민'에서 '국민'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 청말(清末)에는 중국인 신자가 자력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할지라도 법률상 토지를 구매할 수 없고, 외국 선교회의 이름을 빌려 세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화민국(中華民國) 이후 중국인과 외국인 모든 인사가 전도, 출판, 교육, 의료, 사회 복지 등 전 사역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5.4사건이 발발한 후,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정치화되어 각종 정치조직과 단체를 결성하고 자신들이 신봉하는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했다.[271] 그중 1921년 결성된 '중국공산당'은 이후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비록 중화민국 초에 군벌의 항거와 전란, 북벌, 중국 공산당과 소비에트 정권의 출범, 중일전쟁, 국·공내전 등을 겪었지만, 법률적, 사상적, 사회적으로 선교사와 중국인

---

[270] 전신영, 73.
[271] 량자린(梁家麟), 150.

전도자들은 이전에 없을 정도의 선교의 자유를 누렸다. 이것은 그만큼 중국교회의 진일보한 발전을 가져왔다.[272]

반면 청·일전쟁의 패전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서구 열강들에 의한 경제 침탈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세기말 '반(反)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19세 말과 20세기 초 중국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한 것은 기독교가 전통적인 중국의 가치관에 위배되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새롭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현대과학과 상충되었기 때문이었다.[273] 이렇게 중국 학계와 사회에 서양의 '무신론(無神論) 사상'이 급속하게 퍼짐으로 반(反)기독교 운동이 발발하게 되는 사회 심리적 기초가 되었다.

교회발전시대의 저항

1922년에서 1927년 사이에 중국 전역에서는 학생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잇따라 설립되어 '반(反)기독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 운동을 주도한 지식인과 학생들은 기독교를 제국주의의 앞잡이요, 문화의 침략자라고 매도하며 선교사, 전도사, 교회, 기독교 학교와 병원 등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였다.[274] 특별히 '5.3사건'과 '6.23사건(沙基惨案)'은 각각 상하이와 광저우의 외국 조계지에서 발생했는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외국군대에 의한 중국 양민들의 참변소식을 들은 중국인들이 전국에서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조직을 만들고 서구열강 제국들을 향하여 분노와 멸시를 퍼부었다.

그리고 이러한 외세에 대한 공격은 외세와 동일시되었던 개신교와 천주교로 향하였다. 이렇게 반(反)기독교, 반(反)종교 운동이 전개되면서 이에 자극을 받아 출판물, 강연회 및 데모 등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들의 주도로 일어난 기독교 반대 이슈는 '종교'가 '과학'을 반대하는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다.[275]

---

272 우심화, "중국교회간사(簡史)," 284.
273 Moffett,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2*, 759.
274 김광성 53.
275 이관숙, *중국 기독교사*, 466.

이러한 기독교 선교에 대한 사회 문화적 저항의 시기에 주목할 점은 바로 중국교회의 '자립운동(自立運動)'이다. 1910년에 '민남장로회(閔南長老會)', 화중(花中)의 '중국예수교자립회', 화북(華北)의 '중화 기독교회' 등이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를 통하여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중국교회의 자립을 촉진하고 '토착화 교회'로 나가도록 작용하여 기독교가 중국인들의 기독교로, 기독교 신앙이 중국 고유의 문화와 융화하여 기독교 예의가 중국인의 풍습에 적용되도록 노력하였다.[276]

또한 이 시기 '본색화 운동(本色化運動)'이라는 기독교 토착화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것은 '반(反)기독교 운동'이라는 정치-사회적 움직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는데, 18세기 이전 중국 기독교는 정치 지배계급의 의존성으로 인해 그 존폐가 종종 위험에 처해 있던 것에 반하여 '본색화 운동'은 '반(反)기독교 운동'에 의해 추종되어 일어나 스스로 토착화의 길을 찾아 나간 것이다.[277] 특별히 5.3사건을 통하여 중국 기독교가 외국 선교사회로부터 '자립(自立)'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278]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 기독교 교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선교사의 의견과 부합하게 행동해야 했지만, 이후로는 주체세력이 중국인들로 점차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1926년 이후부터는 국민당과 북벌군의 합작과 함께 외국 선교사 살해, 미션학교 폐쇄, 교회당 파괴와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북벌 기간 혁명군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일부 성직자를 거리에서 희롱거리로 만들고, 1924년에서 1929년까지 12명의 선교사가 살해당하고 기독교인을 '외국인의 개'라고 모욕하였다. 1927년 여름부터 반(反)기독교 운동이 전국적인 폭력운동으로 변하자 선교사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피난을 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국

---

276 황윤선, 42.
277 권성호, "중국 기독교 토착화 연구" (주안대학원대학교석사학위, 2015), 23.
278 김병태 131.

거주 해외선교사가 1925년에는 8,350명이었으나 이 때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되어 1928년에는 3,150명만 남게 되었다.[279]

저항원인 분석

중국 근대화 당시 개신교 선교사들은 자신의 선교 사명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본국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여 여러 가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 데 직접 관여하고 여러 가지로 모국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하기도 했다. 당시 국제정세상 이것은 분명히 선교의 좋은 기회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로 이하여 선교사들의 실제적인 복음의 대상자인 중국인들에게는 개신교를 식민지 열강의 앞잡이로 여기게 만드는 오점을 남겼다.[280]

그리고 이러한 반(反)기독교 사상은 반(反)제국주의적 공산주의 요소로 크게 작용하였다. 여기에 민족주의자들과 합세한 끝에 결국 중국 대륙이 지금까지 공산화 속에서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라고 오해하고 질책하는 구실이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중국인과 역사학자들을 통하여 내려오고 있는 뿌리깊은 오해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저항인식이 중국의 지식인(知識人)으로 시작해서 중국인민(中國人民)들에게 퍼지자 중국 각지에서 반(反)기독교 운동으로 나타났다. 아편전쟁(阿片戰爭)부터 의화단운동(義和團運動)의 발발까지 무려 400여 건의 교안들의 전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기독교를 서구제국주의와 동일시하고 기독교와 민족주의 간의 충돌현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281]

---

279 차경애, 96.
280 진미수, 23.
281 량자린(梁家麟), 125.

1949년 이후 중·공(中·共)의 개신교(改新教)에 대한 저항의 형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 1937년부터 1949년 이전까지 초기 중국 공산당의 종교에 관한 정책은 그들이 비록 마르크스-레닌의 유물론적 사상과 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대중들이 종교를 믿는 신앙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했었다. 왜냐하면 중국의 많은 국민들은 5천 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종교적인 신앙을 뿌리 깊게 박고 있었고, 당시 공산당의 정치적 통치 이념과 대다수 국민의 종교에 대한 신앙의 정서가 대립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282]

하지만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을 주축으로 한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의 출범과 12월 국민당(國民黨) 정부의 대만(台湾)으로의 철수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중국의 대륙교회은 중국공산당의 통치와 국가 이익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며, '종교(宗教)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소멸(消滅)된다'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종교 소멸론'을 중국 공산당의 집권 이념[283]으로 삼았다. 이것이 개신교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첫 번째 원인이 되었다. 두 번째 원인은 중국의 건국 시기인 세계 2차 대전 이후 세계정치 질서는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극심한 정치적, 외교적 대립의 시기였는데, 이것이 저항의 또 다른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정치적 저항의 형태를 1949-1959년 초기 중국공산당 정권의 개신교에 대한 저항, 1958-1966년 대약진운동 시기의 개신교에 대한 저항, 1966-1976년 문화혁명기간 기독교에 대한 정황으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공산당: 1949년-1957년

1949년 9월 중국 공산당과 접촉을 가졌던 오요종(吳耀鐘), 유랑모(流浪模)등 종교계 인사 5인은 중국 공산당이 개최하는 제1차 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에 초대되었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의 일환으로 이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

[282] 곽정복, 66.

[283] 신명, 26.

교계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의미하며, 참여에 적극적인 오요종(吳耀鐘)[284]은 향후 '삼자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 낸다. 삼자운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 중국인이 교회를 관리하고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배제한다.

2) 자양: 교회운영에서 외국 교회의 재정 원조를 배제한다.

3) 자전: 서방의 의식을 배제하고 중국인민의 입장에서 전도한다.[285]

이렇게 종교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기반을 마련하자 공산당 정부는 개신교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공식화했는데, 그 형태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반제국주의 애국운동을 통한 저항이다. 당시 1950년 발발한 한국 전쟁을 빌미로 중국공산당은 즉각적으로 미국에서 오는 모든 선교자금을 동결하고 기독교계 대학과 기독교 병원을 국가귀속으로 인수하는 조치를 취한다. '북한을 돕고 미국에 저항하자'는 '항미원조(抗美援朝)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키어 정부 주도의 강연회와 시위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다.[286] 이렇듯 중국 정부의 개신교에 대한 저항은 개신교를 중국을 무력으로 침략하고 경제적 이권을 강탈한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특별히 중국인민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여 서양문명에 복종하게 하는 '양교(洋教)'로 여기며 외세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중국인의 교회를 건립한다는 명분 아래 중국교회를 세계교회로부터 철저하게 단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7] 이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사회적 저항'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는 정치 학습의 강요를 통한 저항이다. 1950년부터 중국공산당은 신도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를 발동하고 사상을 개조하여 공산주의에 귀향하는

---

[284] 진미수, 176. 오요종은 처음 복음주의에서 시작하여 사회복음 사상을 받아들였다가 중국공산당 정권 하에서는 삼자회를 만드는 중심인물이 되었다. 그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만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복음의 역할인 개인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회복음주의자로 평가된다.

[285] 진미수, 135.

[286] 진미수, 138.

[287] 김광성 55.

장기 목표를 위하여 지방정부에서 직접 교회의 리더들에게 정치학습을 강요하였다. 특히 제국주의가 중국 문화 침략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였는지 학습하게 하여 기독교 인사들의 자아개조 학습을 위한 모델로 삼고 기독교 리더들을 개조자로 작업하기 시작했다.[288]

세 번째는 신학교육을 장악하는 방법을 통한 저항이다. 중국공산당은 1951년부터 신학계 인사들과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통제하기 위하여 신학교육을 장악하였다. 기존 60여 개의 신학교를 일괄 합병의 형태로 통합하고 관리하기에 이르렀다.[289]

이후 1954년 7월 '삼자준비위원회'는 북경에서 62개 교회와 단체의 대표 2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기독교전국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中國基督敎 三自愛國運動委員會(약칭: 삼자회)'를 정식으로 발족한다. 이 '삼자회(三自會)'를 기독교계 최고 조직체로 하여 전국 각 지역에 분회를 두고 삼자회의 임무를 추진하며 각처의 교회를 그의 조직 내에 수용하고 집중 관리하여 공산주의 정권을 옹호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교회로 만들도록 하였다. 이 시기 삼자회에 가입을 거부하는 교회는 가차없이 숙청하고, 교회를 정치운동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결국 1955년 10월 29일 중국정부는 삼자회 이외의 모든 기독교 활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290]

대약진운동시기: 1958-1966

1958년 중국 정부는 이른바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을 추진하였다. 제1차 경제계획의 결과에 자신을 얻은 마오쩌둥(毛澤東)은 제2차 경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때와 같이 하여, 인민 대중의 적극성을 통하여 중국을 가능한 조기에

---

[288] 조훈, *중국기독교사* [(A) History of Chinese christianity] (서울: 그리심, 2004), 234.
[289] 진미수, 142.
[290] 조훈, 235.

현대적 공업, 농업, 과학과 문화를 갖춘 위대한 사회주의국가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였다.[291]

특별히 이 시기 개신교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형태를 살펴보면, '모든 조직의 군사화, 생산의 전투화, 생활의 집체화'를 부르짖으며 삼면홍기(三面紅旗)의 대약진운동 전개 아래에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이 운동에 동원하였다. 그 결과 지극히 바쁜 생산활동에 소집 동원된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고, 목회자들도 예외 없이 정치학습 혹은 경제 생산에 투입되어 교회를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종교활동은 가장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었고 생산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종교는 공개적인 활동이 금지되었다.[292] 결과적으로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을 통하여 다수의 교회가 자동적으로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삼자회(三自會)는 대체로 한 지역에 한 교회만을 남겨두고, 교회 활동도 주1회로 제한하고 설교 시간과 내용 등도 간섭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저항 속에서 중국의 소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가정 집회를 열게 되었다.[293]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이 실패하고 1960년대 초부터 유소기(刘少奇) 등 이른바 실권파가 등장하여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 시기 극단적인 종교 정책이 완화되는 틈을 이용하여 교회는 호흡을 가다듬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문화대혁명시기: 1966년-1976년

마오쩌둥은(毛澤東)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을 통하여 전통적인 농업 국가인 중국을 중공업국가로 급선회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덩샤오핑(邓小平), 유소기(刘少奇)와 같은 수정주의자들이 정치적인 주목을 받자,

---

291 김정계, *중국의 권력투쟁사* (서울: 평민사, 2002), 111.

292 김광성, "특집 : 중국교회의 신학과 선교 : 중국 종교자유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 *복음과 선교* 23, no. - (2013): 22.

293 조정희, 13.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르주아 세력과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며 이것을 위하여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선동하였다. 1966년 5월 16일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지(5.16통지)'를 공포하며 전국적으로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만회하고자[294] 마오쩌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국 각지에 홍위병이 조직되고 지식인과 자본가를 공격하고 우상척결, 전통사상 척결, 종교, 미신타파 등을 표어로 삼았다.[295]

이 문화대혁명의 영향은 정치권 내에 한하지 않고, 특별히 중국 개신교에 엄청난 정치적 저항으로 시작하여 사회, 문화적 저항으로 파급되었다. 이 시기 종교문제에 대한 사조는 절정에 달하여 "철저하게 모든 종교를 파괴하라", "모든 종교조직과 종교단체는 해산하라", "모든 종교시설을 철저히 파괴하라" 등의 표어나 벽보를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삼자회를 포함하여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모든 종교사무 담당부서는 철폐되고 모든 종교활동은 금지되었다.[296]

이 시기 모든 유형의 교회가 폐쇄되거나 파괴되고, 성직자는 구금되고 신자는 박해를 받았다. 특별히 문화대혁명 시기에 삼자회의 활동과 삼자교회의 모습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297] 극도로 심한 정치적 저항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현대 중국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서로를 믿지 않는 풍습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묻지 않고', '말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가정교회(家庭教会)'는 문화대혁명 10년의 기나긴 고난의 때에 놀랍게도 좌절하거나 소멸되지 않았다.[298] 오히려 핍박 속에서 신앙을

---

294 김광성, "특집 : 중국교회의 신학과 선교 : 중국 종교자유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 22. 이 시기 중국 역사의 바늘은 적어도 10년 이상을 꺼꾸로 돌리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295 진상선, 59.

296 곽정복, 76.

297 김광성, "중국의 종교정책이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 : 기독교 중국화에 대한 선교실천적 대응," 62.

298 王怡, 172.

깊게 하고 더욱더 굳건하여지며 강력한 신자를 양성하는 시기가 되어, 마치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듯 전체 중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재건되기 시작했다.

개혁개방시기: 1980년 이후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의 죽음과 4인방의 타도, 특히 문화대혁명 기간에 수정주의자로 숙청되었던 덩샤오핑(鄧小平)의 재등장과 정권 장악은 중국을 이른바 '4개(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 현대화 운동'의 시대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동안 문화대혁명으로 철저히 파괴되었던 종교활동 장소가 다시 세워지고 공개적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종교에 대한 자유가 회복되었다. 문화대혁명 시대의 종교정책을 비판하고, '종교란 중국사회가 발전하면 스스로 소멸한다'는 견해로 종교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서방의 원조와 종교인의 역량을 4개 현대화 운동으로 끌어들인다는 철저한 실효성에 입각한 종교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299]

하지만 개혁개방시기에 기독교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중국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인 이상, 개혁개방 시기에 개신교에 대한 저항의 형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종교의 현실을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300] 정부의 제도적인 법률에 입각하여 개신교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정부정책의 형태로 일관되게 시행되고 있다.

종교 정책과 법규를 통한 개신교에 대한 저항

1978년 중국공산당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여 반포하였으며 제88조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 공산당 제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집권한 덩샤오핑(邓小平)의 개혁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종교자유정책'을

299 우심화, "중국교회간사(簡史)," 279.

300 김광성, "특집 : 중국교회의 신학과 선교 : 중국 종교자유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 24.

실시하였다.[301] 이렇게 1978년 개혁개방이 추진되면서 중국의 개신교가 소생하기 시작했으며,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적 종교관이 무색해질 정도로 사회주의 중국에서 종교가 흥왕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중국에서 종교가 흥왕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이를 용인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종교관인 '종교 소멸론'으로 돌아 가느냐로 고민하기 시작했다.[302]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변하지 않는 정책은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와 완성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에 입각하여 종교자유 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2016년 중국 기독교 협의회 추정에 의하면 삼자교회의 신도수가 약 2천800만 명에 달하며, 여기에 공인받지 못한 지하교회 교인수까지 합치면 1억 명(인구의 7%)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303] 심지어 2010년 12월 14일 중국 칭화대(清华大) 교수 '이판(李帆)'은 2030년 이후에는 중국의 기독교인 수가 약 2억 4천만 명에 달할 것이며, 세계 최대의 기독교 대국이 될 것이라고까지 전망하였다.[304] 그러나 이렇게 급성장하는 중국 기독교 신자증가율에 반하여 삼자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들의 신학은 여전히 50-60년대의 정치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중국의 '가정교회(家庭教会)'는 농촌에서 도시화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들 교회는 과거 삼자교회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그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거나 독자적인 활동을 하며, 반(半)공개적 혹은, 비밀리에 집회를 가지고 있다. 가정교회는 일반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최소한의 조직) 목회자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정규 신학 훈련을 거치지 못한 평신도 지도자에 의해 대부분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중국 전체 개신교인 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305]

---

301 최진호, "선교사 입국 거절 상황과 대응 :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81.

302 김광성, "중국의 종교정책이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 : 기독교 중국화에 대한 선교실천적 대응," 65.

303 국민일보 2016.06.21 기사 "미국 퍼듀대 펜강양 교수"국제 학술대회 인터뷰

304 왕원평, "중국어 문서선교회," *중국을 주께로* (2011.11): 13.

305 Zhener, 96.

현대 중국 사회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한 도시화의 빠른 진행, 상공업의 발전, 고등교육의 향상과 해외 유학 인재의 증가 등으로 오늘날 중국 내 고등교육을 받거나 고학력 전문인 기독교인들, 특히 중국 내 기업인과 도시유동인구(都市流動人口)에 의한 예배가 가정, 회사, 학교, 심지어 노천에서까지도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기존 농촌 가정교회와 달리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적, 경제적 여력 등을 바탕으로 삼자교회가 아닌, 별도의 합법적 교회로 중국정부로부터 인준받기를 원하고 있기도 하다.[306]

원칙적으로 중국에서의 종교적 자율은 불가하다. 하지만 개혁개방의 조류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그리고 소수민족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현대 중국은 독특한 종교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 내 종교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은 먼저 강력한 국가의 통제 안에 두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에서는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307] 중국은 법적으로 종교에 대한 자유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철저히 국가의 통제 범위 안에서만 종교가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공산당은 종교적인 신앙보다는 사회주의 달성에 그 목표를 두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실용적인 면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은 종교를 통일전선 사업의 일부로 간주하고 당과 정부의 노선과 현대화 사업에 협력할 때에만 그 종교의 존립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종교는 자본가들의 착취에 저항하려는 인민들의 의지를 둔화시키기 위하여 제국주의가 제공하는 아편이다'라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의 反종교적 사상을

306 우심화,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한 진단과 제언," 281. 중국교회의 새로운 형태로 '준(准)삼자교회'를 들 수 있다. 이 형태의 교회는 삼자교회와 관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여, '미(未)비준교회'와 '독립교회'로 분류된다. 이들의 교회는 '삼자'를 이용하여 중국 정부에 비준을 받았지만, 목회와 교회 관리에 있어서는 독립적이다. '양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설교, 사역자 훈련, 주일학교 사역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삼자'의 이름은 합법적 허울에 불과하며 이들은 '정부는 삼자를 통해 교회를 통제하고, 우리는 삼자를 이용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한다. 이들 교회는 '양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대표를 보내지만, 실질적인 관련이 없고, 오히려 해외교회 및 기타 非삼자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종류의 교회는 주로 개신교 역사가 깊고 신자가 많은 지역(예: 온주溫州)이나 삼자회가 살피지 못하는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307 이태우, "중국 가정교회와 삼자교회의 갈등과 선교협력 방안을 통한 중국선교" (서울기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62.

수용하고 있다.[308]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마르크스의 '종교자연소멸론'에 여전히 입각하여 사회주의가 완성되면 종교는 마땅히 사라져야 하는 미신적인 존재로 치부한다.

이를 토대로 1982년 3월 중국공산당이 종교정책관련 제19호 문건을 작성하고 이 내용은 오늘날까지 중국종교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을 소위 3정(三定) 정책이라 한다.[309]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기독교인은 오직 삼자애국운동에 지정된 교회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 : 장소

· 오직 삼자애국운동에 의해 지정된 성직자들만이 설교할 수 있다. : 사람

· 오직 지정된 장소에서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 지점

이러한 19호 문건을 중심으로 중국정부의 기독교선교에 대한 저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나, 이는 장기간의 정책인 종교가 자연 소멸될 때까지 정책이다.

나. 종교 신앙의 문제는 어떠한 국면이든지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다. 이것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중국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이 종교를 믿게 권유해서는 안 된다.

다. 종교활동은 반드시 중국 법률과 정책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종교활동을 이용하여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질서를 문란시키고 국가의 의무교육 및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 공공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며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에게는 입교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 중국 공산당은 무신론자로서 반드시 인민 대중에 과학 문학 지식 및 무신론 선전 교육을 집행하여 견고한 과학적 세계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중국공산당의 자유 정책은 막스-레닌주의론에 근거하여 제정한 정책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

308 Winter et al., 403.

309 신명, 129.

믿게 하는 것은 인민 개인의 의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는 침범, 또는 방해한 행위로서 모두 극단적이므로 용서할 수 없다.

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은 '삼정(三定)' 방법에 (범위를 정한다. 지점을 정한다. 사람을 정한다)근거하여 몇 개의 집회지점을 정하여 종교 활동을 허락한다.[310]

이와 같이 19호 문건 중 기독교 선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외국의 종교단체나 개인과의 교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11번째 항목이다. '중국 공산당은 로마 교황청과 각국의 선교단체를 기독교 제국주의 종교 세력으로 여기고 그들의 중국 선교를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대적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중국 선교에 대하여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엄밀한 조사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치리할 것을 명시한다'고 적혀있다.[311] 이는 현대까지도 외국의 선교단체에 대한 정치 법률적 저항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1991년에는 제6호 문건이 추가 발표되고, 이 내용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국무원이 각 부서에 하달한 통지문으로, 표면상 19호 문건을 계승하여 법률과 정책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종교활동을 인정하고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의 행정, 학교교육, 사회공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중국공산당원은 신앙을 가질 수 없으며, 특히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에 대한 입교, 출가는 안 되며, 절대로 외국의 적대 세력들이 종교를 이용하여 침투시키지 못하게 한다'[312]고 규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과 법률로 기독교 선교 행위에 대하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적인 틀 안에 가두려는 기독교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 저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현재 시진핑(习近平) 체제에 와서는 더욱 엄격한 종교 관리와 중앙권력의 저항으로 중국 내 개신교 선교사들의 비자발적 철수(추방)가 이어지고 있기에 중국교회도 정부의 압력과 저항으로 점점 위축되어 공개된 활동을

---

310 곽정복, 86.
311 곽정복, 95.
312 김광성, "특집 : 중국교회의 신학과 선교 : 중국 종교자유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 30.

줄여가고 있다.[313] 결국 시진핑 정부의 종교정책은 '기독교의 중국화'라는 정책을 통하여 종교가 자연 소멸될 때까지 정치적 저항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김광성은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 중국 정부의 종교 자유 정책은 중국 사회의 변화만큼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에, 중국의 법제화 과정과 내용에 신속하고 폭넓은 이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미 사회의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잡은 중국교회를 중국정부가 적대시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중국교회가 중국정부의 대항 세력으로 발전할 여지는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314]

그러므로 중국교회는 해외 기독교 선교단체나 교회에 의존하기보다는 중국 내에서 정부와 더 나아가 시민사회가 기독교와 교회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략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약

제4장에서는 개신교의 중국 선교역사를 1949년을 전후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속에서 개신교 선교가 어떠한 저항을 맞이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신교가 중국에서 받은 저항의 형태와 원인을 분석하면서 서로 상호 관계성의 범주에서 '사회·문화적 저항'과 '정치적 저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사회 문화적 저항이다. 개신교가 중국에 선교를 시작한 1860년부터 1900년까지 기독교가 중국에서 겪은 저항은 '민교충돌(民教衝突)'로 볼 수 있다. 당시 개신교 선교사들이 서구제국주의와 중국의 각종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 데 직·간접적인 협조를 통하여 당시 개신교 선교의 정치적 개방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불평등 조약으로 인하여 기독교에 대한 국가의 저항은 사라짐으로 활발한 선교활동이 이루어졌지만, 기독교에 대한 민간주도의

313박정렬,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 탐색" (주안대학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21), 105.

314 김광성, "특집 : 중국교회의 신학과 선교 : 중국 종교자유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 33-34.

사회 문화적 저항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반(反)제국주의, 반(反)기독교적 교안이 자주 발생하던 '교안시대(教案時代)'라고 정의할 수 있다.[315]

특별히 이 시기에는 '태평천국운동(太平天國運動)'이 홍수전(洪秀全)에 의해 일어났으며 이 운동은 광서(广西)지역에서 시작하여 3년 만에 남경(南京)을 함락하고 수도를 세우게 되었다. 14년간 지속된 태평천국 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중국 역사를 통틀어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반란을 일으킨 유일한 사건이며 중국역사상 최대의 농민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청조(清朝)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가져다 주어 이후 양무운동(洋務運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결국 1949년 이전까지 개신교의 중국 선교는 반(反)외세, 반(反)기독교 운동을 일으키는 각종 교안(教案)과 의화단 운동, 신해혁명, 5·4운동, 공산당 창당 등의 극심한 사회·문화적 저항을 맞이하게 되었다.[316]

두 번째는 정치적 저항으로 1949년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에서 맞이한 저항이다. 개신교에 대한 공산당의 정치적 저항은 자신들의 주체 사상 중 하나인 '종교 소멸론'에 입각하여 종교를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삼자회'를 통하여 이를 개조(복음의 본질을 흐리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개신교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극에 달하여 교회 폐쇄, 성경 압수, 예배 금지, 기독교 지도자 투옥 등의 강력한 정치적 저항이 일어났다.[317] 하지만 이러한 핍박과 억압 속에서 중국 정부와 타협하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지켜가는 가정교회(지하교회)의 순교와 믿음이 외국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성장[318]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

315 王怡, 35.
316 김화평, 186.
317 곽정복, 76.
318 Zhener, 68.

개혁개방 이후에도 중국 정부는 모든 종교활동을 법률로 규제하는 정치적 저항을 실시하고, 19호 문건, 6호 문건과 같이 외국 선교단체를 자신들의 정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적 단체로 규정함과 동시에, 특히 18세 이하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강력한 법제 체제 아래 '기독교의 중국화'를 가속화하고 있다.[319] 이것은 중국정부가 엄격한 통제력으로 기독교를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것이다. 이렇게 중국 선교의 역사는 선교의 위기와 중단, 그리고 재개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선교의 공통적인 저항 상황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전통을 고려하지 않고 복음의 전달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달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320]

319 최진호, "선교사 입국 거절 상황과 대응 :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86.

320 김광성, "중국의 종교정책이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 : 기독교 중국화에 대한 선교실천적 대응," 74.

第5장

저항의 형태들과 저항 속에서의 바람직한 선교 방향

지금까지 기독교(경교, 천주교, 개신교)의 중국 선교역사를 당(唐), 원(元), 명(明), 청(清)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에 이르는 약 1,400여 년 동안 저항의 관점에서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중국선교역사를 관통하는 저항은 큰 틀에서 볼 때 '토착종교의 저항', '사회 문화적 저항', '정치체제(이데올로기)의 저항' 등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저항들의 형태는 시대별로 어떤 특정 형태의 저항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형태들이 혼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기독교 선교에 대한 저항의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중국 선교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를 위해서 먼저는 다양한 역사 속에서 기독교 선교에 대한 저항의 종류들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이러한 분석과 정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중국 정부의 '기독교의 중국화 정책'이라는 저항의 환경 가운데 있는 중국교회 안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선교 자세와, 교회 공동체로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실천적인 선교전략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현대 중국 기독교와 선교에 대하여 여전히 이데올로기적 저항을 보이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형태별로 본 저항의 종류(범주)

저항의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단순화의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저항이 '토착종교'로 시작되었지만 정치, 사회면으로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형태들을 대별하는 것은 저항의 연구를 보다 잘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자는 큰 틀에서 저항의 형태를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현지 토착종교들의 저항

현지 토착종교들의 저항을 대표적으로 받은 기독교는 경교(景教)다. 경교(景教)가 당(唐)나라에서 맞이한 저항의 특징은 표면적으로는 '사회 문화적 저항'과, '정치적 저항'으로 드러나는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토착종교와의 갈등이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경교가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당나라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윤리와 도덕 철학으로 시작하여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종교로 자리하고 있는 유교(儒教)와, 중국 전통 종교로 무위자연을 현실적으로 적용한 도교(道教), 그리고 이미 현지화를 끝내고 조직화된 불교(佛教)가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321]이었기에 토착종교들은 경교와 같은 외래 종교에 대해 견제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경교에 대하여 저항을 보인 것은 불교(佛教)다. 초기 경교는 특히 외래 종교로서 현지화에 성공한 불교 용어를 많이 차용하였다. 하지만 불교는 이러한 경교의 번역한 내용을 보고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혹평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조정의 환영을 받는 상황에 대하여 매우 불편해 하였다.[322] 이러한 경교(景教)와 불교(佛教)의 불화가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한 사건이 고종(高宗)이 죽고, 한때 감업사(感業寺)의 승려였던 그의 부인 측천무후(則天武后)가 황비가 되어 권세를 장악하자, 그녀는 불교(佛教)를 당(唐)나라의 국교로 정하고, 경교에 대한 박해를 명령한다. 이로 인하여 낙양(洛陽)에 있던 경교 교회와 수도원이 약탈을 당하고 점차 확산되어 14년 후에는 수도 장안의 경교 교회들까지 약탈을

321 신현광 552.
322 이장식, 147.

당하게 된다.[323] 이러한 경교에 대한 불교(佛敎)의 저항은 원(元)나라에서 또다시 독실한 불교 신도인 '조맹조'의 주도 하에 인종(仁宗) 27년에 같은 형태의 경교(景敎)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일어났다.[324]

두 번째는 도교(道敎)로부터의 저항이다. 도교는 당시 열렬한 도교 신자였던 무종(武宗)을 등에 업고 회창(會昌) 5년에 황제의 사사도사(師事道士)였던 조귀진, 유현청 등의 신하들이 특별히 외래 종교인 불교, 경교, 요교를 배척해야 한다는 상소를 하는 데서 시작한다. 무종은 회창(會昌) 5년 4월 조서를 내려 외래 종교의 사원들과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승(僧)들을 조사하고 정리함으로 당시 경교 최초의 예배당인 대태사(大泰寺)가 허물어졌고, 경교를 믿는 교도들의 토지와 재산이 몰수되었으며 3천여 명의 경교 성직자들은 성직을 잃고 일반인으로 귀속되거나 강제 환속되었다. 또한 4-7만에 달하는 경교신자들이 개종하거나 박해를 피하여 도피하였다. 도교(道敎)는 무종(武宗)으로 하여금 불교와 함께 서방에서 온 경교(景敎)와 마니교, 조로아스터교에 금지령을 내리게 한다.[325]

특별히 도교가 무종을 등에 업고 불교를 탄압할 때, 경교는 여러 면에서 도교와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었던 불교와 차별성을 두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교의 언어와 종교 습관을 차용한 결과, 도교가 이방 종교였던 불교를 탄압할 때, 같은 이방 종교인 경교를 불교의 한 종파로 보고 이들을 함께 묶어 탄압하였다.[326] 이러한 내용은 아래 무종의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會昌 5年 가을) 황제는 승려들이 무위도식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나머지 그들을 제거하려고 생각했다. 우선 산과 들에 산재해 있는 金堂을 없애고 상도와 동도 각각 두 개 사찰을 남겨두고 승려 30명만을 남겨두었다. 그 나머지 승려, 비구니와 더불어 大秦(경교), 祆敎(조로아스터교)의 승려는 모두 환속시키고 철거 대상인 사찰은 어사를 파견하여 철거하도록 하고, 사찰의 재화와

---

[323] Moffett,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1*, 468.

[324] 王治心, and 전명용, 194.

[325] 이현모 302.

[326] 장효현, "景敎(경교)(Nestorianism)의 東方(동방) 傳播(전파)," *동방문학비교연구* 2, no. - (2014): 17.

> 전답은 관에서 몰수하며 동상과 종은 녹여 돈으로 기일을 정해 철거하도록 어사를 파견하여 감독하도록 했다.[327]

결국 '회창법란(會昌法亂)'이라고 불리는 무종(武宗)의 대대적인 외래 종교에 대한 정치적인 저항은, 황제의 단독 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외래 종교에 대한 중국의 토착종교인 도교(道教)의 반발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8세기 말부터 서서히 고조되었던 토착종교의 반발이 황제들의 혼란 시기를 거치면서 내재되었다가 도교 신자인 무종이 즉위하자 폭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328]

마지막 유교(儒教)의 저항 형태는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329] 그들은 당나라 당시 황제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경교(景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330] 앞에서 살펴본 대로 토착종교들의 저항은 당나라 황제들이 어느 특정한 종교를 편애하거나 지나치게 후원하면 외래 종교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게 된다. 황실에서 페르시아에서 들어온 외래 종교인 경교를 우대하는 정책과 경교비(景教碑)까지 세우도록 하는 결정에 유교가 가장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황제들의 독살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중국 황실에 경고를 하였고, 황실은 유생들을 지극히 떠받들 수밖에 없었다.[331]

사회·문화적 저항

천주교(天主教)는 중국선교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사회 문화적 저항을 받은 종교다. 청(淸)나라의 선교 과정에서 큰 실수는 예수회가 중국사회와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적응주의 선교'를 저버린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마태오 리치(Matteo Ricci)는 중국선교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와 선교지의 문화를 끊임없이

---

327 권중달 et al., "자치통감 역주," *자치통감* (2007): 248.

328 이장식, 229-30.

329 董丛林, 25.

330 서윤동, 43.

331 김호동, 138. 당나라의 경교를 환대했던 덕종, 현종, 목종, 경종이 유교의 반감을 사서 독살되었다.

고민하고 사회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전략을 기본으로 하였고,[332] 이것은 앞선 경교(景教)가 무분별하게 토착종교의 관습과 언어, 예배 형식을 단순하게 차용한 것과는 다르게, 헬라 철학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유교 중심의 전통문화의 통찰과 함께 중국사회를 복음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를 통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데, 당시 정부 고위 관료였던 서광계(徐光啟), 이지조(李之藻), 양정균(楊廷筠)과 같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은 이후에 중국 천주교의 3대 기둥으로 평가받게 된다. 마태오 리치의 문화적응주의 선교는 1584년 3명의 천주교 신자로 시작하여 1664년에 와서는 무려 25만 명에 달하는 신자를 얻게 되었다.[333]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회와 함께 로마 가톨릭에서 파벌적, 외교적 경쟁관계에 있던 도미니칸회와, 프란체스칸회, 파리외방전도회의 불필요한 내부 분쟁(전례논쟁: 礼仪争议)으로 그동안 실시해 온 예수회의 문화적응주의 선교전략을 금지하고 '상제(上帝)' 용어와 '조상제사'를 우상숭배로 간주하고 활발히 활동하던 예수회마저 1773년 교황청에 의해 해산하게 만든다.[334] 이러한 중국의 사회·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상제사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로마 교황청의 조치에 대항하여 청(淸) 황제 강희제(康熙帝)는 '중국의 글자(子)도 모르면서 중국의 도(道)를 논한다'며 대노하고 1706년 천주교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체포하는 등 '황제(皇帝)와 교황(教皇)'의 대립구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이후 등극한 옹정제(雍正帝)는 모든 예배당을 폐쇄하기에 이른다. 결국 1757년 건륭제(乾隆帝)는 명을 내려 제사를 반대하는 중국의 모든 선교사를 쫓아내며 150년에 걸쳐 어렵게 개척한 중국 천주교 역사는 끝나 버리게 되었다.[335]

---

[332] 김명희 144.

[333] 김혜경,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233.

[334] Moffett,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2*, 232. 교황은 더 나은 신학자일지 모르지만, 예수회 선교사들은 더 나은 선교사들이었다.

[335] 김화평, 59.

선교는 '문화와 문화의 만남'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의 시작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얼마나 넓히느냐에 따라 선교의 지속과 철수의 결과를 가져온다.[336] 이러한 의미에서 18세기 초에 발생한 '전례논쟁'은 기독교문화와 유교문화의 상이한 두 사회 문화의 직접적인 충돌이었고 이것이 저항으로 이어졌다. 아마도 마태오 리치가 처음 중국에 도착했을 때에도 중국의 영리한 유가 관원과 보수적인 백성을 보고 천주교로의 개교가 쉽지 않았음을 느꼈을 것이다. 때문에 천주교의 선교 방식과 기독교 교리의 내용을 중국의 사회 문화와 조화시키는 데 힘썼던 것이다.[337]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문화와 역사가 으뜸이라는 중화사상(中華思想)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다가가는 문화적 우월주의와 배타주의는 기독교를 오히려 경박한 종교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복음을 수용자의 입장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의 전통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며[338] 이러한 자세는 그동안 기독교가 지향해 오던 서구중심의 기독교 문화가 아닌, 새로운 중국 중심의 기독교 문명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된다.

정치적(이데올로기) 저항

기독교의 중국선교역사에서 궁극적인 저항의 결말은 항상 정치적인 저항으로 매듭짓게 된다. 특별히 개신교의 중국선교에 대한 저항의 특징은 정치적인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개신교에 대한 정치적인 저항은 1807년 청나라 말기 '로버트 모리슨'의 선교과정에서부터 야기되었다.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은

[336] Paul G. Hiebert, and 홍병룡,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서울: 복있는 사람, 2010), 169-70.

[337] 김진보, 77.

[338] Zhener, 48-49.

당시 영국의 동인도회사와 같은 본국의 상선 및 외교사절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교사역을 하였다.[339]

당시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무역을 하는 상선이나 외교적인 접촉이 가장 쉬운 중국선교의 유일한 방법이었고, 또 본국과 중국의 불평등 조약 체결 과정에 관여함으로 각종 조항에 선교의 조항을 첨가하여 선교의 기회를 쉽게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곧 중국인들로 하여금 개신교가 제국주의의 앞잡이라는 뿌리깊은 사회적 인식의 기원이 되고 말았다. 이후 중국사회는 서구열강의 경제적 침탈과 정치적 침략 과정의 혼란 시기를 거치면서 개신교 선교에 대하여 각종 교안(教案)과 반(反)기독교 운동을 일으키는 극심한 사회적 저항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은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중국공산당 정권의 사회주의 '종교 소멸론'과 함께, 한국전쟁의 발발 및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의 첨예한 정치, 외교적 냉전 정세의 대립과 맞물려 주로 '종교정책'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극심한 통제와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하고 현재에 이르러는 '기독교의 중국화'[340]라는 저항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치적 저항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앞선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기독교 선교를 자신들의 정치적 정권을 위협하는 '제국주의 종교 세력'으로 간주하고 국가 안전을 위해서 종교를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있다.[341]

---

339 전신영, 37.

340 최진호, "선교사 입국 거절 상황과 대응 :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84. '기독교의 중국화'는 2013년 3월 북경대학교 종교문화 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기독교 연구중심이 공동으로 제기한 연구학술 항목이다. 기독교의 중국화는 신학에서 말하는 '토착화' 혹은 '상화화' 등의 개념과 달리 중국 특색의 기독교를 지향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중국 문화를 담아내는 기독교를 말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

341 최진호, "선교사 입국 거절 상황과 대응 :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84.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342]를 하나의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특별히 동구권 공산주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중국정부는, 시장경제를 수용한 이후에도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당의 분열을 막고, 대중의 불만을 억제하고 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했다. 개혁개방 초기 빠르게 유입되는 서구 사상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의 부재와 이것이 수반하는 사회적 신념의 위기 때문에 정권유지를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 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전략은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에 시행되었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맹목적인 정치 선동과 급진 노선이 아닌,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하였고, 이 때문에 하나의 신념에서 대중을 교육하고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치수단으로 사용하였다.[343]

현대 시진핑 정권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은 급속한 경제성장, 정치 제도화와 사회 안정 등 외적 성과와 함께 중국 공산당에게 통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진핑 정부는 이데올로기 전략의 관점에서 대중들의 민족의식과 서구(기독교사상)에 대한 반감을 고취시킴으로써 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공허한 주장으로 인식되는 현 상황 속에서 중국의 정치 사상 교육은 중국의 근·현대사와 세계정세의 해석을 19-20세기 중국을 침략했던 서구 열강들이 여전히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국 대 서구'라는 대결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와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중국 특색의

---

342 이동규 4.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이데올로기는 통치정당이 정치적 권한을 부여받은 규범적 토대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 사회의 각 계층들이 국가 권력의 정당화를 승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43 정재일, "현 중국의 국가 이데올로기," *중국학연구* 13, no. - (1997): 74.

사회주의'라는[344] 이름으로 이데올로기 전략을 진행하며, 서구 사상으로 대표되는 중국 기독교에 대한 통제 및 회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항 상황 속에서의 선교의 기본적 방향

지금까지 중국의 기독교 선교역사 속에서 선교 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저항은 토착종교를 포함한 사회 문화적 충돌과 저항으로 시작하여 정치적 저항으로 확산되어 가는 현상을 보여왔다. 그러면 현재 중국 기독교와 교회가 당면한 저항의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지, 앞선 형태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저항의 범주를 기초로 하여 방안을 제시하보고자 한다.

지금의 중국 공산당 정권은 이전의 당(唐), 명(明), 청(淸)의 정치권력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거 경교나, 천주교도 많은 선교의 저항을 받았지만, 기독교 선교활동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정치 권력들은 모두 어떠한 형태이든 '자신들의 종교'를 숭배했고, '신(神)'의 존재만은 인정했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중국공산당 정권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신(神)' 자체를 부정하고 종교를 소멸시키려는[345] '무신론 정권'인 것이다.[346]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 유물론의 주장과는 반대로 자연 소멸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지, 정치적 저항의 최소화와 극복 방안을 위한 기독교 교회와 개인의 자세를 제시하고자 한다.

복음주의적 신앙의 정립

경교(景教)가 선교의 모든 여건이 조성되었던 당(唐)나라와 원(元)나라에서 '성경'을 남기지 않은 것은, 이들이 이후에 선교에 저항을 맞이하여 속절없이 무너지는 한 원인이 되었다. 다행히 문화대혁명 시기 영적으로 성장한 중국의

344 이동규,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 전략의 효용성 연구 : 중국의 정치사상교육을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0, no. 68 (2020): 156.

345 신명, 21.

346 王怡, 338. 현재 지구상에서 북한과 중국이 유일할 것이다.

가정교회는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기로에서 복음주의를 택하였다. 즉 중국의 가정교회는 혹독한 정치적 저항 속에서 '성경'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 문화혁명 당시 가정교회 신자들은 성경을 얻을 수 없어서 비밀리에 필사(抄写)하는 전통이 생겨났고, 성경 전서를 당국에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다.[347] 그만큼 중국교회는 저항 속에서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귀한 전통이 있다.

하지만 외부 선교단체와 오랜 세월 단절된 가운데,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성경만을 붙들었기에, 중국 가정교회의 지도자 상당수가 '문자주의' 혹은 '근본주의' 신앙에 가깝다. 아울러 가정교회 지도자 상당수는 신학을 공부하지 못하고 개인의 경험이나 종교적인 체험, 그리고 열정으로 목회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신학적인 체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중국은 이단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은 크게 7종류의 이단 종파로 인한 고통과 혼란을 받고 있다.[348] 이런 이단이 나타나는 이유는 균형 잡힌 말씀의 뿌리와 이를 뒷받침해 주는 신학의 균형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34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복음적인 신앙을 정립하는 것이다. 현대 중국에는 수많은 지하 신학교와 온라인 통신 과정, 순회 선교사, 평신도 전문화 교육, 단기간 집중 교육과정들이 난립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별이다. 지나친 자유주의 신학으로 치우치지도, 지나친 문자주의 신학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오직 성경에 근거한 균형 잡힌 복음주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

[347] 王怡, 330.

[348] 인병국, *중국 특색의 중국교회를 섬기는 길* (서울: 에스라서원, 2000), 254. 254 1)호암파 2)중생파 3)영영교 4)싼반푸런파 5)진예수교회 6)성신기도단 7)동방 번개

[349] Zhener, 98.

성령의 능력에 힘 입은 백색 순교적 자세의 함양

오늘날 중국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현실을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 한족과 소수민족,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같은 민족과 지역 발전의 불균형 문제, 노동자, 농민, 간부의 사회계층 구조의 문제, 사회의 부정부패와 정치개혁 문제,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중국사회에 만연해 있다.[350] 이러한 환경 가운데 중국교회들은 대부분 오직 영혼구원만이 선교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야말로 성령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기에 오늘날 중국의 가정교회는 이러한 중국의 사회문제 속에서 기독교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351]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이러한 사역에 관한 중국 가정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말로만 외치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말과 행동, 더 나아가 중국 가정교회 성도 개인의 삶을 통하여, 중국사회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백색 순교의 자세를 도전하고자 한다.

그동안 근·현대 중국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고난 중에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한 교회'다. 앞서 살펴본 1950년에서 1951년 사이에 중국 내 모든 선교사가 중국을 떠날 때, 천주교가 대략 300만 명, 개신교가 75만 명 정도였다.[352] 이후 1958년 '대약진운동'시기 종교와 사상에 대한 철저한 통제로 인하여 몇 개의 삼자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가 소멸되었고, 문화대혁명시기(1966-1976) 기간 동안 기독교 신자들은 극심한 비판과 노동 개조에 처하고, 심지어 삼자회조차도 해체되었다. 특별히 1966년-1979년까지 문화혁명의 13년 동안은 법적으로 중국에는 하나의 교회도 없었고, 이 기간 중국 내 공식적인 목사와 장로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중국의 사인방 중의 한 명이자 중국의 부총리인 장춘차오(张春桥, 1917-2005)는 자랑스럽게 선포하기도 하였다.[353]

---

350 최진호, "21세기 중국적 상황화 선교신학 모색," 100.
351 Zhener, 95.
352 박정렬, 90.
353 王怡, 158.

이렇게 정부의 강제조치에 교회가 문을 닫자 삼자 교회를 탈퇴한 신자들이 가정교회로 합류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극한 상황에서 신앙을 버리는 자들도 생겨났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난에 참여하면서 중국 가정교회 부흥의 중요한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354] 해외선교 지원의 철저한 단절과 외부의 거친 환경을 경험하는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 중국 토착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이적과 위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하였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는 전환점이 되었다.[355] 이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 가정교회는 현재도 여전히 종교적인 문화대혁명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고, 성령의 역사 또한 여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60-80년대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투옥과 고문, 심지어 처형에 이르며 저항을 맞이하는 '홍색 순교의 리더십'의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 내에서도 인권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세계적인 시선이 중국정부의 인권에 관한 시행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 사교(邪敎)가 아닌 이상 즉각 처형이나 고문은 당하지 않고, 구류, 벌금, 강제해산 등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 대신 강제이주, 건물주 계약해지 등과 같은 성도들의 일상 생활 가운데 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 겪는 손해와 차별이 존재하기에,[356] 성도 개인들의 삶 속에서 묵묵히 '성령 충만을 통한 백색 순교적 삶의 자세'가 필요한 시대이다.

우리는 보통 순교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백색 순교의 삶'[357]란 일상생활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이유로 고통을 겪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큰 것을 말한다. '홍색 순교'와 같이 처형,

---

[354] 진미수, 191.
[355] 조정희, 15.
[356] 王怡, 332.
[357] 초대 교부 클레멘트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순교와 동일한 것이라고 했다.

고문과 같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며 중국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으로 인하여 때로는 직장을 잃는 것과, 사회에서 고립과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중국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위해 손해보며, 주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차별을 받으며 날마다 죽는 마음으로 사는 삶의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358]

현대의 극도로 이기적인 중국사회에서 예수의 도(道)인 '복음'을 따르는 자들로서 양보와, 온유와, 낮아짐과, 손해 봄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다. 때로는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 선교사와 같이 필요에 따라 중국의 가장 낙후된 곳으로 가서 자신의 직업과 소박한 삶을 통하여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갔던 중국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워치만 니(Watchman Nee, 倪柝聲)', '송상절(宋尙節)', '왕명도(王明道)',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359], '에릭 리들(Eric Henry Liddell)'[360]과 같은 인물들이다. 이들은 어두움의 시기, 중국교회의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평가되며, 현대 철저한 정치적 저항을 받고 있는 중국 기독교인들의 용기와 성결함의 표상이 되었다.[361]

이렇게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백색 순교의 리더십의 요건 중 첫 번째 모습은 기독교 초기 지도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예수

---

358 王怡, 333.

359 내지선교회 출신의 영국선교사로 묘족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며 이례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사회에 현재까지도 귀감이 되고 있다. 그에 대한 사역은 '사회참여를 통한 선교'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360 우리에게 영화 '불의전차'의 실제 인물로 잘 알려진 중국선교사로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100결승에 주일이라는 이유로 출전을 포기하고 대신 200미터 동메달 400미터 세계신기록을 달성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영국에서의 보장된 길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로교 선교사로 중국에서 천진과 산동에서 20년간 사역을 하다가 일본군 수용소에서 순교한다.

361조정희, 71.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362]을 근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 타협하지 않으며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363] 이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 하나를 견책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 가능하다.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의 가르침대로 우리에게 '돕는 자(helper)'이자 '지도교사(counselor)'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364]

두 번째로는 '자기 비움'이다. 현대 중국기독교의 가장 아픔 중에 하나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비움의 부재로부터 온 것인데, 중국 정부의 유혹에 취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와 백성을 위해 자기 낮춤과 그리스도의 복종을 삶에 이루어가는 것이다.[365] 즉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겠다. 앞서 살펴본 근·현대 중국 개신교는 '고난의 십자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덩샤오핑(邓小平) 집권으로부터 개혁개방 시기까지 잠시나마 적지 않은 외국 선교사들의 활동을 눈감아 주기도 하였지만, 2013년 시진핑(习近平) 집권 이후[366] 지금까지 새로운 정치적 저항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어쩌면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에 나타난 보편적인 상황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고난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묵묵히 희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367]

현대 중국교회는 삼자 교회와 가정 교회가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고, 농촌 교회에서 도시 교회로 급격한 전환과 단절을 띠고 있다. 또한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세속화로 인하여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고 이전과 같은 강력한

---

362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363 이한수, *바울신학 연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3), 139.

364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365 조정희, 91.

366 2013.3부터 현재까지 3연임의 국가 주석

367 조정희, 66.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건 속에 놓여 있으며, 그 외 각종 문제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영적 침체와 탈진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복음에 대한 저항은 해가 갈수록 더해지는 정부의 기독교 활동 통제와, 해외 선교단체를 반정부 단체로 규정하고 선교사들의 자진 출국(추방) 유도와 재입국 거부 등 법적인 제제를 가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중국교회가 문화대혁명시기 '홍색 순교'의 경험에서 얻었던 것, 즉 '성령충만'을 갈구해야 한다. 각자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실제가 되는 '백색 순교의 정신'[368]으로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진행 중인 '종교적 문화대혁명' 중에 있는 중국사회 가운데 쉬지 않고 나타날 것이다.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헌신적인 기독교 인재 양성

앞서 살펴본 중국의 선교역사에서 경교(景教)와 천주교(天主教)가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漢族)의 인재를 양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실 중국에서 원(元)나라 자체가 중국인의 대다수인 한족(漢族)이 아닌 이방 민족인 몽골족(蒙古族)이 중원을 점령하여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경교와 천주교는 비록 북방 유목 민족이었던 몽골족에게 먼저 선교가 되어, 그들과 함께 중원(中原)에 들어왔지만, 중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漢族)의 지도자와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국사회에 이바지하고, 중국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들은 오직 당시 지도층인 몽골족(蒙古族)과 중국에 거주하는 유목 민족과, 색목인(色目人) 위주의 선교를 하였던 과오를 저지른다.[369]

이것은 비슷한 시기인 A.D. 651년 당나라에 외국 종교로 함께 중국에 들어왔던 이슬람교(경교는 A.D. 635년)와 비교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당시

---

[368] 조정희, 203.

[369] 2장의 경교의 현지화 실패와 3장의 천주교 쇠퇴배경을 참고

이슬람교도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이방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현지화 전략과 현지인과 결혼하고 마을공동체를 이루며 이슬람 종교 고유의 전통을 이루는 회족(回族)을 중국 내에서 이루어냈다.[370] 현재 중국의 이슬람은 영하회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구는 약 1,000만에 이르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 3번째로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371]

특이한 점은 중국에서의 이슬람 선교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경당(經堂) 교육이다. 경당 교육은 이슬람 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제도이며 이슬람 학교다. 그들은 학생들을 이슬람 사원으로 모아 이슬람 교육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조직의 형태를 갖추었다. 경당의 역할을 통하여 후에는 중국 각지에 다양한 이슬람 학파들이 생성되고,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원나라 이후 대부분의 한족들이 스스로 회족(回族)에 편입되기도 하였다.[372] 같은 시기에 들어온 두 종교의 차이를 통하여 선교에 있어서 현지 인재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개신교 선교의 대표적인 인재양성의 예를 들자면 1888년부터 1915년까지 중국의 소수민족 선교사인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의 예를 들을 수 있겠다. 중국 내에서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와 귀주성(貴州省)의 석문감(石門坎)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1985년 당시 귀주성(貴州省) 서기 후진타오(胡锦涛:2003-2013 중국주석)가 귀주성에 부임한 후 각급 기간의 간부회의에서 80년 전 영국선교사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가 중국의 가장 벽지인 위녕현(威寧縣) 석문감(石門坎) 일대를[373] '묘족 문화 부흥의 성지', '서남

370 주성일, "위구르 무슬림의 수난 이해와 복음에 의한 회복 방안 연구," 32.

371 주성일, "중국 이슬람의 확산과 이슬람의 중국화," 134.

372 주성일, "중국 이슬람의 확산과 이슬람의 중국화," 137.

373 귀주성 서북부 위녕현에 자리잡고 있는 석문감은 운남성 소통과 인접하며, 지대가 높은 산악지대다. 산새가 험하여 현지에서 '티베트의 티베트'라고 불릴 정도로 해발 2,762미터의 고도를 보인다. 산세가 험하며, 봄가을로는 하루 종일 운무가 끼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척박한 곳이다. 사회문화적으로도 문맹률이 높고, 한족의 천대와 억압을 받는 묘족들이 모여 사는 매우 외진 곳이다. 贵州日报, 2006年11月24日,http://news.gog.com.cn/system/2006/11/24/001057258

묘족 최고 문화지구'로 변화시킨 이야기를 나누며 당 간부들에게 업무에 충실할 것을 독려하고 꼭 한번은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 선교사가 사역한 마음들을 방문할 것을 지시하였다.[374]

이 일이 있은 후 중국 중앙TV(CCTV)에서 2011년 2월 2-4일까지 3일간 '저 하늘 너머(在天那邊)'[375]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고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376] 그리고 이 방송은 지금까지 중국 국영TV에서 외국선교사의 사역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는 유일하며, 1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중국 CCTV 인터넷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현대 중국사회가 기독교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

374 우심화, "중국의 소수민족선교 사례연구 Samuel Pollard(柏格理, 뿨끄어리)와 석문감(石門坎, 스먼칸)," *ACTS 神學과 宣教* 13, no. - (2013): 349.

375 석문감을 중심으로 한 영국감리교 선교사 Samuel Pollard의 사역과 석문감 일대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

376 http://tv.cntv.cn/videoset/C23684에서 현재까지도 시청이 가능하다.

<그림 1>

CCTV '在天那邊' 방송 중 묘족 교육 장면 일부 발췌

1900년 당시 묘족들은 다른 소수 민족에 비해 강한 응집력을 보이지 못하고, 절대다수가 한족 지주의 농노(農奴)가 되어 압박과 착취를 받고 중화민국 시기까지 극심한 차별 가운데 한랭한 산지에서 열악하게 살고 있었다.[377] 이러한 묘족들을 위하여 사무엘 폴라드 선교사가 여러 사역들 중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역이 인재양성이었다.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 선교사의 선교 철학은 기독교 가치관을 소유한 인재양성 사역을 중요시했다. 당시 폴라드가 사역하는 묘족들 사이에서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학교가 있다. 一所学校和一百所学校'는 말이 전해졌다고 한다.[378] 그만큼 폴라드(Pollard)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에는

---

[377] 龍偉, "基督教與中國西南邊疆研究的近代轉型," *중국사연구*, no. 71 (2011): 119.

[378]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威宁彝族回族苗族自治县委员会编, 『威宁文史资料 第五辑·石门专辑

교회와 동시에 학교가 시작되었다. 그는 묘족 초기 사역부터 그들의 고유의 문자가 없는 것과, 대부분의 묘족들이 물건을 살 때에 돈 계산을 못하는 것을 보고 묘족 교육 사역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였다.[379] 1906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학교에서 묘족의 자녀들뿐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학교도 함께 운영하였다. 결국 많은 마을에서 교회가 곧 학교였다. 건물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지만 주일에는 예배당이고 평일에는 학교로 사용되었다. 학교는 사방에서 몰려온 교인들로 가득하였다.[380]

1908년 안식 겸 질병 치료차 영국에 잠시 귀국 후 약 2,000파운드의 모금을 모아 바로 석문감(石門坎) 학교에 기숙사, 강당, 축구장, 수영장 등 근대식 시설을 설치하고 묘족들은 서양식 학교에서 성경과 함께 묘어(苗語) 한어(漢語) 및 영어를 배우고, 음악, 위생, 체육(농구, 축구, 수영, 기마)등을 익혔다.[381] 놀랍게도 이 결과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중국국가대표 축구팀에 석문감 출신 선수가 있었고, 1959년에는 중국의 국가대표 축구팀에 석문감 출신 선수가 무려 7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마라톤 등 체육항목에서도 석문감 출신들이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한다.[382]

이렇게 석문감 학교에서 학생들이 졸업하자 우수학생을 사천성(四川省)의 중심도시인 청두(成都)로 진학시켰다. 이 학생들은 졸업한 뒤 모두 석문감(石門坎)으로 다시 돌아와 묘족 교사 혹은 의사가 되었고, 교사들과 의사들은 전도자가 되어 교육과 의료의 현장에서 복음이 저항없이 전해지게 되었다.[383] 이러한 전통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석문감은 후진타오(胡锦涛)가

---

379 龍偉 120.

380 우심화, "중국의 소수민족선교 사례연구 Samuel Pollard(柏格理, 뻐끄어리)와 석문감(石門坎, 스먼칸)," 373.

381 우심화, ed., *Acts 신학입문, 중국 소수민족선교*, vol. 20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연구소, 2012), 6.

382 루젠민(陆建民), "去一趟石门坎". http://shimenkan.org.cn/book/rice/b/

383 사무엘 폴라드에 의해 교육을 받은 묘족(苗族) 중 오성순, 장초륜은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오성순은 묘족 최초의 양의(洋醫)로 묘족 보건의료사업을 일구는 창시자가 되었고, 장초륜은 1949년 이후 귀주성 인민정부의 첫 위생청장으로 활약하였다.

이야기한 대로 명실공히 “서남묘족 최고의 문화지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로서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 선교사의 “이묘교묘(以苗敎苗)”의 건학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384]

가정교회들 간의 연합과 협력

어떤 외래 종교든 선교지에서 토착종교나 타문화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들에게는 기존 자신들의 가치관과 종교적인 관념이 상치되기 때문이다.[385] 그동안 살펴본 기독교의 중국선교 전체 역사인 1,400여 년 동안 기독교 복음과 선교 행위에 대한 이러한 저항은 끊임없이 일어났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저항의 형태와 원인과 결과를 연구하면서 느끼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선교사를 파견하는 단체나, 선교지에서 같은 기독교 종파 간(경교, 천주교, 개신교), 선교공동체 간(예수회, 프란체스칸선교회, 도미니칸선교회)의 경쟁과 갈등 역시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렵게 자리잡은 중국선교를 마감하였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대 중국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부의 관리와 지시와 통제를 받는 ‘삼자교회’와 이러한 정부의 통제 가운데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가정교회’의 형태로 나뉘어진다. 물론 중국 정부는 지금도 가정교회를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국가적 단체’로 규정하고 각종 종교법을 통하여 가정교회를 삼자교회로 흡수하여 집권당의 총 노선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386] 이 때문에 본 연구자가 갈등 최소화를 위한 연합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의 연합이 아닌, 중국 내 다양한 형태의 가정교회의 연합을 의미한다.[387]

---

384 우심화, "중국의 소수민족선교 사례연구 Samuel Pollard(柏格理, 뻬끄어리)와 석문감(石門坎, 스먼칸)," 375.

385 Hiebert, and 홍병룡, 252.

386 인병국, 74.

387 전통적인 선교역사의 연합사역에서 항상 내부적인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이것이 발전하여 고발로 이어지고 이러한 갈등을 통해 지하교회가 발각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가정교회는 중국정부의 정치적 저항으로 인하여 대부분 연합 조직을 이루지 않고 각자 생존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연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비록 초기단계이지만 중국가정교회의 중소규모 연합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저장성 온주(溫州) 일대에 십자가 철거 운동이 한참 일어나던 2015년 북경의 몇몇 가정교회를 통해 중국의 각 성과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와 접촉이 가능하였다.[388] 당시 전체 중국지역의 가정교회와 접촉이 가능한 이유는, 본 논문 5장 3절 2항의 '사회참여를 통한 선교'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2008년 사천성 대지진(四川省 大地震) 구호활동'[389]을 하면서 교회가 수면 위로 올라 왔고, 그 당시 참여한 중국가정교회 지도자들 중 몇백 곳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도시에 누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 가정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느슨한 연대가 시작된 계기였다. 이러한 기초적인 연대를 토대로 2010년 남아공 케이프 타운에서 열린 '제3회 로잔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스스로 200명 가정교회 대표들이 기관, 농촌교회, 도시가정교회별로 구성되어 참석을 시도한 사건[390]이 연대의 가능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

현재 중국사회주의 정권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저항의 환경 속에서 중국의 가정교회는 중국 내 다양한 형태의 교회 간 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협력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교회연합'을 위하여 현재 가정교회가 극복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체계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과 아는 것만이 전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많은 가정교회 사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당국의 검열과 적발을 염려하여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391] 하지만 사역의 방향이 같으며 동일한

---

[388] 王怡, 286.
[389] 본 논문 p.138 참고
[390] 王怡, 266-67.
[391] Zhener, 138.

마음을 품은 조직의 연합을 통하여 지금의 강력한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가정교회의 연합과 협력의 기초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중국의 지역특성과 목적을 고려한 가정교회들 간의 지역별 연합 사역자 훈련학교를 개최하는 것이다. 중국은 각 성(省)마다 환경과 문화가 다르듯이 가정교회도 화중, 화동, 화북, 화남, 동북, 서북, 서남 지역의 가정교회의 특성이 매우 다르다. 또한 가정교회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별히 도시가정교회의 성장과 활성화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가정교회도 천편일률적인 모습과 목적이 아닌,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목적을 위한 모임을 가져야 하겠다.[392] 두 번째로는 가정교회들 간의 연합과 협력 그리고 강한 기도운동을 통하여 기독교 핍박 체제의 변혁을 간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선교는 성령의 능력을 통한 영적전쟁이기에, 연합운동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기도운동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각 지역의 특색과 교회의 특성에 맞는 가정교회별 조직과, 필요를 적절히 파악하여 ‘사역자 훈련학교’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은사’를 가진 ‘평신도 조직’을 통한 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정교회에서도 교육, 의료, 구제, 음악, 문서, 음향, 인터넷, 집수리 등등 다양한 사역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이들의 은사공유와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393] 특별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평신도들의 전문화 교육’을 통하여, 동일한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연합과 교제가 가정교회의 하나됨에 기여할 수 있다.[394] 지역의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신앙의 차이를 극복하고 중국 내 가정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392 김재룡, “중국교회와 협력선교를 통한 지역교회 선교역량활성화 방안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35.

393 집수리 선교회, 방송통신 선교회, 교회 음향 선교회 등의 여러 모임을 은사별로 연합할 수 있다.

394 Zhener, 146.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하게 하나될 때, 지금과 같은 강력한 정부의 통제와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저항 상황 속에서의 실천적인 선교전략

중국 정부는 1989년 천안문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개혁개방을 주도하던 온건파가 퇴진하고 보수강경파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395] 이에 그동안 덩샤오핑이 실시하던 경제개방뿐 아니라 사회 문화의 개혁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중단되었다. 특별히 중국 공산당 정부는 1990년대 초·중반까지 동유럽과 소련의 붕괴를 지켜보면서 이러한 붕괴의 원인이 종교에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 내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종교활동과 대외교류활동을 제한하는 6호 문건을 채택하여 더욱 경직된 종교정책을 펼치고 있다.[396] 이에 더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진핑(习近平) 정부는 '종교'를 하나의 국가 안전문제로까지 인식하여 종교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 통제하기 위하여 '기독교의 중국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외 종교와의 완전한 단절을 철저하게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397]

그동안 본 연구에서는 중국 선교에 대한 저항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살펴본 바, 중국선교역사에 나타난 선교 저항은 현지 '토착종교 저항', '사회 문화적 저항', '정치적 저항'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오늘날 중국교회가 저항의 환경 속에서 시도할 수 있는 시급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교회의 사업분야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지역사회의 열린 교회로 전환(콘비벤츠선교), 2)사회참여: 사회복지를 통한 선교, 3)새로운

[395] 1989년 발생한 천안문 사건은 중국 인권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천안문 사건의 충격은 심각한 것이었다. 이후 중국은 인권무시의 국가로 인식되어 서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비판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지도부(江澤民 당총서기)는 국내 전문가들에게 인권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지시는 체제옹호를 위한 이론 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색채를 띤 것이었다.

[396] 신명, 130-31.

[397] 김광성, "중국의 종교정책이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 : 기독교 중국화에 대한 선교실천적 대응," 57.

중국적 토착 기독교 문명(구국) 운동, 4)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가상공간을 통한 선교 전략과 관련된 것이다.

지역사회에 열린 교회로 전환(콘비벤츠선교)

이 장에서 제시할 '지역사회에 열린 교회로의 전환'과 다음 장의 '사회 참여를 통한 선교'에 대한 부분은, 중국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맞이하고 있어온 정치적 저항으로 인하여 중국의 가정교회의 대부분은 '내부 지향적'이고 '피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해결 방안이다. 하지만 중국의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러한 저항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기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선교 방안을 대안으로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미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진핑 정부는 '종교-기독교'를 국가 안전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단체로 인식하고 있기에 해외선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내 가정교회는 물론이고 공인된 삼자교회마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398] 따라서 오늘날 중국의 기독교는 새로운 관점에서 출발하는 선교적 원리가 필요한 시대임을 자각하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의 중국사회의 시대와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분명하게 진단하고, 그 안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우월성을 통하여 중국인의 심령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중국교회는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마치 초대교회 시기에 로마제국의 핍박으로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며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자의적 또는 강제적으로 다른 성(省)으로, 또는 깊숙한 내지와 변방지역으로 흩어지고 지하로 숨어들어가는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399] 하지만 이러한 중국교회의 특수한 환경은 오히려 교회와 세상을 분명하게 구분 짓게 하고, 교회가

398 최진호, "선교사 입국 거절 상황과 대응 :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105.
399 Zhener, 67.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는 왜곡된 가치관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중국가정교회는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역사회의 문제에 무관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자세가 부족한 실정이다.[400]

2000년대 이후로 중국정부는 기본적으로 가정교회에 대하여 '한 눈은 뜨고, 한 눈은 감은 상태'의 관리를 하여 왔다. 즉 기독교와 가정교회에 대한 핍박은 여전히 존재하였으나 '전체적인 탄압'이 아닌 '개별탄압의 형태'였다. 이것은 가정교회에 대한 각 지역별 정치적 저항의 강도가 다름을 의미한다. 어느 지역은 느슨하고 어떤 지역은 엄격하게 적용하였다.[401] 이를 통하여 저장성의 온주(溫州) 지역에서는 주민 303만여 명 중 무려 15%가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온주(溫州)를 가리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애칭까지 불리게 되었다. 특별히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정부의 느슨한 종교관리를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성도수가 500~1000명 이상 모이는 도시의 신흥가정교회가 등장하기도 하였다.[402] 물론 이러한 가정교회가 2015년부터 정부의 대대적인 교회 강제 철거의 대상[403]이 되어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가정교회는 건재한 상태다.

이러한 중국 도시의 신흥가정교회는 중국의 대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마치 삼자교회와 같이 예배당을 크게 짓고 노출되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중국의 가정교회가 문화대혁명 시기처럼 비밀리에 가정이나 제3의 장소에서 삼삼오오 드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는 다른 환경이며, 교회의 규모면에서도 재정적인 여건으로나 인적자원적인 면으로나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

400 이대훈, "동띠모르의 통전적 선교방안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66.

401 王怡, 250.

402 국민일보 2014.05.25 '동방의 예루살렘'관련 기사

403 중국을 주께로 통권247호 2023.03.03 '저장성 원저우 당국 난강교회 강제철거' http://www.chinatogod.com/main/z2s_c_v.php?no=5224&ctg3=7&div=5&search=%BD%CA%C0%DA%B0%A1%20%C3%B6%B0%C5

충분한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현대 중국교회들에게 다른 이와 함께 사는 삶으로 '콘비벤츠(Konvivenz) 선교 방법'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콘비벤츠선교'는 독일의 선교 학자인 데오, 준더 마이어(Theo, Sundermeier)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오늘의 현실에서 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 안에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의미한다.[404]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약속의 공동체이기에, 교회와 세상은 특성상 구분되지만 세상의 통치자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과 선교적 관계를 가지게 되며, 세상을 향하여 소통의 문을 열고 열린 관계가 되어야 한다.[405]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오늘의 중국교회는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콘비벤츠로서의 선교는 철저히 개인주의를 토대로 발전해 온 서구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의 형태다. '공동체적 삶'인 콘비벤츠는 만남의 지속성과 공간성을 가진다. 여기에서 '상호 협조', '상호 배움', '공동의 잔치'가 일어난다.[406] 사실 콘비벤츠는 예수님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선교요, 콘비벤츠의 삶이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살았으며, 그들을 위하여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콘비벤츠의 삶은 당시 사회가 만들어 낸 율법, 도덕, 사회, 정치적 차별 등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는다. 콘비벤츠로서의 선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꿈꾸는 선교의 원형인 것이다.[407]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행위로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타자를 위한 교회(Church for Others)'이어야 한다. 과거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For Mission'이었다. 그러나 현대선교, 특히 중국교회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With Mission',

---

[404] 한국일 410.
[405] 최진호, "선교사 입국 거절 상황과 대응 :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107.
[406] 한국일 425.
[407] 강아람, *선교와 해석학* [Mission and hermeneutics] (서울: 케노시스, 2016), 206.

관계 중심적인 사역이 되어야 하기에, 이제는 중국교회가 가능한 방법 안에서 끊임없이 '타자와 함께하는 교회(Church With Others)' 모델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408] 중국사회는 개혁개방 이후 가면 갈수록 철저한 개인주의와, 돈이 최고인 배금주의,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중국정부도 인정하고 있다.[409]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동안의 사회적 고립을 탈피하고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적용해야 하겠다.

사회참여(사회복지)를 통한 선교

본 연구자는 지난 2008년에 일어난 '사천성 대지진(四川省 大地震)'의 재난 속에서 수면 위로 부상한 가정교회의 역할을 접하면서[410] 중국교회의 사회참여의 방법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에 본문에서 가능성의 대안으로 논하고자 한다. 2008년 5월 12일 사천성에서 대지진[411]이 발생하자 민정부(民政部)[412]는 2008년을 자원봉사자의 원년(元年)으로 정하였다. 사실 2008년 8월은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된 해로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약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에서는 '자원봉사자'의 개념이 아닌, '지원군'의 투입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베이징 올림픽의 자원봉사자는 정부에서 조직한 반강제의 성향이 강하였다.

---

[408] 김재룡, 60.

[409] 중국사회과학원, "중국 사회형세 분석과 예측," *국회사무처 해외주요정세* (2005), https://nas.na.go.kr/nas/info/diplomacy_active03.do?mode=view&articleNo=383038.

[410] 미션파트너스: http://missionpartners.kr 2019.01.17 조슈아(OMF)선교사 기고문

[411] 2008년 5월 12일 사천성 진도 8.0의 지진으로 공식 사망자 69,000명, 부상자 약 374,000명 행방불명자 약 18,000명, 재산피해자 약 4,616명, 붕괴된 가옥 약 216,000동의 피해를 야기했다. 당포, "2008년 5월12일 중국 쓰촨(四川)성의 지진피해," last modified May 13, 2008, accessed October 22, 2022, https://m.blog.naver.com/isolators/50853519.

[412] 한국의 내무부에 해당하는 기관

그러나 사천성 대지진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의 어떤 기관도 조직하지 않았는데, 중국 전역에서 약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사천성 지진현장에서 구호활동을 벌인 것이다.[413]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민정부(民政部)의 내부 통계에 따르면 총 봉사자의 누적 인원 100만 명의 중에서 중국 기독교인이 60%나 차지한다는 점이었다. 이 숫자는 삼자교회 교인뿐 아니라, 가정교회 성도들도 상당수 포함된 숫자다.[414] 당시 이 사건은 사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에 중국교회가 참여한 것이고, 전 중국사회에 중국의 가정교회를 수면 위로 부상하게 한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교회가 앞에서 언급한 '함께하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중국 사회와 문화를 향하여 어떠한 사회참여 전략을 가져야 할지 그 방안을 생각해 보면, 중국교회의 사회복지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별도로 필요 없는 개념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론이 사회적 평등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완전한 복지 사회를 이루었다는 의미하기 때문이다.[415]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 현대 중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큰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사회 도처에서 대두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사회과학원에 발표된 [2018년 지속적 발전 전략 보고서: China's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8]에 따르면 빈곤층의 인구는 1억 2천 8백만 명이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416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국교회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사회참여(사회복지)를 통한 사역이다. 물론 현재 중국정부의 통제와 감시 하에서 자신들을 드러내야 하는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주저하게 하는

---

413 당시 투입된 인민해방군과 외국구호단체는 제외된 순수 중국 내 자원봉사자의 숫자다.

414 王怡, 259-60.

415 남일, "중국 특색 복지사회의 정책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52.

416中国社会科学(중국사회과학):
http://www.cssn.cn/shx/2021 中国可持续发展战略报告 绿色发展与创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말씀의 전파로 시작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실천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사회복지는 선교라는 범주 안에서 교회가 해야만 하는 실천 부분을 총칭[417]하기에 교회의 사회참여(복지)는 의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중국교회의 사회참여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중국교회는 대체적으로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고, 사회참여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교인을 모으는 방편으로 전도나 부흥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또 일회성 혹은 실적 위주의 사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418]

그렇다면 본장에서는 이미 다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 선교방법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역대 중국 선교사 중, 적극적인 사회참여(사회복지) 사역을 통하여 사역 당시와 사후(死後)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들에게 기억되고, 현재도 중국정부의 주도 하에 '중국 변방 지역개발' 부분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 선교사의 '사회참여 사례 연구'를 통하여 중국기독교의 사회참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앞서 '헌신적인 기독교 인재양성'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전 중국 국가주석이었던 후진타오(胡锦涛)가 사천성 서기 시절[419]부터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420]로 자리하기까지 그토록 강조하면서 중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국내지선교회 선교사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 선교사의 사례다. 가장 중점을 두었던 교육 부문 이외에도 사무엘 폴라드가 시행한 사회참여(사회복지) 선교 사역에 대한 좋은 예들이 있다. 그 당시 중국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고 있던 소수민족인 '묘족(苗族)사역' 중 사회참여에 대한 부분을 사역별로

---

417 김송렬, "기독교사회복지를 통한 중국선교전략"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 2009), 43.

418 Zhener, 116.

419 1985-1988까지 귀주성에서 임직함.

420 2003-2013까지 중국국가 주석으로 임직함.

구분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국내자료는 우심화의 "중국 소수민족 선교 사례연구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와 석문감(石門坎)"[421]의 자료를 참고하고, 중국 자료는 중국사 연구 제71호 '基督教 與 中國西南邊疆 研究的 近代轉型 기독교와 중국 서남 변방연구 근대변천사' [422] , "窄門"前的石門坎: 基督教文化與川滇黔邊苗族社會[423]"자료를 참고하였다.

최근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폴라드 선교사의 모범 사례를 강조하고, 귀주성(貴州省) 서기 첸윈루(錢運錄)가 선교사 묘역과 사역현장인 석문감(石門坎) 지역을 둘러보고, 중국중앙TV라는 방송매체를 통하여 특정 서양선교사의 지난 세기 초 중국 서남지역에서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을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소개했다는 것은 중국 내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사건이다. 이것은 중국정부가 사무엘 폴라드 선교사의 사회참여(복지)사역을 인정하고, 교회를 통한 사회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충분한 사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무엘 폴라드의 사회참여(사회복지)사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424]

1. 묘족 문자를 만들어 문자 부재였던 소수민족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묘족 문자로 된 첫 성경책과 찬송가를 만들었다.[425]
2. 오몽산지에 첫 묘족 소학교를 개교하였으며 근대화 교육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3. 위녕현에 첫 중학교를 세웠으며 이는 서남 묘족 주거지의 첫 중학교가 되었다.

---

421 우심화, "중국의 소수민족선교 사례연구 Samuel Pollard(柏格理, 뻐끄어리)와 석문감(石門坎, 스먼칸)."

422 龍偉. 基督教與中國西南邊疆研究的近代轉型,Christianity Missionary Christian University Studies of Chinese (중국사학회,2011)

423张坦, *"窄門"前的石門坎사천,운남,귀주성기독교문화와묘족사회* (北京: 雲南教育出版社, 1992).

424 张坦, 75-79.

425 英国来华传教士, 创制苗文并极大地影响了苗族的历史发展 https://baike.baidu.com/item/%E4%BC%AF%E6%A0%BC%E7%90%86/1762682,

4. 중국에서 처음으로 다중(묘-한-영)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남녀공학을 처음 도입하였다.
5. 귀주성 역사상 첫 학교운동장(축구장)과 수영장 등을 짓고, 일반인들의 체육활동을 선도하였다.
6. 묘족 역사상 최초로 2명의 박사(의학박사)와 수많은 지식인과 전문가들을 육성하였다.
7. 20세기 전반기 중국 서남지역에서 가장 큰 교육망을 형성하여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에 1백여 개 학교와 교육관할기관을 관할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8. 오몽산지에서 첫 서양의원이자 첫 '묘민의원'을 세우고,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천연두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다.
9. 중국에서 처음으로 불소증(불소침착증)을 발견하고 문제성을 보고하였다.
10. 중국 서부 최초의 한센병원을 개원하였다.
11. 석문감(石門坎) 일대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기독교 신자가 85%에 달하는 중국 내 최대 교인과 소수민족 교회를 탄생하게 하였다.[426]

위에서 11가지로 분류하고 열거한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의 사회참여 선교사역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국내에는 거의 없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에서는 柏格理(Pollard 선교사의 중국명)와 그가 사역했던 석문감(石門坎)에 대하여 역사학적, 비교종교학적, 문화인류학적, 사회경제학적으로 다양하고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현대 중국 내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 발전을 위한 모범 사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427] 그 중에서 현재까지도 특히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426] 1920년 중국 내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12개 현 중 위녕(威寧)이 1위를 차지하고 1만 명당 세례교인이 272.8명이었다. 중국대륙이 공산화된 1950년대에도 운남, 귀주, 사천 3개성의 기독교인은 약30만 명으로 전 중국 기독교인의 30% 정도를 차지하였다.

[427] 우심화, "중국의 소수민족선교 사례연구 Samuel Pollard(柏格理, 뻐끄어리)와 석문감(石門坎, 스먼칸)," 345.

묘족(苗族) 문자 창제 사역과 이를 통한 성경번역: 중국의 소수민족인 묘족(苗族)은 당시 문자없이 구전으로 그들의 역사를 이어왔다. 문자의 창제는 이러한 역사를 종식시켰다. 1905년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 선교사는 당시 영어를 잘 하는 한족 교인 이스테반 (李司提反) 및 묘족 교인 등과 몇 달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영어를 근간으로 하는 묘족 전통상의 무늬와 부호를 반영하여 간이 병음 문자인 "노묘문"(老苗文)[428]을 만들었다.[429] 묘족 문자를 만든 뒤, 폴라드(Pollard)는 교과서로 '묘문기초', '묘족원시독본' 등을 편역하고, 묘어신문(苗文報)도 창간했다. 아울러 '마가복음', '마태복음', '갈라디아서'의 성경을 번역하였다. 이 문자는 당시 묘족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70% 이상의 묘족들이 문자로 기록을 남기고 책을 읽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묘족들에게 사용되고 있다.[430]

보건의료사역: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 선교사는 내지선교회에 지원을 요청하여 석문감(石門坎)에 최초의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 약국은 석문감에서 예배당, 학교와 함께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다. 예배 후 묘족들은 약국으로 몰려와 사무엘 폴라드 선교사의 부인인 간호사 엠마(Emma 埃瑪) 선교사가 준비한 약품을 처방 받았다. 또한 당시 천연두가 유행하자 사무엘 폴라드는 영국에서 천연두 백신을 지원받아 무료로 지역 사람들에게 접종을 하며 천연두 퇴치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당시 중국 사회는 한센병을 극도로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을 강제로 생매장하는 사건들이 빈번하자 영국의 한센병 예방단체 'Mission to Lepers'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으로 식량과 옷감을 사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지원하였다. 사무엘 폴라드 선교사의 사망 후 4년 뒤에는 후임으로 온 영국선교사와 몇몇 묘족 전도자들에 의해 한센병 마을을 지어

---

428 또는 '폴라드 알파벳'이라고도 칭함.

429 龍偉 110.

430 우심화, "중국의 소수민족선교 사례연구 Samuel Pollard(柏格理, 뻐끄어리)와 석문감(石門坎, 스먼칸)," 377.

집단생활을 하도록 관리하였다. 아울러 아무도 그 원인을 몰랐던 이가 검게 착색되는 '불소증(불소침착증)'을 발견하고 문제성을 보고하였다.[431]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 선교사는 묘족의 위생과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묘족 자체의 의료진(의사와 간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그는 묘족 학생들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청두화서협화의학대학(華西協和大學醫學院)에서 수학하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이후 학생들 가운데 2명(오성순, 장초륜)의 의학박사학위자를 배출하여 묘족과 지역사회를 섬기도록 했다. 오성순(吳性純)은 묘족 최초의 양의(洋醫)가 되어 묘족 보건의료사업을 일구는 창시자가 되었고, 장초륜(張超倫)은 1949년 이후 귀주성 인민정부의 첫 위생청장으로 활약하였다.[432]

풍습개혁: 묘족들은 본래 술을 좋아하고 조혼(早婚)의 풍습이 있었다. 사무엘 폴라드 선교사는 '절제회(節制會)'를 만들어 묘족 신자들로 하여금 술을 끊게 하고 '개량회(改良會)'를 만들어 조혼의 풍습을 개선하여 남자는 만 20세, 여자는 만 18세가 된 다음 결혼할 것과 일부일처제를 장려하였다. 아울러 5월 단오절에 산 언덕에서 큰 기둥 나무를(立大木) 세우고 오색 깃발을 달아 화려하게 장식한 나무 끝에 돼지 머리나 우상 형상 등을 나무 꼭대기에 매달아 놓고, 기둥에는 기름칠을 하여 쉽게 올라갈 수 없게 만들고, 가장 먼저 기어올라가는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를 수 있는 '화산절(花山節)'을[433] 건전한 집단 체육활동인 '동락회(同樂會)'로 개혁하고 육상, 축구, 줄다리기, 묘족이 특히 좋아하는 산 타기와 경마와 같은 경기를 주요 항목으로 하는 '민족 운동회'로 변화시켰다.[434]

---

[431] 龍偉 117.

[432] 오성순 박사는 도시생활을 포기하고 석문감에서 일생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병행하여 치료에 힘쓰고 간호학교를 세워 농촌지역의 보건위생교육을 보급시켰다. 柏格理的故事-那些伟大的灵魂", 医疗事业, http://blog.sina.com.cn/s/blog_5c3e721a0100orqb.html.

[433] 이종철, "청동기시대 立大木 祭儀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韓國考古學報* 96, no. - (2015): 52.

[434] 张坦, 131.

더 나아가 당시 소수민족 자체의 식생활 개선과 위생을 위해서 묘족에게 식탁 사용, 세수, 세탁, 사람과 가축의 분리 거주, 화장실 사용법을 가르쳤고, 또한 묘족사회 공동체를 위한 '저축 조합'을 세워 묘족이 단위별로 자금을 모아 토지나 가축을 구매하고 직포기술과 감자 및 채소 기르기를 도입하여 낙후된 생활을 개선하도록 지도하였다.[435]

묘족 자치권 향상: 20세기 초 묘족(苗族)은 중국사회에서 아무런 정치적 힘이 없었고 잦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먼저 폴라드(Pollard) 선교사는 자신의 설교에서 종종 하나님 앞에서 만민은 귀하고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묘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역사 의식과 함께 인권향상을 위한 의식을 갖게 하였다.[436] 특히 1906년 6월 28일 당시 운남성 동부와 귀주성 서부에 기독교 신자 묘족들이 날로 증가하자 이 지역 지주들이 묘족을 박해하고 묘족에 대한 약탈과 관청의 무관심을 받을 때, 관청과 교섭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감옥에 갇힌 묘족들을 구출하였다. 사무엘 폴라드 선교사의 생애 마지막 10년은 그야말로 묘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본을 아낌없이 드러내는 삶이었다.[437]

그는 마지막은 중국 본토에서 가장 오지에 사는 가장 비천한 계층인 묘족(苗族)들로부터 선교사, 교사,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된 "라멍(拉蒙 즉 묘왕(苗王)"으로 지금까지 존경을 받으며 1915년 석문감의 묘족 장티푸스 환자들을 끝까지 돌보다가 자신도 전염되어 51세로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었다. 지금도 사무엘 폴라드 선교사의 묘비에 적힌 "牧師眞是中邦良友，博士誠爲上帝忠臣" 즉 "목사님은 진정한 중국인의 친구이며, 박사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라는 글귀가 그의 선교사역을 말해주고 있다.[438]

---

435 龍偉 119.

436 张坦, 147.

437 우심화, *Acts 신학입문, 중국 소수민족선교*, 8.

438 우심화, "중국의 소수민족선교 사례연구 Samuel Pollard(柏格理, 뻐끄어리)와 석문감(石門坎, 스먼칸)," 384.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 선교사의 묘족(苗族) 사역은 중국에서 '석문감(石門坎)의 기적'으로 불린다. 그는 당시 중국에서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며 고통에 신음하는 중국 내 소수 민족인 묘족(苗族)의 슬픔과 고난을 함께 하고, 그들과 동일한 생활을 하며, 입술로 선포하는 사역뿐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를 나타냈다. 그는 복음과 함께 중국인들(묘족인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특별히 자치自治)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사회복지) 사역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439]

그렇다면 현재 중국사회는 중국 기독교를 통하여 제2, 제3의 석문감(石門坎)과 같은, 사회참여(복지)의 필요를 요청하는 지역과 영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 2002년 후진타오 주석은 종교계가 제2정치국의 공동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업과 사회자선사업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기를 분명히 제안했다.[440] 이러한 정치적인 요청에 발맞추어 2003년 중국 기독교 양회[441]가 어떻게 하면 중국교회와 목회자들이 공공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할지 논의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빈곤구제, 양로탁아, 조장방애(助殘防艾),[442] 의료위생, 환경보호 등으로 전문화하여 사회복지 사업과 자선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443]

이처럼 현대 중국사회는 현재 극심한 급격한 고령화사회와 빈부격차, 그리고 도시화와 빈농 문제, 에너지 부족과 환경문제가 중국사회의 큰 숙제로 주어졌다.[444]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기독교가 현재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하여 기존의 정치적인 저항과 사회적인 저항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

439 우심화, "중국의 소수민족선교 사례연구 Samuel Pollard(柏格理, 뿨끄어리)와 석문감(石門坎, 스먼칸)," 385.

440 서신견, "중국 기독교의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연구" (서울장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52.

441 기독교 양회는 '중국 기독교 삼자애국운동 위원회'와 '중국기독교 협회'를 말한다.

442 장애인 돕기 및 에이즈 예방

443 서신견, 62.

444 중국사회과학원 2.중국사회의 당면한 7대 사회문제로 1)빈농 2) 소득격차의 확대 3)장기 실업 4)빈곤 5)부패와 정치개혁 6)에너지부족과 환경문제 7)노령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종교정책은 표면적으로 모든 종교 세력을 사회주의 발전의 동력으로 사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445] 이를 위해서 성경말씀과 신앙고백의 반석 위에 중국의 지역문화, 계층, 연령의 특색에 맞는 방향성과 전문성을 가진 기독교 사회복지를 연구 개발하고 발전하여 나간다면 저항 상황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중국사회가 지금의 중국 기독교에 가장 바라는 역할이기도 하다.

새로운 중국적 토착 기독교 문명(구국)운동

1500년이라는 장구한 중국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동안의 중국 선교는 '서구문명 주도의 선교운동'이었다.[446] 서구제국주의에 의해서 근대 중국은 피폐화되고, 수많은 반(反)기독교 운동의 배경 가운데 중국이 공산화되었다. 현재까지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면 갈수록 미·중 갈등, 동·서 문명의 이념 대립과 중국공산당의 정권유지를 위한 끊임없는 이데올로기 전략이 깊어지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서구적 기독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독교 문명 운동이 현대 중국 선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기독교의 '복음'도 '문화'라는 그릇에 담기지만, 문화를 초월하면서 시대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대문화에서 헬라 문화로 바뀌었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로마문화에서 게르만 문화로 성공적으로 바뀌어 갔다.[447]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유연성을 가장 잘 활용한 중국 선교사가 '마태오 리치(Matteo Ricci)'다. 하지만 바티칸 교황의 결정으로 중국의 천주교는 중국의 유교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앞선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명(明)·청(淸) 시대에 이러한 바티칸의 강경한 결정으로 중국 내 모든 선교사가 추방당하게 되었고, 19세기 후반 선교 사역이 불평등 조약과

---

445 김광성, "특집 : 중국교회의 신학과 선교 : 중국 종교자유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 34.
446 Winter et al., 402.
447 Winter, 143.

연루되어 정치적인 보호를 받게 되자 대부분의 중국인민들은 '기독교 선교'를 중국을 침략하는 서구제국주의의 간교한 전략으로 오해하게 되고, 결국 중국의 기독교 배타주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448]

이러한 중국의 기독교 선교역사 가운데 '중국적 토착 기독교 문명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냈던 사건이 '태평천국운동(太平天國運動)'[449]이다. 이 운동은 비록 불완전하고 역사적으로 실패하였지만,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 사건이 되었다. 태평천국운동은 아편전쟁 이후 반-봉건적, 반-유교적 종교운동으로 민중 중심의 중국을 근대화하는 첫 기폭제가 되었다.[450] 비록 이들의 의도는 기독교의 복음적인 정신과는 다소 많이 빗나가는 이단적인 요소가 강하긴 했지만 당시 수많은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왕조 건설을 위해 봉기했고, 이 운동은 10년 동안이나 중국대륙의 남부 요충지인 남경(南京)을 장악하였다.

실제로 이 운동의 초기 성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운동(救國運動)의 성격이 강하여 상당히 공평하고 정의롭게 백성을 다스렸으며, 중국의 전통적인 평등사상인 대동(大同)의 이념에 입각하여 토지를 공유하고, 남녀를 균등히 할당하여 전체 잉여 물자를 공유하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빈부 차별과 대립이 없는 세계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태평천국운동은 여러 면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의 '인민공사화운동(人民公社化运动)'[451]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452] 마오쩌둥(毛澤東)은 '홍수전(洪秀全)'을 서구로부터 진리를 탐구한 첫 번째 근대 인물로 '손중산(孫中山)'과 나란히 평가[453]할 정도로 그를 높이 평가하고 실제 농촌에서 홍군(紅軍)을 건설하면서 그로부터 배우자고 역설하였다.

---

448 량자린(梁家麟), 63.

449 1850.12-1864.8.

450 서진영, *중국혁명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42.

451 세계한민족문화대전: 1958년 중국에서 농업합작사를 인민공사(人民公社)로 통합시킨 운동으로 농업 분야에서 '대약진 운동'이 '인민공사화운동'으로 나타났다. www.okpedia.kr

452 신명, 60.

453 리쩌허우, and 김형종, *중국현대사상사론* (파주: 한길사, 2005), 515.

'태평천국운동(太平天國運動)'은 중국역사를 통틀어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반란을 일으킨 유일한 사건이며 중국 역사상 최대의 농민운동이다.[454] 특히 이 운동의 핵심사상인 '배상제회(拜上帝會)'는 외래 기독교를 중국 전통 속에서 독자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의 소산이었다.[455] 이 운동은 실제로 구약의 말씀 중 일부를 책으로 출판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 이렇게 홍수전과 태평천국의 지도자들은 기독교 교리를 선택 수용하여 이것을 중국 농민운동에 적용시켰다. 여기서 그는 중앙집권의 강화, 서양 기술과 문물의 도입, 서구열강과의 우호적 외교와 교역 관계 증진에 의한 부의 축적 등 개량적인 근대화를 추구하였다. 이와 같이 태평천국 운동은 민중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기독교 교리를 수용하여 이것을 비참한 중국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농민운동에 적용시켰으며 이러한 실천의 기준으로 당시 기독교의 교리를 개조하고 변화시켜 그들이 꿈꾸는 중국화를 과감하게 시도하였다.[456]

그러나 점차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이 운동은 청조(淸朝)의 부패, 사회적 구조의 모순에 대한 불만으로 청조(淸朝)에 저항하는 정치운동의 성격으로 발전하였다.[457] 결국 태평천운동을 일으킨 홍수전(洪秀全)[458]은 자신이 야훼의 둘째 아들이자, 예수의 동생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의 뒤를 이어 온 메시아라는 이단, 사이비적 사상으로 변질되었고 그로 인하여 실패한 운동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중국 정부는 자국의 교회를 향한 해외 선교 자체를 국권을 침탈하는 침략행위로 규정 짓는 단호한 상황 가운데 있기에 이제는 기존의 서구문명 주도 하의 기독교 선교가 아닌, 새로운 중국문화의 토착 기독교 문명 운동의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다.

---

[454] Winter, 290.

[455] 김의경, 27.

[456] 진미수, 28.

[457] 서진영, 44.

[458] 1814-1864. 청나라 말기 인물로 태평천국 운동을 주도했다. 특히 마오쩌둥은 홍수전을 손중산과 함께 서구로부터 진리를 탐구한 인물로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청조말기 짧은 시간 안에 민중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14년 동안 당시 청조(淸朝)의 위협이 될 정도로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기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태평천국운동'이 만주족을 몰아내고 다시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자는 구국운동(救國運動)의 성격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459] 이를 통하여 중국 사회의 구국운동(救國運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독교 문명운동의 가능성을 제안해 볼 수 있겠다. 한국은 중국의 반(反)기독교 운동이 활발하던 1919년에 3.1운동을 전후로 기독교 구국운동을 활발하게 펼쳤고 이를 통하여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였다.

비슷한 시기 중국 역사에도 손중산(孫中山)이 1912년 신해혁명이 성공한 이후, 1919년 5.4운동까지 중국 사회에서 기독교 구국(救國)운동에 대한 가능성이나마 존재하였다. 손중산이 중화민국(中華民國)을 건립할 당시 새로 건립된 정부 내에서 정치에 참여한 기독교인의 비율도 적지 않았다. 통계에 따르면 1912년 광동성 전체 각급 관리자의 65%가 기독교인과 선교사가 세운 학교 출신이었고, 농침총장, 해군 부차장, 참의원 차장, 정사당참, 교통부회계, 외교사장, 국회의원 등 중앙정부의 고위관리들 중에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이것은 당시 중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1/4000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독교인의 참정 비율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460] 중화민국 초기 당시 기독교는 중국의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어느 정도 존중을 받고 있었다.[461]

이렇게 기독교가 잠시나마 사회, 문화적으로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군벌의 난립과 러-일 전쟁 등, 미래가 없어 보이는 중국의 참담한 사회상에서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과 청년들은 국민들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데서

---

[459] 오귀환, "태평천국 '함께 기도하고 모두 밥을 먹자'," *한겨레21* (2005.01).

[460] 량자린(梁家麟), 132.

[461] 김재룡, 15.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우호적인 분위기는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대표들이 중국에 돌아와서 그해 4월 청화대학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세계기독학생연명'의 국제회의를 공격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반기독교운동이 1924-1927년까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기인한다. 신문화운동의 추진 세력은 복음전파에 큰 장애물이었던 유교와 도교의 시대성과 유효성에 의문점을 가지는 반면 외래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부분 감소되었고 심지어 전통문화를 배제한 후 생긴 공백을 다른 서구 문화로 보충하고자 했다. 19세기 말 중국에서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로 손가락질을 받았다면, 20세기 초의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환영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462]

더욱이 당시 기독교 선교사들의 교육개혁, 의료개혁, 자선사역, 풍속개량운동 등의 사역들이 중국에서 귀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당시 지식인들은 이러한 기독교가 중국에 구국(救國)운동의 출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다.[463] 이렇게 앞서 살펴본 '태평천국운동(太平天國運動)'과,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 전후의 기독교에 대한 중국 사회 문화적 환경을 살펴보면서, 현대 중국 기독교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종교를 통제하고 간섭하고자 하는 정책인 반제국주의에 기인한 '기독교삼자애국운동'이 아닌, 순수한 '구국(救國)운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중국 토착 기독교문명을 이룩할 가능성을 기대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가상공간과 한류문화 등을 통한 선교

선교는 오랫동안 지리적 영토 개념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중국 정부의 탄압과 박해에 의하여 기존 오프라인 교회가 축소되는 가운데 신앙의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중국에서 모색되고 있다.[464] 특히 지리적인 개념을 뛰어 넘는 가상의 공간에서 인터넷 교회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중국 사회는 기본적인 서버 및 네트워크의 인프라가 급속도로 보급되는 환경이기에 새로운 온라인 기독공동체가 다양한 형태로 생겨 나고 있다.

---

462 량자린(梁家麟), 135.

463 량자린(梁家麟), 137.

464 정기묵, "선교 대상으로서 사이버자아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53.

이러한 공동체에 대하여 중국 정부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동체는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유형은 한국의 카톡과 흡사한 기능을 가진 위챗(WeChat)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이다. 대부분은 성경 본문을 읽고 그 음성을 올리거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직접 부른 음성파일을 올리는 단조로운 구조가 대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위챗(WeChat) 자체를 폐쇄할 수 없고 대신에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며, 교신되는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교신되는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파악하기에 대상의 범위가 방대하고, 텍스트보다는 음성과 이미지 등으로 상호 교신하므로 감시망에 인지되는 계정은 상대적으로 적다.[465]

온라인 공동체의 효과는 다양하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구성원 상호간의 안부를 확인하고, 신변에 변화가 있을 시 즉시 온라인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과 공유되어 짧은 시간에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 나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외형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저항(박해)가 적은 국가에 비하여 현재 중국 온라인 개신교 신앙 공동체의 결속력은 매우 강하다. 이러한 저항의 환경 속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선교 패러다임은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필수 요건이 되어간다.[466]

이제는 중국 개신교가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존의 틀을 넓힐 때가 되었다. 중국 오프라인 교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했던 기독교적 교리, 신앙, 예배, 문화 등의 요소들을 플랫폼의 가상공간의 생태계에서 공존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 지하화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기존의 교회들은 여전히 종교활동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신에, 가상 공간에 대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위험하지도 않다.[467] 중국은 4차산업 혁명에 기반한 인터넷, 스마트폰 플랫폼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

[465] 원성수, "기독교 중국화 정책과 그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67.

[466] 곽정복, 164.

[467] 장성배, "포슨트코로나 시대의 새패러다임 선교," *감리회 세계선교협의회* 1 (2021): 11.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온라인 기독 공동체 모델은 중국에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겠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공동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효한지를 검증해야 한다. 첫 번째는 참여자를 검증하고, 두 번째로는 가치 단위 및 필터 등이다. 참여자는 기독교적 관념을 가지고 활동이 가능한 중국 기독교인 중에서 선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현실에서 참여자들은 예배와 성경공부, 성도 간의 교제라는 공동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468]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예배, 교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오프라인 교회가 직면한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매력적인 기독교 콘텐츠를 개발하여 어느 정도 규모의 참여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흩어진 기존 교회의 신자들이 가상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내 기독교 종교교육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469] 모든 것을 과학적 가치로 평가하고 지배하려는 4차산업 혁명 가운데 중국 내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의 플랫폼은 그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도와주며, 중국 내에서 홀대 받던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나 인간의 존재의 본질 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슈에 대하여 기독교의 활약을 기대할 수도 있다.

아울러 현재 중국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한류(韓流)를 기반으로 한 문화선교 전략이다. 이데올로기는 대중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통하여 실행된다. 특별히 덩샤오핑은 개혁개방 이후 이데올로기의 영역은 문화예술 분야의 육성으로 확대하였다.[470] 중국공산당은 이후 문화시장에 대해서 20년의 관찰, 사고, 실험한 후에 문화영역을 시장경제의 확대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문화산업을 인정하고 발전을 격려했다. 이에

---

468 정기묵, 162.

469 원성수, 72.

470 이동규,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본 시진핑 사상," 6. 1979년 중국문화 예술 종사자 제4차 대표대회 축사에서 등소평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교육종사자, 이론종사자, 신문종사자, 정치종사자와 기타 관련 종사자들과 협력하여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4개 현대화 사상의 동력으로 명명하였다.

따라 중국의 문화산업은 급속도로 확대와 성장 발전하여 왔다. 문화산업은 제3산업으로서 확실히 오염이 없고 저비용 고수익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471]

이러한 문화산업은 그 상품이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문화상품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의 시장화와 산업화는 새롭고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중국사회 곳곳에 전파하고 사회에서 국가가 주도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새로운 대중문화를 만들 수 있다[472]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선교의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영화, TV드라마, 가요 등과 같은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하여 베트남, 태국,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아시아뿐 아니라 북미, 남미,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 전세계에 '오징어 게임', 'BTS' 등으로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2세대를 넘어 3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선교는 미래 중국의 기독교 선교를 구상해 나가는 데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473]

그리고 이러한 한류 문화 콘텐츠는 SNS로 대표되는 유투브, 트위터, 페이스북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로드를 통하여 전세계에 상호 교류와 대화를 넓혀가는 초국가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로드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집단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첨단 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대중들의 지적능력이 엄청난 수준으로 높아지고 최근 인터넷과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채널이 마련됨으로써 개인들은 세계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474]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발행한 '우리도 몰랐던 디지털 로드 시대의 문화력'에서는 시대별로 본 문명교류의 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471 맹번화, 김태만, and 이종민, *중국, 축제인가 혼돈인가* (서울: 예담, 2002), 34.

472 이조영, "중국 문화산업화 과정에서의 공산당의 지배이데올로기 통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14), 7.

473 장신근, "한류를 통해 바라본 미래 대중문화의 방향과 기독교 문화교육," *선교와 신학* 31, no. - (2013): 288.

474 위택환, *K-Pop에서 K-Culture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2012), 13.

<표 3>

시대별로 본 문명 교류의 길[475]

구분	시대	교류범위	형성계기	발신주체
King's Road	고대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유럽→아프리카 유럽→아시아 일부	정치, 군사적 정복	국가
Silk Road	로마, 중국한나라 대항해 시대	유럽→아시아 전역 아시아→아프리카 유럽→신대륙→아시아	정치, 군사적 정복 경제적 침략	국가, 기업
Digital Road	21세기 디지털시대	전 세계	문화, 경제교류	국가, 개인

대중문화를 통한 선교는 개인전도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대중문화는 개인전도를 위한 접촉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독교 세계관(새로운 이데올로기)형성의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다.[476] 그러므로 국경이 없는 한류라는 대중문화를 통한 기독교 복음전파는 지금의 디지털 로드의 시대에서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선교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창조한 한류 콘텐츠는 위에서 언급한 중국공산당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질성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매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477]

요약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인 현대 중국 기독교가 당면한 정치적 저항의 최소화와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역사에서 경교와 천주교, 개신교를 포함한 포괄적인 기독교 선교활동에 대한 각각의 저항의 사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기술하였다. 중국 역사에서 기독교 선교에 대한 저항의 형태는 복합적인 현상이지만, 중국 역사의 저항의

---

475 위택환, 14.

476 민필원, "한류열풍 속 대중문화를 통한 아시아 선교의 가능성," *성경과신학* 64, no. - (2012): 81.

477 장신근 299.

카테고리화를 위하여 각 시대 속에서 경교, 천주교, 개신교 저항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저항 요인을 구분하고, 이를 통하여 '토착종교들의 저항(경교)', '사회문화적 저항(천주교)', '정치적 저항(개신교)'으로 분류하여[478] 각각의 저항이 어떻게 상호영향을 끼쳤는지도 설명하였다.

당나라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동안의 기독교 복음에 대한 수많은 저항운동의 양상이 중국공산당정권의 집권 후 '복음 행위에 대한 저항'에서 '복음 자체에 대한 저항'으로 바뀌었다. 이에 더 나아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장기 집권은 여전히 '기독교'를 국가의 안전문제로 인식하고, 중국교회가 중국의 정치와 사회에 동화되는 '기독교의 중국화'라는 목적을 완성하고자 더욱 강력하게 가정교회를 통제하고 삼자교회로 편입시킴과 동시에 자국 내 선교사들을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추방하고 있는 실정이다.[479]

이러한 중국 기독교가 맞이하고 있는 저항 환경 속에서 중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경험과, 독창성을 중심으로 저항의 최소화를 위한 중국교회 신자들이 취할 수 있는 신앙의 갱신 자세의 방향성과, 중국교회의 실천적인 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하지만 '무신론 정치체제' 하의 중국 사회에서는 더욱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선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장에서는 결론과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

478 앞내용 5장1절; pp.108-112.

479 최진호, "선교사 입국 거절 상황과 대응 :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89.

第6장

결론

요약

과거는 현재를 만들어 가고, 현재는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말이 있다.[480] 과거의 역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 명확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선교의 저항을 분석하였다. 물론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저항의 형태를 한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단순화의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독교에 대한 중국의 저항의 형태를 큰 틀에서 구분하는 것은 중국인, 중국의 사회와 문화, 정치 형태 속에서 올바른 선교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불가피한 작업이다.

중국 기독교 선교에 대한 저항 사건의 연구를 통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각각의 저항의 사건은 서로 분리되지만, 또한 상호 유기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호 유기적인 저항 사건의 흐름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자는 새로운 선교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행히 현대 중국사회의 토착종교의 저항은 근대 중국의 신문화운동과 중국 공산당정권의 종교정책으로 소멸되었거나 외래 종교와 동등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문제는 나머지 기독교에 대한 '사회 문화적 저항'과, '정치적 저항'은 여전하고 이것 또한 상호 연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현재 중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저항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 중국사회가 직면해 있는 사회문제와 필요를 중국 기독교가 정확하게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기독교에 대한 '사회·문화적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

[480] 프랑스 철학자 앙리 뵈르그송 (1859-1941)

저항 상황 속에서 중국기독교 신자들을 위한 개인 신앙의 기본적인 방향 4가지[481]와 중국교회의 갱신과 실천전략 4가지[482]를 각각 제시하였다.

제언

찰스 밴 엥겐은 그의 저서 *개혁하는 선교신학* 에서 "선교에는 항상 '저항세력'이 존재하기에, 우리에게 '저항'에 대한 선교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483] 연구자는 이에 공감을 가지고 중국 기독교 선교역사에서 나타난 저항 사례를 분석하여 저항 극복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중국대륙을 향한 선교의 발걸음이 서기 635년 경교(景教) 선교사들의 당(唐)나라 선교를 시작으로 현재 중화이민공화국까지 140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 기독교 복음의 발걸음이 '저항'으로 인하여 위기와, 중단, 그리고 선교의 재개가[484] 반복되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교회가 처한 환경 역시 중국의 선교역사에서 이러한 반복된 선교 위기의 연속성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부족한 연구와 정리를 통하여 본 논문은 중국 선교에 대한 저항에 관하여 다음 분야에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주로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다른 한편 저항은 때로 교회와 성도를 더욱 순결하게 하고 순교적 신앙으로 연단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저항의 순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연구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481] 5장 2항 복음주의적 신앙의 정립, 성령충만을 통한 백색 순교적 자세 함양,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헌신적인 기독교 인재 양성, 가정교회 간의 연합과 협력

[482] 5장 3항 지역사회에 열린 교회로 전환, 사회참여를 통한 선교, 새로운 중국적 토착 기독교 문명(구국)운동, 온라인 플랫폼 기반 가상공간과 한류문화를 통한 선교.

[483] Engen, 265.

[484] 김광성, "중국의 종교정책이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 : 기독교 중국화에 대한 선교실천적 대응," 74.

둘째, 본 연구는 중국 상황에서 발생하는 선교에 대한 저항 극복의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지만, 현재 본 연구자는 중국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현장의 실제적인 사역방안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실제로 사역하면서 효과적으로 저항을 극복한 사례를 가진 연구자에 의해서 더욱 실제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인용 문헌 (REFERENCES CITED)

Altansukh, Delgerekh. "12-13세기; 몽골 제국과 동방기독교." 안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Baumer, Christoph. *실크로드 기독교*. Translated by 안경덕. 서울: 일조각, 2016.

Dawson, Christopher. *The Mongol Mission*. New York: AMS Press, 1980.

Eagleton, Terry, and 여홍상. *이데올로기 개론*. 서울: 翰信文化社, 1994.

Engen, Charles Edward Van. *(개혁하는) 선교신학*. Translated by 임윤택 and 서경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CLC), 2021.

Hiebert, Paul G., and 홍병룡.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서울: 복있는 사람, 2010.

Krim. "2020 한국 선교 현황(2020년말 기준)." Last modified Feburary 26, 2021. Accessed March 21, 2023. https://krim.org/2020-korean-mission-statistics/?ckattempt=1.

McGavran, Donald A. *교회성장이해*. Translated by 김종일, 이요한, 전재옥, and 선교학회 한국복음주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McGavran, Donald A., and C. Peter Wagner. *교회성장이해*. Translated by 최동규, 박보경, 이대헌, and 황병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Moffett, Samuel Hugh,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1*.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Moffett, Samuel Hugh, and 김인수. *아시아 기독교회사2*.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08.

Neill, Stephen, 홍치모, and 오만규. *기독교 선교사*. 서울: 성광문화사, 2006.

Polo, Marco.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Translated by 김호동. 서울: 사계절출판사, 2000.

Ricci, Matteo, 신진호, and 전미경. *마테오 리치 중국 선교사*.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Taylor, Howard, 오진관, and Geraldine Taylor. *허드슨테일러의 생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Winter, Ralph D. *(랄프 윈터의) 기독교 문명 운동사*. Translated by 임윤택. 고양: 예수전도단, 2013.

Winter, Ralph D., Steven C. Hawthorne, 한철호, Darrell R. Dorr, D. Bruce Graham, Bruce A. Koch, 정옥배, 변창욱, 김동화, and 이현모. *퍼스펙티브스*. 고양: 예수전도단, 2010.

Zhener, Cui. "선교적 관점에서 본 중국 독자적 가정교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가톨릭사전. "서광계." Last modified March 1, 2023. Accessed March 15, 2023.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537&keyword=&gubun=01.

강아람. *선교와 해석학* [Mission and hermeneutics]. 서울: 케노시스, 2016.

고혜전. "중국 천주교 전래과정과 천주교 애국회 형성 배경에 관한 考察." 가톨릭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곽정복. "각 시대 별 중국 종교정책이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에 따른 선교 출구 전략 연구 : 시진핑 시대 이후 Gms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권성호. "중국 기독교 토착화 연구." 주안대학원대학교석사학위, 2015.

권중달, 조재덕, 신용석, 변상필, 김동정, and 이춘복. "자치통감 역주." *자치통감* (2007).

김광성. "중국의 종교정책이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 : 기독교 중국화에 대한 선교실천적 대응." *선교와 신학* 48, no. - (2019): 43-81.

김광성. "특집 : 중국교회의 신학과 선교 : 중국 종교자유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 *복음과 선교* 23, no. - (2013): 9-38.

金德均. "景教와 韓國의 景教傳來 小考." *首善論集* 14, no. 1 (1989): 3-12.

김명희. "종교간 대화의 모델로서 마태오 리치의 적응주의 -『천주실의』에 나타난 그리스도교와 유,불,도(儒佛道)의 대화." *組織神學論叢* 39, no. - (2014): 141-97.

김문경. *당대의 사회와 종교*.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6.

김병태. "한중(韓中) 토착화신학 비교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29, no. - (2008): 131-63.

김석주. "중국문화에서 맹아된 홍수전의 태평 기독교." *인문사회 21* 7, no. 1 (2016): 327-50.

김성태. *세계 선교 전략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김송렬. "기독교사회복지를 통한 중국선교전략."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 2009.

김영웅. "마테오 리치의 보유론적 신관과 중국 기독교 이해." 삼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김영진. *동아시아의 순교 이야기*. 서울: 기쁜소식, 2014.

김영호. "기독교의 중국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선교신학* 40 (2015): 43-79.

김의경. "洪仁간과 太平天國."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1985.

김재룡. "중국교회와 협력선교를 통한 지역교회 선교역량활성화 방안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김정계. *중국의 권력투쟁사*. 서울: 평민사, 2002.

김진보. "中國 儒家文化의 歷史的 變遷에 대한 哲學的 省察."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김현민. "청말 반란의 시대…태평천국의 난, 중국 뒤엎다." 아틀라스뉴스. Last modified January 29, 2020. Accessed March 12, 2023. http://www.atlasnews.co.kr/news/curationView.html?idxno=1619.

김혜경. "16~17세기 동아시아 예수회의 선교 정책: 적응주의의 배경을 중심으로." *신학과 철학*, no. 17 (2010): 35-68.

김혜경. "마태오 리치의 세계지도에 대한 선교신학적 고찰." *신학전망*, no. 198 (2017): 132-69.

김혜경.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2.

김호동. *동방 기독교와 동서문명*. 서울: 까치, 2002.

김화평. *중국교회사* [(A)history of the Chinese church]. 서울: 모리슨, 2003.

나무위키. "막고굴." Last modified October 1, 2022. Accessed October 15, 2022. https://namu.wiki/w/%EB%A7%89%EA%B3%A0%EA%B5%B4.

나무위키. "아바스 왕조." Last modified October 1, 2022. Accessed October 12, 2022. https://namu.wiki/w/%EC%95%84%EB%B0%94%EC%8A%A4%20%EC%99%95%EC%A1%B0.

나무위키. "안사의 난." Last modified March 1, 2023. Accessed March 15, 2023. https://namu.wiki/w/%EC%95%88%EC%82%AC%EC%9D%98%20%EB%82%9C.

나무위키. "황소의 난." Last modified June 7, 2022. Accessed March 13, 2023. https://namu.wiki/w/%ED%99%A9%EC%86%8C%EC%9D%98%20%EB%82%9C.

남일. "중국 특색 복지사회의 정책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노성기. "페르시아에 정착한 시리아-동방 교회의 역사(485~651)." *가톨릭 신학과 사상*-, no. 61 (2008): 162-91.

당포. "2008년 5월12일 중국 쓰촨(四川)성의 지진피해." Last modified May 13, 2008. Accessed October 22, 2022. https://m.blog.naver.com/isolators/50853519.

董丛林. *龙与上帝-기독교와 중국전통문화*. Translated by 우심화. 여주: 모리슨/하북사범대, 2021.

량자린(梁家麟). *중국에 축복이 임하다*. 서울: 그리심, 홍콩건도신학원, 2013.

리쩌허우, and 김형종. *중국현대사상사론*. 파주: 한길사, 2005.

맹번화, 김태만, and 이종민. *중국, 축제인가 혼돈인가*. 서울: 예담, 2002.

민필원. "한류열풍 속 대중문화를 통한 아시아 선교의 가능성." *성경과신학* 64, no. - (2012): 65-88.

朴明珍. "즐거움(Pleasure), 저항, 이데올로기." *社會科學과政策硏究* 13, no. 2 (1991): 67-95.

박승수.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내지선교와 '그리스도 안' 영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박정렬.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 탐색." 주안대학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21.

서신견. "중국 기독교의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연구." 서울장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서양자. *중국 천주교회사*. 대구: 가톨릭신문사, 2001.

서윤동. "경교의 아시아 전래 연구." 호서대학교 역사신학 박사학위논문, 2017.

서진영. *중국혁명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세상보기,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 "동방기독교". Directed by 김호동 (서울대 동양사학과). 2000.09.22.

신명. "中國 憲法에서의 宗教와 宗教政策."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신현광. "경교의 당(唐) 전래와 토착화에 대한 고찰." *신학과 실천*, no. 77 (2021): 533-66.

안승오. *세계선교 역사 100장면*. 서울: 평단문화사, 2010.

안재은. "경교(景教)와 가톨릭이 한국 기독교 선교에 끼친 영향." *신학지남* 75, no. 4 (2008): 354-79.

오귀환. "태평천국 '함께 기도하고 모두 밥을 먹자'." *한겨레21* (2005.01).

왕원평. "중국어 문서선교회." *중국을 주께로* (2011.11).

王怡. *십자가를 짊어지고*, edited by 중국 가정교회 역사(1807-2018). 경기도: 서로북스, 2022.

王治心. *中国基督教史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王治心, and 전명용. *중국종교사상사*. 서울: 이론과 실천, 1988.

龍偉. "基督教與中國西南邊疆研究的近代轉型." *중국사연구*, no. 71 (2011): 99-121.

우심화, ed., *Acts 신학입문, 중국 소수민족선교*. Vol. 20: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연구소, 2012.

우심화. *기독교와 중국전통문화*. 경기도: 도서출판 모리슨, 2021.

우심화. "중국교회간사(簡史)." *ACTS 세계선교연구* 2, no. - (2012): 256-81.

우심화. "중국의 소수민족선교 사례연구 Samuel Pollard(柏格理, 뿨끄어리)와 석문감(石門坎, 스먼칸)." *ACTS 神學과 宣教* 13, no. - (2013): 341-87.

우심화.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한 진단과 제언." 2012.

원성수. "기독교 중국화 정책과 그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위택환. *K-Pop에서 K-Culture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2012.

이경규. "당대 경교의 성쇠에 관하여." *中國史研究* 11, no. - (2000): 55-84.

이관숙. *기독교와 중국문화의 충돌*. 서울: 쿰란출판사, 1997.

이관숙. *중국 기독교사*. 서울: 쿰란출판사, 2006.

이대훈. "동띠모르의 통전적 선교방안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이동규.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 전략의 효용성 연구 : 중국의 정치사상교육을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0, no. 68 (2020): 141-61.

이동규.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본 시진핑 사상." *중국지역연구* 6, no. 1 (2019): 1-23.

이병길. *로버트 모리슨*.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이장식. *아시아고대기독교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이조영. "중국 문화산업화 과정에서의 공산당의 지배이데올로기 통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14.

이종철. "청동기시대 立大木 祭儀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韓國考古學報* 96, no. - (2015): 36-65.

이태우. "중국 가정교회와 삼자교회의 갈등과 선교협력 방안을 통한 중국선교." 서울기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이한수. *바울신학 연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3.

이현모. "경교는 실패한 선교 모델인가?", *복음과 실천* 43 (2009): 295-323.

이희진. *중화사상과 동아시아*. 서울: 책세상, 2007.

인병국. *중국 특색의 중국교회를 섬기는 길*. 서울: 에스라서원, 2000.

장로회, 조선예수교. "총회제1회 회록." 1912.

장성배. "포슨트코로나 시대의 새패러다임 선교." *감리회 세계선교협의회* 1 (2021).

장신근. "한류를 통해 바라본 미래 대중문화의 방향과 기독교 문화교육." *선교와 신학* 31, no. - (2013): 285-322.

장운. "동아시아 객가인, '밑으로부터 만들어진' 공동체 이루다." 한겨레. Last modified August 12, 2021. Accessed March 5, 2023. https://www.seouland.com/arti/culture/culture_general/8647.html.

张坦. *"窄門"前的石門坎사천, 운남, 귀주성기독교문화와묘족사회*. 北京: 雲南教育出版社, 1992.

장효현. "景敎(경교)(Nestorianism)의 東方(동방) 傳播(전파)." *동방문학비교연구* 2, no. - (2014): 11-30.

전신영. "반(反) 기독교 상황 속 허드슨테일러의 중국선교전략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전호진. "왜 아시아에서 기독교는 사라졌는가?" 코람데오닷컴. Last modified July 8, 2021. Accessed March 3, 2023. https://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1.

정기묵. "선교 대상으로서 사이버자아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정재일. "현 중국의 국가 이데올로기." *중국학연구* 13, no. - (1997): 71-94.

정흥호. "경교: 상황화에 성공인가, 실패인가." *ACTS 神學과 宣教* 7 (2003): 249-67.

조성우. "唐代 景敎 敎團의 活動과 그 性格." *중국고중세사연구* 4 (1998): 187-212.

조정희. "중국가정교회지도자의 순교적리더십 연구." 주안대학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조훈. *중국기독교사* [(A) History of Chinese christianity]. 서울: 그리심, 2004.

주성일. "위구르 무슬림의 수난 이해와 복음에 의한 회복 방안 연구." 주안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주성일. "중국 이슬람의 확산과 이슬람의 중국화." *아랍과 이슬람 세계* 8 (2021): 109-48.

중국사회과학원. "중국 사회형세 분석과 예측." *국회사무처 해외주요정세* (2005). https://nas.na.go.kr/nas/info/diplomacy_active03.do?mode=view&articleNo=383038.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唐會要*. 北京: 中華書局, 1955.

진미수. "중국교회 삼자운동 변천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진상선. "글로벌 시대의 교회를 통한 중국선교전략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차경애. "의화단운동과 제국주의열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최진호. "21세기 중국적 상황화 선교신학 모색." 장로회신학대학교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최진호. "선교사 입국 거절 상황과 대응 :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47, no. - (2019): 77-117.

최하영.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네스토리안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研究."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한국경제신문. "중국정부,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자제요청." 한국경제신문. Last modified August 31, 1991. Accessed March 15, 2023.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1083100341.

한국일. "테오 준더마이어(Th. Sundermeier)의 선교신학." *장신논단* 38, no. - (2010): 407-30.

한동훈. "중국 위기 상황 속에서 예장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의 선교전략 연구."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홍경환. "방지일의 선교와 사상 연구." 주안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황윤선. "1920년대 중국과 한국의 반기독교운동 비교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황정욱. *예루살렘에서 長安까지*.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5.

황종렬. "마테오 리치의 적응주의 선교의 신학적 의의와 한계." *교회사연구* 20 (2003): 187-220.

약력 (VITA)

2002년 서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B.A)

2002년 중국 천진·상해 자비량선교 (2006년까지)

2003년 중국 천진 중의학대학 중국어 연수

2013년 서울장신대학교 교역학 석사 졸업(M.Div)

2016년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 선교학 석사졸업(Th.M)

2012년 의정부교회 전도사

2015년 마석교회 부목사

2017년 광주서석교회 부목사

2023년 제주성지교회 부목사